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명사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고전시가 이해 교육 연구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중심으로-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송 미 지

명사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고전시가 이해 교육 연구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정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송 미 지

송미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고전시가 시어(詩語)의 의미 실현 유형을 시어가 텍스트 맥락과 관계 맺는 양상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시어를 중심으로 한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어의 의미는 텍스트의 맥락과 상호 작용하여 실현될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차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어휘의 사전적(辭典的)인 의미를 아는 것과는 구분되며, 작품을 문학적인 텍스트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건이 된다. 즉 학습자들이 고전 시가 텍스트를 시적인 텍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와 시어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성해내는 의미를 섬세하게 유형화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전시가 작품군 가운데서도 기행가사는 그 장르적 성격상 작품 내에 학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유명사와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시어와 텍스트 맥락의 상호적 작용을 이해하고 그를 바탕으로 작품을 심도 있게 읽어 내기 어려운 장르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텍스트 맥락과 관련한 시어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학과 문체학의 이론적인 논의를 참고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세 가지의 의미 실현의 원리를 살필 수 있었다. 시 텍스트 내에서의 시어의 의미는 문맥에 의해 다의성과 다층성을 지니며, 텍스트의 구조에 의한 전경화 원리에 의해 시어 의미의 부각과 약화가 일어나고, 시어의 어학적 자질에 따라 시어와 시적 대상과의 관계 양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어의 의미 실현 원리에 대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관동별곡>에 나타난 시어를 인간이 명사류에 대해 지니는 인식적인 범주에 따라 '사물 명사 시어', '공간 명사 시어', '추상 명사 시어'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범

주를 시어의 의미가 문맥과 갖는 관련성에 따라 '개념적 의미', '문맥적 의미', '조정적 의미'의 세 가지 의미 실현 유형으로 다시 나누어 9가지의 의미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 따른 시어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시어의 유형이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이 형상화되는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체험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물 명사 시어'의 경우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고, '공간 명사 시어' 는 전반적으로는 여정을 서술하고 작자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추상 명사 시어'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상적 사고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각각의 명사 시어들의 세부적인 역할 또한 의미 실현 유형에 따라 구분되었다.

Ⅳ장에서는 시어 의미의 세분화와 시어가 시적 진술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시어의 의미 분류를 중심으로 한 <관동별곡>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시적 진술에서 초점화되어 부각되는 개념적 공간 명사와 사물 명사를 중심으로는 '공간의 초점화'를 주요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며, 은유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변이적인 사물 명사를 통해서는 '은유의 생성'을 교육 내용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지식의 이해가 필요한 조정적 공간·사물 명사를 중심으로는 텍스트가 담고 있는 '심층 의미의 이해'를 교육 내용으로 세울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교육 내용은 '공간 시어와 비공간 시어의 비교 활동', '변이적 사물 시어의 시각화 활동',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는 교육 방법과 대응되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구체적 교수 학습 활동들을 통해 시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어의 다층적인 의미 실현 방식을 보다 섬세하게 이해하고, 작품에 나타난 기행의 체험을 추체험할 수 있으며, 비유적 시어를 통해 작품의 언어 세계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고전 시가 텍스트의 시어의 의미에 대한 분석과 그를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마련을 통해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미시적 구성 요소인 시어로부터 총체적인 작품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까지 이르

는 일련의 과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작품을 보다 풍요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조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 텍스트가 <관동별곡>으로 한정되었고 실제 학습자 자료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 다른 텍스트에 대한 응용 예와 실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증 실험이 새로이 요청되는 바이다.

주요어 : 관동별곡, 시어(詩語), 의미 분류, 유형화, 텍스트 이해, 텍스트 분석

학 번 : 2019-20381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
2. 연구사 ·····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9

Ⅱ. 명사 시어의 의미 분류를 위한 이론적 고찰 ····· 13
1. 시어의 의미 실현 원리 ····· 13
1) 문맥에 의한 시어 의미의 다의성과 다층성 ····· 14
2) 전경화 원리에 의한 시어 의미의 부각과 약화 ····· 17
3) 시어의 품사에 따른 시어와 시적 대상의 관계 ····· 20
(1) 사물 명사 시어 ····· 24
(2) 공간 명사 시어 ····· 26
(3) 추상 명사 시어 ····· 27
2. 명사 시어의 의미 실현 유형 ····· 30
1) 문자적 외연성이 강조되는 개념적 의미 ····· 31
2) 내포적 속성이 강조되는 문맥적 의미 ····· 32
(1) 속성과 가치를 부각하는 조정적 의미 ····· 32
(2) 이질적 대상과의 결합을 통한 변이적 의미 ····· 33
3. 명사 시어 의미 이해를 통한 <관동별곡> 교육의 의의 ····· 35
1) 기행 체험의 복합적 구조 이해 ····· 35
2) 고전 시가 시어의 다층적 속성 이해 ····· 36
3)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양식 이해 ····· 38

Ⅲ. 명사 시어의 유형에 따른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 ····· 40
1. 사물 명사를 통한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 ····· 41
1) 개념적 사물 명사를 통한 공간의 주관적 조경 ····· 42
(1) 사실적 경관의 묘사 ····· 42

(2) 관심 대상의 초점적 제시 ····· 44
2) 조정적 사물 명사를 통한 대상의 의미 부각 ····· 46
(1) 사물의 가치와 속성의 부각 ····· 47
(2) 사물의 문화적 상징성의 부각 ····· 49
3) 변이적 사물 명사를 통한 표현의 청신성 획득 ····· 54
2. 공간 명사를 통한 여정 서술과 가치관 표현 ····· 56
1) 개념적 공간 명사를 통한 여정의 중층적 제시 ····· 57
(1) 초점적 공간을 통한 소회의 제시 ····· 58
(2) 배경적 공간을 통한 선적 진행감 부여 ····· 66
2) 조정적 공간 명사를 통한 공간의 가치 부각 ····· 68
(1) 기행 공간의 유교적 가치 부각 ····· 63
(2) 기행 공간의 풍류적 가치 부각 ····· 73
3) 변이적 공간 명사를 통한 다층적 의미 추구 ····· 75
3. 추상 명사를 통한 상상적 사고 자극 ····· 78
1) 개념적 추상 명사를 통한 독자의 상상 유도 ····· 79
2) 조정적 추상 명사를 통한 서술의 완급 조절 ····· 81

Ⅳ.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설계 ····· 87
1.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목표 ····· 87
2.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내용 ····· 89
1) 개념적 공간 중심의 공간의 초점화 ····· 92
2) 변이적 사물 중심의 은유의 생성 ····· 96
3) 조정적 공간·사물 중심의 심층 의미의 이해 ····· 98
3.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방법 ····· 101
1) 공간 시어와 비공간 시어의 비교 활동 ····· 101
2) 변이적 사물 시어의 시각화 활동 ····· 108
3)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 활동 ····· 113

Ⅴ. 결론 ····· 121

부록 ····· 125
참고문헌 ····· 127
Abstract ····· 134

표 목 차

[표 1] 의미 영역에 따른 명사 시어의 분류 ····· 40
[표 2] 작품 전·후반부에 쓰인 조정적 공간 명사 시어 ····· 72
[표 3] 명사 시어의 유형에 따른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 ····· 85
[표 4]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에 따른 핵심적 시어 의미 유형 추출 ····· 92
[표 5] 공간·사물 명사에서 개념적 시어와 조정적 시어 비교 ····· 98
[표 6] <관동별곡>의 단락 구분 방식 비교 ····· 103
[표 7]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등가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 111
[표 8]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등가성을 고려한 시각 자료의 예 ····· 112
[표 9] 주석 제공의 예-1 ····· 115
[표 10]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의 탐구 활동 예-1 ····· 115
[표 11] 주석 제공의 예-2 ····· 116
[표 12]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의 탐구 활동 예-2 ····· 117
[표 13] 연구 주석서의 주석과 본고의 주석 비교 ····· 118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전시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전시가 텍스트를 시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시어의 의미 실현 유형을 시어가 텍스트 맥락과 관계 맺는 양상에 따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시어를 중심으로 한 고전시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모든 문학 작품에 있어서 텍스트에 대한 독해와 이해는 작품 감상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나 최근의 고전시가 교육에서 텍스트 독해와 관련된 교육적인 논의는 다소 외면받아온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텍스트 읽기는 텍스트에 포함된 정보들을 습득하는 '기계적·분석적 읽기'로 오해되곤 한다. 이와 같이 고전 시가 작품들이 창조적 언어예술인 '문학'으로서 향유되지 못하고 '사실적 지식'으로 교육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데에는 학교 현장에서 고전시가 텍스트에 대한 읽기가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명제적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하는 방식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전시가를 과거의 한켠에 존재하는 문학사적 산물로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도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고 영향을 주는 문화적 유산이자 문학 작품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작품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의 출발점이 되는 텍스트 독해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시를 교육하는 것이 단순히 시의 내용적인 측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해독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서적 반응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자들이 촉진하고 풍요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지적[1]이 있는 만큼, 고전시

가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텍스트 읽기 과정에 대한 배려가 다시금 주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2] 또한 고전시가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에 있어 본질적으로 텍스트와 관련된 사회·문화·역사적인 지식과 당대의 다른 문학작품에 대한 교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전 시가 텍스트 이해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 제재 텍스트 자체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가공이 필요하다.

특히 난해한 고전 시가 텍스트의 경우 텍스트의 분석과 가공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가 절실한데, 이러한 작품 텍스트에는 현대의 학습자들에게 생소한 고유명사나 한자어, 전고(典故)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교실 현장의 고전시가 수업을 살펴보면 교사가 고전시가 텍스트의 어려운 해독 요소들을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풀이해 주고 학생들은 그 내용을 받아 적는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교실 현장의 모습들은 학습자들이 고전시가 텍스트에 느끼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내용이나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가치관 차원의 정서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가장 작은 구성단위인 어휘의 의미 이해 수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단어 확인과 같은 일차적 수준의 읽기 과정인 해독(解讀)에 과도한 주의력이 투입되게 되면 단어를 후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주의량이 감소하여, 오히려 글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3] 학습자를 돕기 위한 어휘의 의미 풀이가 오히려 학습자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장해가 되고 오히려 학습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고전 시가 텍스트의 어휘 해독의 문제는 시구의 의미를 하나하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해결되지 않으며, 텍스트 이해에 필수적인 개별 어휘의 정보들이 오히려 텍스트를 하나의 전체로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고전 시가 텍스트 이해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

1) 윤여탁,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118면.
2) 최미숙, 「기호, 해석,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25-154면.
3) D. La Berge & S.J. Samuels, “Toward a theory of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in reading”, *Cognitive Psychology*, *6*(2), Elsevier, 1974, pp.293-323.

지점이 된다.

이와 더불어 대상 텍스트가 어학적인 텍스트가 아닌 시적인 진술의 텍스트이며,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들이 텍스트의 문맥과 당대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포함하는 '시어(詩語)'라는 점에서도 어려움이 초래된다. 즉, 학습자들이 어휘 개별의 문자적인 의미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적인 의미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텍스트를 올바로 읽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어의 의미가 실현되는 양상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함으로써 시어의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분석하여 시어의 의미 이해가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다시 말해, 시어가 텍스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 및 중요도에 따라 시어를 선별하고, 시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교육적 조치가 시적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이해 과정을 분석한 인지주의적 텍스트 이해 모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어휘 의미를 분명한 근거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언어학적인 논의들을 참고하여 어휘를 분석하였다. 또한 어학적 텍스트가 아닌 시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인 '시어(詩語)'의 특수한 의미 실현 양상을 검토하기 위하여 문체학적인 논의 또한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가 학습자들이 단순히 텍스트의 내용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감상의 차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재 텍스트와 관련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어휘 의미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시어와 텍스트 이해와 감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텍스트의 독해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고전시가 작품을 교육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작품의 길이가 길고 어휘의 난도가 높은 작품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해독의

어려움이 큰 작품의 예로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설정하고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우선 Ⅱ장에서는 텍스트의 분석 단위와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시어의 문체적 특성을 살피고, 어학과 문체학의 논의를 참고하여 <관동별곡>에 나타난 명사 시어들의 의미를 분류하고자 하며, Ⅲ장에서는 Ⅱ장의 분류를 기반으로 <관동별곡>의 시어들이 <관동별곡>에 나타난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이러한 시어를 중심으로 <관동별곡> 교육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고자 한다.

2. 연구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인 시어를 중심으로 한 문학 텍스트의 이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관련 선행 연구는 크게 ①문학 교육 논의에서 텍스트 읽기의 중요성을 살핀 연구, ②텍스트의 구성 단위를 기반으로 텍스트 읽기를 살핀 연구, ③어휘를 기반으로 텍스트 읽기를 살핀 연구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문학 교육 논의에서 텍스트 읽기의 중요성을 살핀 연구

먼저 송지현의 연구의 경우, 활동을 중심으로 시 교육의 방법을 탐구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시 교육 활동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가지의 활동은 크게 '표현'과 '이해'이다. 이때 '이해'란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텍스트 읽기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4)]

한편, 조재윤·엄해영의 연구는 인지적인 이해를 문학 교수 학습 모형의 중요한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섯 단계로 된 "인지와 감성

4) 송지현,「이해/표현 활동 중심의 시 교육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을 융합한 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문학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설명하는 인지적인 단계는 다섯 단계 중 2~3단계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반응 중심 학습 모형과 가치 탐구 모형이 학습자들의 감성적인 면만을 강조해온 점을 비판하며 텍스트의 인지를 ‘가치 수용 및 자기화’에 이르는 절차로서 강조하는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마련하였다.[5)]

이와 더불어 김흥규의 연구는 문학 영역 중에서도 고전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학습자가 고전 문학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대한 서지적(書誌的) 이해와 판단’, ‘텍스트 언어의 해독’, ‘장르적 관습·장치·특성의 이해’,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자에 관한 이해’ 등, 문학 지식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작품에 심미적으로 반응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6)]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학 교육에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단계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독자 중심·구성주의 교육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온 시 읽기 과정에의 배려를 문학 교육의 장으로 다시 되돌려 오려는 노력이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작품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들이 작품을 가치 평가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며 자기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의 역할을 한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② 텍스트의 구성 단위를 기반으로 텍스트 읽기를 살핀 연구

다음으로는, 이러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기반으로 텍스트 읽기에 있어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미시적인 요소들을 강조한 교육 논의들을 검토

---

5) 조재윤·엄해영, 「인지와 감성이 융합된 문학 독서 학습 모형 개발 연구」, 『새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149-180면.
6)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308-309면.

하였다.

이때 텍스트 또한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문학 교육 논의가 아닌 일반적인 텍스트의 인지적 이해의 과정을 검토하였다. 킨취(Kintsch)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을 어휘, 통사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처리가 일어난 뒤, 언어 지식·세상 지식·의사소통상황 지식 등 다양한 지식 자원들을 통해 상향식으로 이루어졌던 이해의 내용을 정교하게 재구성해 나가는 구성-통합(Construction-Integration) 모형으로 설명하였다.[7] 이 연구를 통해서는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텍스트와 관련된 외부의 지식과 텍스트의 세부적 구성 단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텍스트 읽기에 관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정교화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아담스(Adams)의 네 개 부분 프로세서 모형(Four-Part Processor Model)은 단어와 문장을 읽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네 처리기(處理機)를 텍스트의 문자를 처리하는 '철자 처리기', 언어의 분절(speech segments)을 처리하는 '음운 처리기', 단어에 대한 지식을 처리하는 '의미 처리기', "텍스트 내의 단어를 읽는 것과 관련된 언어적·의미적 맥락"을 처리하는 '맥락 처리기'로 제시하면서, 특히 의미의 이해에 있어서 맥락을 중시하였다.[8]

이와 유사하게 이카라시 고이치의 연구 또한 텍스트의 해석이 어휘의 의미를 판단하는 과정과 텍스트 전반을 통해 개념을 구성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경험적 종합' 과정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

최지현의 연구의 경우, 일반적 텍스트에서의 인지적 이해가 아닌 문학 교육에서의 '문학적 이해'에 초점을 두고 문학 텍스트의 이해 과정을 인지심리학 이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 텍스트의 이

---

7) W. Kintsh, 김지홍·문선모 역, 『이해: 인지 패러다임』 1, 나남, 2010, 215-238면.

8) M.J. Adams, *Begin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MIT, 1990.

9) 이카라시 고이치, 「텍스트 해석의 분석과 종합」, 『텍스트언어학』 1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111-135면.

해 과정과 일반적인 텍스트의 이해 과정을 상세히 비교하였는데, 문학 텍스트 또한 일반적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기호를 지각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점은 동일하지만, 문학 텍스트에서는 독자의 상상력이 작용하여 텍스트로부터 발생되는 인지적인 갈등을 조정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텍스트의 이해와 다르다고 하였다.[10]

위의 연구들은 인지적 이해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텍스트 일반으로 설정하였는지, 문학 텍스트에 특수하게 한정하였는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텍스트 읽기가 텍스트의 가장 미시적인 구성 단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텍스트 전체의 맥락과, 텍스트와 관련된 외부 지식을 종합하는 것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③ 어휘를 기반으로 텍스트 읽기를 살핀 연구

마지막으로는 텍스트의 구성 단위 중 하나인 어휘를 기반으로 텍스트 읽기를 살핀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권순정의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진 고전 시가 어휘 교육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물로서, 이 연구는 고전 시가의 어휘의 의미를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의 교합으로 분석하여, 어휘가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고전 시가의 어휘를 작품의 개별적 맥락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가 아니라, 고전 시가 작품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어휘의 목록을 수집한 뒤 어휘가 지니는 일반적인 의미를 분석한 것으로서, 개별 작품 텍스트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어휘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11]

고정희는 고전시가의 어휘와 고전시가 텍스트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주석(注釋)이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

10) 최지현, 「문학교육의 학제적 접근: 문학교육과 인지심리학-"문학적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25-156면.
11) 권순정, 「고전시가의 어휘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주석의 속성과 기능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하여 고전시가 어휘 주석 제시의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어휘 주석이 작품의 수월한 독해뿐만 아니라 감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연구는 텍스트의 세부 단위에 주목하되, 문학 텍스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 노력을 보여준다.[12)]

신윤경은 고전 문학을 포함한 한국 문학 작품 전반을 대상으로 문학 작품 속의 어휘를 분석하였다. 그는 어휘가 지니는 다층적인 의미의 전달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들에게 작품을 교육할 때 어휘를 어휘의 일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의미, 어휘와 관련된 문화적인 배경 지식 등으로 분석하여 설명해 주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문학 작품 속 어휘의 종류를 시사적 어휘, 고유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맥락적 상징어, 고유명사로 분류한 바 있다.[13)]

조치형은 고전 시가 텍스트의 미학적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전고(典故)에 초점을 두어 전고의 양상을 물명, 인물, 전거, 주제 중심 전고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전고의 양상에 따른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14)]

이상의 선행연구들에는 내재적·함축적 의미를 지닌 문학 텍스트의 어휘와 텍스트와 관련된 당대의 사회·문화적 지식 등 학습자들의 기존 지식으로 추론이 어려운 의미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가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텍스트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상으로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의 읽기는 단순히 작품 문면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이해 및 감상의 과정의 첫 단계로서, 문학 교육

---

12) 고정희, 「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 연구」, 『국어교육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355-390면.

13) 신윤경, 「한국문학 읽기를 위한 어휘 주석 연구－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맥락 이해 추가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1, 2014, 43-62면.

14) 조치형, 「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 『국어문학』 60, 국어문학회, 2015, 169-195면.

에서 핵심적인 단계를 담당한다. 둘째, 텍스트의 이해는 일반적인 텍스트의 인지 과정에 부합하면서도 일상적인 텍스트의 이해와는 구별되는 '문학적인 이해'여야 하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로부터 출발하되, 상향식 조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 맥락을 통해 이해가 조율되어야 한다. 셋째, 고전 시가 교육에서 텍스트의 미시적 구성단위로부터의 이해와 작품의 맥락을 고려한 이해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구체적인 고전시가 텍스트를 대상 제재로 삼아, 맥락을 고려한 시어의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가 이후의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으로 송강(松江)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선정하였다. <관동별곡>은 16세기 후반에 쓰인 조선 시대의 기행가사의 전범(典範)격으로 여겨지는 작품으로서, 국문학사에서의 위상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교육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가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온 작품이다.[15]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관동별곡>은 해방 이후 꾸준히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왔으며, 고전 시가 작품들 중 누적 교과서 수록 빈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작품으로서, 고전 시가 작품 중 높은 대표성을 지니는 제재로 여겨져 왔다.[16] 그러나 한편으로 <관동별곡>은 2015 개정 교육

15) 염은열, 「표현 자료로서의 <관동별곡> 연구」, 『독서연구』 4, 한국독서학회, 1999;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조세형, 「<관동별곡>에 나타난 중세적 표현방식과 그 현대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등의 논저 참고.

16) 조희정, 「고전 제재의 교과서 수용 시각 검토 (1) - <홍길동전>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과정에 이르러서는 고등 국어 교과서 12종 중 오직 세 종의 교과서에서만 수록되며, 교과서 제재 수록 빈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감소한 작품이기도 하다.[17]

그러나 교과서 수록 빈도와 무관하게 실제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동별곡>이 주요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사들이 교과서가 아닌 학습지 등의 자료로 가공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관동별곡>은 교육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교과서 수록 양상이 비대칭적으로 어긋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의 <관동별곡>의 비대칭적인 지위는 <관동별곡> 텍스트가 지니는 난해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동별곡>은 기행가사(紀行歌辭)로서, 작자가 금강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느낀 흥취와 감흥이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작품으로, 이러한 장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관동별곡>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사건을 언어화하여 전달하기 위한 확장적인 진술이 나타나며,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사물 및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들이 작품 텍스트에 다양하게 유입된다.[18] 학습자들이 위치한 현대의 시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당대의 생경한 어휘들은 학습자들이 작품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난관이 된다.

<관동별곡>에 활용된 명사 어휘를 대상으로 한자어와 고유어의 사용 횟수와 비율을 조사한 연구에서, <관동별곡>의 318회의 명사 사용 횟수 중 한자어의 횟수와 비율이 231회로 약 72.6%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미인곡(思美人曲)>의 한자어 명사 사용 비율이 41.78%, <속미인곡(續美人曲)>이 36.56%, <성산별곡>의 한자어 사용 비

86-87면; 조희정, 「국어과 교과서 고전 시가 제재 단원의 이론과 개념 연구 - 2009 개정 국어 교과서 송강 가사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79-121면.

17) <관동별곡>을 본 제재로 수록한 교과서는 금성(류), 천재(이), 신사고(민) 고등 국어 교과서이다. (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66, 한국문학교육학회, 2020, 178-179면 참조.)

18) 박영주, 「기행가사의 진술방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15, 219-239면.

율이 59.05%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19] 이와 더불어 본고의 조사에 따르면 <관동별곡>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를 포함한 체언(體言)은 총 379개, 동사·형용사를 포함하는 용언(用言)은 233개 사용되어, <관동별곡>이 비교적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체언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20]

당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구체적인 지명, 인물, 사물 및 한자 어휘들은 오늘날 당대의 맥락에서 멀어진 학습자들에게는 정서적 거리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현재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관동별곡>의 원문 옆에 주석을 달아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이해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지만, 어떤 내용이 주석으로 제공되고 어떤 내용이 제공되지 않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국문학 주석서의 내용을 일부 가공하여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석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비판한 바와 같이 교육적인 고려 없이 외부적인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서, 교육적인 고려와 독해 과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행가사의 대표적인 작품인 <관동별곡(關東別曲)>을 대상 텍스트로 삼아 관동별곡에 나타난 시어들을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교육적 가치에 따라 구조화하고자 한다. <관동별곡>은 현재 ≪송강가사(松江歌辭)≫와 ≪협률대성(協律大成)≫에 전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송강가사≫의 이선본(李選本)을 채택하여 저본(底本)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 또한 이에 따라 ≪송강가사≫의 이선본(李選本)을 연구의 저본으로 삼았다.[21]

---

19) 김신중, 「송강문학의 활용과 전망적 시각」, 『고시가연구』 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20) 체언 전체의 개수는 379개이지만, 자립성을 지닌 명사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309개로, 동사·형용사를 합친 233개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계량에 있어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별개의 단어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서, '하도 할샤'는 '하도'와 '할샤'를 별개의 동사로 보아 2개의 용언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보조용언의 경우엔 별도의 용언으로 계량하지 않았다.

21) 鄭澈, 方鍾鉉 註, 『松江歌辭』, 正音社, 1948를 참고하되, 오탈자(誤脫字)에 대한 교정은 김상태, 『관동별곡의 생략언어: 국어국문학 자료처리를 위한 생략

한편, 연구의 전제가 되는 학습자는 <관동별곡>을 학교 수업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고등학교 1~2학년의 학습자로 설정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Ⅱ장과 Ⅲ장에서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전제를 두고 <관동별곡>의 원문 텍스트를 교육을 전제로 분석하며, Ⅳ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설계할 것이다.

언어의 현시』, 학고방, 2005를 참조하였다.

Ⅱ. 명사 시어의 의미 분류를 위한 이론적 고찰

시어(詩語)는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출발점이 된다. 한데, 고전시가 텍스트를 읽는 현대의 학습자들은 작품이 창작된 시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작품 텍스트 속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어휘 정보와 배경 지식이 모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가 어떤 원리에 의해 실현되고, 어떤 세부적 유형으로 나누어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처리해야 하는 텍스트 정보와 지식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소목표(小目標)를 가지고 작품 텍스트 속 시어(詩語)의 의미를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한 언어학과 문체학에서의 이론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1. 시어의 의미 실현 원리

본 연구에서 '어휘(語彙)' 대신 '시어(詩語)'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 텍스트를 구성하는 '시어'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어휘와 달리 시 텍스트만의 특수한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시 텍스트에서는 일상적인 언어 논리에서 벗어난 언어적 표현이 자주 쓰이곤 하며, 시적인 표현들에 익숙한 독자들은 시 텍스트에 쓰인 일상적 규약에서 벗어난 참신하고 시인의 개인적인 표현들을 문학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이해한다.[22] 그러나 한편으로 시는 언어를 도구로 하여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일상어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어 또한 문법적인 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제약을 지닌다. 따라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인 방향에서의 의미 실현 원리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

22) 최지현, 앞의 글, 137-142면.

이 절에서는 시어의 의미가 실현되는 두 원리인 '문학적인 의미 실현의 원리'와 '언어학적인 의미 실현의 원리'를 모두 고려하여 "언어학의 방향에서의 문학적 담화 연구"인 문체학(stylistics)[23]의 논의를 참고하여 시어의 의미가 실현되는 원리를 살피고자 한다.

1) 문맥에 의한 시어 의미의 다의성과 다층성

문체학에서는 문학 텍스트를 일반적인 일상어 텍스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사소통의 원리를 갖춘 소통의 텍스트로 간주한다.[24] 이로 인해 소통 상황에서의 '맥락(脈絡)'의 개념 또한 문학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다. 맥락은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담화로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미시적 자질들의 의미 실현에 영향을 준다.

문학 텍스트에서의 맥락의 영향에 대해 살피기 이전에, 먼저 일상어에서의 텍스트 맥락이 어휘 단위의 의미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도는 인심이 좋다.'와 같은 일상적으로 평이하다고 여겨지는 문장에서도 텍스트의 맥락은 어휘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이 경우 본래 고유명 지명(地名)인 '충청도'가 '인심이 좋다'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술어부와 결합하면서 '충청도'가 지명으로 해석될 수 없는 사례이다. '충청도'는 맥락적인 정보에 의해 지명이 아닌 '충청도에 거주하는 사람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변화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문맥에 의해 텍스트 어휘의 의미가 장소에서 사람으로 전이(轉移)된 사례로서,[25] 위의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충청도는 특정한 지역의 이름이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있는 장소이고, 지역별로 사람 집합의 특성을 묘사할 수 있다.'와 같은 문화적 지식과 배경 지식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일상적 언어에서 어휘의 의미

---

23) 문체(文體)는 문학 연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이종오, 『문체론』, 살림, 2006, 6-32면.) 여기에서는 언어학과 문학을 접목한 학문으로서의 문체학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H.G. Widdowson, 최상규 옮김, 『문체학과 문학교육』, 예림기획. 1999.)

24) 이종오, 앞의 책, 12면.

25) 임채훈, 「명사의 의미론」, 『한국어학』 62, 한국어학회, 2014, 59-95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능숙한 언어 사용자는 위와 같은 의미의 연산 과정을 체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텍스트 속의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뿐만 아니라, 이때의 문맥이란 단순히 텍스트 구성 요소들 사이의 조합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텍스트를 둘러싼 배경 지식 등 텍스트 외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개념이다. 언어학에서는 이와 같이 문맥에 의해 어휘의 의미가 가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묶어 '다의성(多義性)' 혹은 '다변성(多辯性)'으로 설명한다.

실제의 텍스트에서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는 현상은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수학적인 연산처럼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는 현상은 아니지만,[26] 어휘의 의미가 문맥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문체학적인 논의에서 의심 없는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7]

특히 낱말 각각의 가치보다 낱말들의 문맥적 관계들에 가치를 둔 '구조 문체론'을 주창한 리파테르(M. Riffaterre)는, 문학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는 독자의 해독 과정을 미시맥락과 거시맥락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텍스트의 메시지는 미시맥락과 거시맥락의 조정을 통해 해독된다고 주장하였다.[28]

이와 더불어 텍스트 속의 시어의 의미가 맥락에 의해 변화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곧 시어의 의미가 다층적(多層的)인 속성을 띠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리이치(G.N. Leech)는 '의미(sense)의 일탈' 개념을 통해 시어의 의미가 어떻게 일상적 의미와 문학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의미를 다층적으로 갖게 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리이치는 워즈워스(Wordsworth)의 격언인

---

26) 크루스(D. A. Cruise)는 의의 스펙트럼(sense spectrum)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어휘의 의미 변화를 가장 핵심적 의미로부터 은유적 확장까지의 스펙트럼으로 설명한 바 있으며(D. A. Cruise, 임지룡·김동환 역, 『언어의 의미:의미·화용론 개론』, 2002, 213면.) 이민우의 연구 또한, 문맥 속에서 단어 의미의 다양성을 곧 '해석의 다양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민우, 「다중적 의미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2010, 198면.)

27) B. Sowinski, 이덕호 역, 『문체론』, 한신문화사, 1999, 108면.

28) 이종오, 앞의 책, 67-72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이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서, 표면적으로는 모순된 명제를 지니고 있어 의미의 일탈이 일어난 문장은 이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문학적 의미를 찾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아버지(father)’를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문맥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찾아 이해한다고 하였다.[29] 이때의 ‘아버지’는 일상어의 ‘아버지’가 지니는 속성적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시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라는 어휘가 지니는 여러 자질적인 의미 중에서 ‘무언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존재’ 등의 뜻이 문맥에 의해 새롭게 부각된 시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독자들이 일상적 규약에서 벗어난 시어를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조정된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이때 시어의 의미는 본래의 어휘의 문자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문맥에 의해 부여된 의미가 보다 강조되는 양상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다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체학을 문학 교육의 측면에서 활용한 위도우슨(Henry G. Widdowson)또한 시어가 문맥에 의해 다층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바람은 창문 아래 들판을 폭주시켰다(The winds (were) stampeding the field).”라는 문장의 경우, ‘바람’이 ‘폭주하게 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행위의 주체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무생물의 어휘 항목인 ‘바람’이 문맥을 통해 생명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도우슨은 이러한 의미의 전이(轉移)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라는 어휘가 지니고 있는 무생물적인 자연 현상의 의미가 완전히 소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의미의 다층성이 시 언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하였다.[30]

정리하자면,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들을 통해 시어의 의미 이해에 있어서는 시어의 사전적(辭典的)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적인 맥락의 교섭으로 일어나는 시어의 의미 변화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

29) M. Riffaterre & S. R. Levin & G. N. Leech, 양희철·김상태 공편역, 『일탈문체론-리파테르·레빈·리이치의 이론들』, 보고사, 2000, 113-135면.
30) H.G. Widdowson, 앞의 책, 56-66면.

더불어 시적 맥락에 의해 시어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거나, 특정 의미가 강조되는 양상으로 의미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시어의 의미는 언어적 규약에 따른 어휘의 문자적인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문자적 의미 위에 새롭게 부여된 의미가 공존하는 일종의 다층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시어는 언어적인 규약에 종속되는 개별 어휘로서 문법적 규칙의 제약을 받는 동시에 문학 작품의 구조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정보에도 영향을 받으며, 이로써 어휘 항목들이 일상적인 언어 규약을 통해 갖는 의미 이외의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31] 즉 문학 텍스트의 시어 의미의 설명에 있어서는 시어의 문자적인 의미의 분석뿐만 아니라 텍스트 맥락에 의해 변화되고 절충된 다층적 의미의 분석이 중요하다.

2) 전경화 원리에 의한 시어 의미의 부각과 약화

시어의 의미 실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은 시어들간의 관계와 텍스트의 구조이다. 시어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어들과의 상호 관계를 지니며 언어적 구조체를 형성한다. 무카로프스키(J. Mukarovsky)는 언어 구조체에서 두드러지는 요소가 독자에게 일으키는 효과를 '전경화(foregrounding)'의 원리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텍스트를 읽을 때 비자동화(deautomatisation)된 독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경이 되며, 자동적으로 읽혀 독자에게 일탈적인 요소로 여겨지지 않는 부분은 후경이 된다.[32] 전경화는 "반복, 특이한 이름, 혁신적 기술(記述), 창조적 통사 배열, 말장난, 각운, 두운, 운율 강조, 창조적 은유의 사용" 등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들의 공통점은 텍스트의 패턴에서 특이한 요소를 만들어 독자의 주의를 이끈다는 점이다.

리파테르(Riffaterre) 또한 '일탈(逸脫)' 개념을 통해 텍스트 내에서 현

31) H.G. Widdowson, 앞의 책, 12면.
32) M. Riffaterre & S. R. Levin & G. N. Leech, 앞의 책, 151-152면.

저성을 띠는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특히 통사적인 연접(連接)에 의한 의미적인 모순이 독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일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밝음(obscure clarté)'와 같은 모순된 수식어가 사용된 구(句)가 있다고 한다면, 앞서 제시되는 '어두운(obscure)'에 비해 이후에 제시되는 '밝음(clarté)'이 일탈적인 요소가 된다. 텍스트의 선적 진행을 고려했을 때 '어두운'은 텍스트를 읽는 독자들에게 전제적으로 제공된 요소인 것에 비해, 이와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밝음'은 독자들에게 예측이 어려운 일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전경화 이론은 이후 인지심리학적인 문체 연구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지심리학적 문체 연구에서 전경(前景)은 시각적으로 뚜렷한 개념적·물리적인 경계가 있는 대상으로, 배경(背景)은 상대적으로 정적이고 크고 덜 명료하며 관찰자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대상으로 설명된다.[33] 이때 전경은 텍스트에서 배경보다 더 상세하게 다뤄지고, 더 초점화되며, 더 부각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이상한 언어적 낱말이나 구로 표현되었거나, 중요한 술어에 귀속되고 움직임이 있는 대상들이 주의를 끌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34] 즉 모든 시어가 독자에게 같은 중요도로 인식되지 않으며, 독자의 주의가 이끌어지는 곳에 전경적인 시어가, 독자의 주의가 멀어지는 곳에 배경적인 시어가 위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 언어의 고유한 특성 또한 시어의 전경화 양상에 영향을 준다. 영어에서는 화자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거리가 먼 대상을 나중에 언급하는 순서가 일반적인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화자로부터 거리가 먼 대상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마지막에 언급하는 '원-근 어순'이 일반적이다.[35]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텍스트에

---

33) P. Stockwell, 「밀턴풍의 텍스처와 읽기 감각」, E. Semino & J. Culpeper 엮음, 양병호 외 역, 『인지문체론—텍스트의 언어와 인지 분석』, 한국문화사, 2017, 131면; L. Talmy, *Toward a Cognitive Sematics*, Cambridge, MA:MIT Press, 2000, p.183.

34) P. Stockwell, 위의 책, 45면, 132면.

35) 한국어 여행안내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전경-배경' 순으로 제시된 텍스트가 13%, '배경-전경' 순으로 제시된 텍스트가 87%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서는 텍스트 구성 단위의 뒤쪽에 배치된 대상이 전경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경과 배경은 '독자의 주의'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므로 온전히 언어적인 규약과 원칙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실제 텍스트에서 전경화된 시어와 배경화된 시어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논의들이 시사하는 바는, 시어들 사이에는 독자의 주의가 얼마나 요구되는지에 따라 인식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의미가 부각되는 시어와 약화되는 시어를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동별곡>의 아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에서 의미의 부각과 약화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摩訶衍 妙吉祥 雁門재 너머디여
외나모 뻐근 ᄃᆞ리 **佛頂臺** 올라ᄒᆞ니
千尋 絶壁을 半空애 셰여 두고
銀河水 한 구ᄇᆡ를 촌촌히 버혀 내여
실ᄀᆞ티 플텨 이셔 뵈ᄀᆞ티 거러시니
圖經 열두 구ᄇᆡ 내 보매ᄂᆞᆫ 여러히라
李謫仙 이제 이셔 고텨 議論 ᄒᆞ게 되면
廬山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ᄒᆞ려니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재(雁門)재'와 '불정대(佛頂臺)'는 모두 '~너머디여', '~올라ᄒᆞ니'와 연결되어 공간적인 의미를 지니는 시어들이다. 그런데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비슷한 범주의 시어가 연속적·병렬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불정대'는 단독적으로 동사와 연결되므로,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에 비해 '불정대'가 독자의 주의를 끌

'배경-전경' 어순의 텍스트로는 '남대문로 광교 네거리 북동쪽', '종로 피맛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최지영, 「전경·배경 원리와 구조적 도상성」, 『독어학』 22권, 한국독어학회, 2010, 28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경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후의 시적 진술이 불정대 위에서의 조망과 관련되므로, 위의 단락에서는 '불정대'의 의미가 다른 시어들의 의미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경화 원리에 의한 시어의 부각과 약화를 통해 시어를 구분하는 것은 시의 흐름과 전개를 매끄럽게 읽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시어의 의미를 분류함에 있어서 텍스트의 구조와 시어가 시적 진술에서 담당하는 기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시어의 품사에 따른 시어와 시적 대상의 관계

시어(詩語)의 의미 실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시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어학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의 품사(品詞)이다. 시어 연구에 있어서 품사에 초점을 맞추었던 연구는 대부분 계량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품사별로 사용된 어휘의 빈도를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품사는 분류의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생성과 해석과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36] 시어의 품사는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학 교육과 달리 문학 교육에서는 텍스트가 함축하고 있는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어의 품사가 시적 대상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시적 진술을 보다 드러내 줄 수 있는 품사 범주의 시어를 선택하는 것이 시어의 의미 분류에 앞서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의 품사 중에 체언(體言), 즉 명사(名詞)류를 시어 분석의 핵심 품사로 다루고자 한다. 물론 시의 진술에 있어서 하나의 품사 유형만이 유일하게 의미에 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

36) 김해옥, 「어휘 교육을 위한 의미장 확정을 위한 시론」, 『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 국학자료원, 2005, 151면.

다. 그러나 명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 시적 대상의 의미와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도를 지니며,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명사는 상대적으로 그 자체의 내포와 외연이 중요한 의미적 특성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용언의 경우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과 같은 서술어 논항(論項)의 존재를 통해서만 문맥에서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용언의 경우 문장에서 명사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실현하기 때문에 명사에 의존하는 양상을 띠며, 결국 명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용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어의 체언(體言), 즉 명사(名詞)류는 국어의 모든 품사 중에서 가장 의미적으로 중립적인 품사로 여겨진다. 이때 중립성이란, 명사가 동사·형용사 등 다른 품사들을 포함하는 전체 어휘의 의미적인 특성을 포괄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37]

또한 명사의 의미 영역 분류는 인간이 세계와 지니는 존재론적인 관계의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38] 예를 들어, 민현식은 명사의 의미 영역으로 인간(人間), 사물(事物), 공간(空間), 시간(時間)을 제시한 바 있는데,[39] 이는 '인간'을 인식의 중심에 두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영역을 명사의 의미를 통해 분류한 것이다. 이처럼 명사의

---

37) 예를 들어, "배움이 없이는 앎도 없다."와 "밥을 먹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안다."라는 문장에서 명사 '배움'은 동사 '배우다'를, 명사 '앎'은 동사 '안다'의 의미를 포괄한다. (최경봉,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어휘의 의미 분류」, 『담화와 인지』 5-2, 2001, 281면.)

38) 인간이 대상과 갖는 관계에 따라 의미를 분류한 존재론적 의미 분류는 라이온스(Lyons)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라이온스는 어휘를 의미 영역에 따라 제1실체, 제2실체, 제3실체로 구분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제1실체는 시공간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며, 물리적으로는 삼차원적으로 관찰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는 사람, 동물, 물건을 가리킨다. 제2실체는 사건(events), 과정(process), 상태(states-of-affairs) 등으로, 시공간의 물리적 지점에 위치한다기보다는 일어나거나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3실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명제(propositions)를 의미한다. (J. Lyons,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39) 민현식, 「시간어(時間語)와 공간어(空間語)의 상관성 (1) —품사 하위분류의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어학』 20, 국어학회, 47-71면.

의미 영역 분류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문학 텍스트의 시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명사는 시의 의미 구성과 시 속의 대상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학습자들이 '어렵게 여기는' 어휘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고전시가 읽기에서 학습자들에게 난관으로 여겨지는 생소한 고유명사들과, 2음절 이상의 한자어들은 대부분 명사 어기(語基)로서 기능하는데,[40] 때문에 명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고전 시가 이해 교육에서 시적 진술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요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텍스트인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시어 중에서 명사에 해당하는 시어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여 시어를 의미 영역에 따라 범주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때, 의미 영역에 따른 명사 시어의 분류는 최경봉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최경봉은 라이온스(Lyons)의 연구를 발전시켜 명사의 의미 영역을 물리적인 존재물을 가진 실체(實體)와 비실체적인 양식(樣式)의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실체를 다시 인간과 사물로 하위분류하였다.[4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경봉의 논의를 참고하여 명사 시어의 의미 영역을 물리적 존재물을 가진 '실체'와 그렇지 않은 '추상'으로 양분하여 유형화 하였다.[42]

최경봉(1998)		본고
실체(實體)	⇨	실체(實體)
양식(樣式)		추상(抽象)

또한, 최경봉의 연구에서, 실체 명사는 다시 '인간'과 '사물'이라는 두 하위 범주로 나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과 '사물'의 양분적 범주는 인간이 사물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40) 김영선, 「국어 한자어의 형태 분석과 품사 태그」, 『언어과학』 15, 한국언어과학회, 2008, 38면.
41) 최경봉,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1998.
42) '양식' 대신 '추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양식(樣式)'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특정한 표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다. 예를 들어, 최경봉은 ‘그, 너, 누구, 우리’ 등의 인칭대명사를 ‘인간’을 가리키는 명사로서 분류하고 있는데,[43] 이는 각각의 개별적 어휘 요소들을 분류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맥락에 영향을 받고 의인화(擬人化)된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문학 작품 텍스트의 시어에 있어서는 효용이 적다.

예를 들어, <관동별곡>에는 ‘白鷗(백구)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때 백구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대명사 ‘네’는 어휘 분류상으로는 인칭대명사에 해당하지만 시적인 맥락에 의해 동물인 ‘백구(白鷗)’를 가리키는 표현이 된 사례이다. 이처럼 문학 텍스트에서 인간을 가리키는 말과 사물을 가리키는 말을 대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간’ 또한 동물을 포함하는 ‘사물’의 일종으로 보아 두 범주를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정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인칭대명사뿐만 아니라, 인간을 가리키는 고유명사 또한 모두 사물에 포함된다.

한편, 최경봉의 분류에서 사물은 다시 ‘공간물’과 ‘개체물’로 나뉜다.[44] 이때 공간물은 삼차원적인 범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 비해 개체물은 범위보다는 속성의 차이를 통해 다른 개체물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45] 즉, 그에 따르면 ‘백두산’, ‘한강’, ‘서울’과 같은 어휘의 경우 범위 경계를 통해 구분되는 공간물, ‘나무’, ‘자동차’ 등은 속성으로 구분되는 개체물인 것이다. 그러나 ‘개체’는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전체나 집단에 상대하여 하나하나의 낱개를 이르는 말’인데,[46] 이것이 ‘시어’와 결합하여 ‘개체 명사 시어’가 될 때, ‘개체 명사 시어’와 상대되는 의미인 ‘전체 명사 시어’를 연상케 하여 언어학적 분류 지식이 부재하는 경우 개체의 범주가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경봉의 논의에 따라 실체 명사를 공간물과 개체물로 분류하되, 각

43) 최경봉, 앞의 책, 1998, 86면.
44) 위의 책, 41면.
45) 위의 책, 62면.
46) 국립국어원, 「개체」 2, 『표준국어대사전』, 2018년 7월 19일 수정,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년 4월 22일 접속.

각의 명칭은 ‘공간 명사’, ‘사물 명사’로 수정하였다.

최경봉(1998)			본고	
실체(實體)	개체물(個體物)	⇨	실체(實體)	사물(事物)
	공간물(空間物)			공간(空間)
양식(樣式)			추상(抽象)	

위와 같은 분류의 원리에 따라 고전시가 텍스트에 사용된 명사 시어는 ‘사물 명사 시어’, ‘공간 명사 시어’, ‘추상 명사 시어’로 분류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시적 화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작품 텍스트인 <관동별곡>에 나타난 시어들의 의미 영역을 분류한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47]

(1) 사물 명사 시어

사물 명사 시어는 우선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실체 명사 중에서 범위보다 개체로서의 의미가 두드러져 속성으로서 다른 개체와 구분되는 성질을 지니는 명사 시어를 가리킨다.

이를 기준으로 <관동별곡>의 사물 명사 시어를 분석하면, 우선 인명(人名)이 사물 명사 시어에 해당될 수 있다.

汲長孺 風彩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

구체적 예를 들면, 위의 대목에서 ‘급장유(汲長孺)’는 실존 인물을 가

47)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명사 시어의 분류에 있어서 시어의 의미 영역을 판단하는 해석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시 될 수 있다. <관동별곡>은 부분적인 대화나, 간단한 삽화 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적 화자의 개별적인 주제적인 진술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다. 따라서 <관동별곡>의 명사 시어들의 의미 영역은 텍스트 내의 시적 화자의 1인칭적인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박연호,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P. Hernadi, 김준오 역, 『장르論』-文學分類의 새方法』, 문장, 1983; 조세형, 『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사, 2008, 160-188면 참조.)

리키는 고유명사라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이 있으며, 일정한 속성을 지니고 다른 인물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사물 명사 시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물은 위치할 공간을 전제로 하고, 양(量)이나 높이 등, 일정 정도는 3차원적인 범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물과 공간의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속성을 통한 다른 개체와의 구분을 나타내는 개체성(個體性)이 범위적 의미의 공간성(空間性)보다 우세한 경우 사물 명사로 보았다.[48] 특히 몇몇 사물 명사들의 경우 공간 명사와의 경계에 있어 그 분류에 있어 맥락의 세심한 고려가 요구되었다.

놉흘시고 **望高臺** 외로올샤 **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
千萬劫 디ᄂᆞ도록 구필 줄 모ᄅᆞ는다
어와 너여이고 너 ᄀᆞᄐᆞ니 ᄯᅩ 잇는가

예를 들어, 위의 단락에서 '망고대(望高臺)'와 '혈망봉(穴望峰)'은 일반적으로는 공간 명사로 여겨진다.[49] 그러나 망고대와 혈망봉의 실제 위치와, 시적 화자의 이동 경로, 텍스트 내에서의 진술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50] 시적 화자를 기준으로 하면 '망고대'와 '혈망봉'은 화자가 '진헐대(眞歇臺)'의 위에 올라 멀리서 바라보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진헐대 위에서 내려다 본 경관을 구성하는 사물 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이처럼, 텍스트에 나오는 명사 시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48) 해석에 따라 명사의 의미 영역이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더라도 의미 분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최경봉, 앞의 책, 1998, 71면 참조.) 따라서 본고의 구분이 <관동별곡> 명사 분류의 절대적인 구분은 아님을 밝힌다.

49) 정재호는 금강산 관광의 순서를 만폭동-금강대-진헐대-망고대와 혈망봉-비로봉-화룡소-불정대-해금강 순으로 제시하였다. (정재호, 「관동별곡의 공간」, 『새국어교육』 50, 한국국어교육학회, 1994, 242면.)

50) '망고대'와 '혈망봉'은 지도상으로 화자의 연속적인 이동 경로(정양사-진헐대)로부터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

내적 맥락이나 단편적인 배경 지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詩仙은 어딕 가고 咳唾만 나맛ᄂᆞ니

한편, 위의 구절의 '해타(咳唾)'와 같이 실체 명사와 추상 명사의 구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타'는 본래 '기침과 침'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시선(詩仙)'이라는 시어와 관련되어 이태백(李太白)의 시(詩)를 의미하게 된다. '시'는 추상성을 띠고 있는 명사이지만, 예술 작품들이'시 한 편', '소설 한 편', '그림 한 장' 등으로 숫자를 세는 단위 명사와 함께 쓰이며, 일정한 속성을 지니고 그 속성을 통해 다른 명사들과 구분된다는 점에서[51] 사물 명사 시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외에도 '해운(海雲)'이나 '믈', '믈결', '우레', '무지게', '화풍(和風)' 등 명확한 물리적 경계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감각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식 가능하고 속성을 통해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시어들은 사물 시어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동별곡>의 사물 명사 시어는 전체 명사 시어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52]

(2) 공간 명사 시어

두번째로, 공간 명사 시어는 사물 명사 시어와 마찬가지로 실체 명사 시어에 포함되지만, 공간 명사는 실체 명사 중에서 속성을 통해 다른 개체와 구분되는 명사가 아닌 3차원적인 범위·경계의 의미가 두드러진 경우이다. 이를 기준으로 <관동별곡>의 공간 명사 시어를 분석하면, 우선적으로 화자가 기행 과정에서 실제로 들렀던 '삼일포(三日浦)', '불정대(佛頂臺)', '의상대(義相臺)' 등의 공간이 공간 명사 시어에 속하게 된다.

---

51) 최경봉, 「명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 제4권, 한국어학회, 1996, 22면.

52) 구체적인 목록은 본고의 <부록> 참조.

한편, 화자가 여정 중에 실제로 방문한 공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간 명사의 부류에 속하게 되는 시어들도 존재한다.

東州 밤 계오 새와 北寬亭의 올나ᄒᆞ니
三角山 第一峯이 ᄒᆞ마면 뵈리로다

위의 단락에서 '삼각산(三角山)'은 서울에 위치한 '북한산'을 가리키는 말로, 화자가 이동하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공간 시어이다. 이때의 '삼각산'은 임금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뜻으로 쓰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와 연군 의식을 드러낸다. 이 경우 '삼각산'은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강조된다기보다는 공간과 관련된 문화적인 의미와 작자의 가치관이 부각된 시어이지만, 이러한 속성들은 결국 공간의 영역적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간 명사 시어로 보았다.

魯國 조븐 줄도 우리ᄂᆞᆫ 모ᄅᆞ거든
넙거나 넙은 **天下** 엇찌ᄒᆞ야 젹닷말고

위의 '노국(魯國)'과 '천하(天下)'의 경우에도, 실재하는 공간을 지시하고자 했다기보다는 『맹자(孟子)』의 구절을 인용한 전고(典故)를 통해 유학에서 추구하는 성인(聖人)의 경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국'과 '천하'가 지니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문맥상 '넓고 좁은' 공간적인 범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 관념이 강하게 부각되어 공간적인 의미와 함께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로서 분류하였다.

(3) 추상 명사 시어

마지막으로 추상 명사 시어는 실체 명사 시어인 공간 명사 시어와 사물 명사 시어와 대비되어 3차원 공간에서의 실체를 지니지 않는다. 추상 명사에는 '사건', '상태', '(시공간적)차원'의 의미를 지닌 명사들이 포함된

다.

져근덧 **밤**이 드러 風浪이 定ᄒᆞ거ᄂᆞᆯ
扶桑 咫尺의 明月을 기ᄃᆞ리니

예를 들면, 위에서 '밤'과 같은 경우 시간적인 차원에 해당하는 시어인데, 앞서 물리적 실체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개체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한자 성어(成語)들이 추상 명사에 포함되었다. 성어(成語)는 여러 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말인데, 성어의 경우 글자들의 결합 양상과 어순이 한문의 방식을 따르지만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우리말 명사에 준하여 기능하는 경우에는 명사로 처리하였다.[53]

昭陽江 ᄂᆞ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孤臣去國에 白髮도 하도 할샤

예를 들어, 위의 구절에서 '외로운 신하가 임금의 곁을 떠남'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의미상으로 문장에 준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고신거국(孤臣去國)'의 경우에도 '거국(去國)'이 '고신(孤臣)'과 분리되어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신거국'을 한 단위의 어휘로 보았는데, 이러한 성어에 체언에 붙는 부사격 조사 '-에'가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쓰였

53)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에도 사자성어들을 대부분 명사로 처리하고 있고, 특히, '호형호제(呼兄呼弟)', '학수고대(鶴首苦待)' 등과 같이 한문의 의미상 동사나 형용사로 여겨지고 단독적으로 명사로 쓰이지 않는 사자성어의 경우에도, 명사로도 등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어에 '운동하다', '공부하다' 등에 쓰이는 접사인 '-하다'를 결합하여 따로 동사나 형용사로도 등재하기도 한다. (호취월, 「한국어 사자성어의 존재 양상 및 외국어로서의 그 교육 방안」,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 294면 참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성어(成語)가 한자어 각각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명사적인 의미를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사에 붙는 격조사('이/가', '을/를' , '에' 등)를 붙여 사용하였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 명사로 분류하였다.

으므로 명사로 처리하였다. 또한, 의미상 '떠나는 행위'는 사건(事件)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추상 명사로 분류하였다.

藍輿緩步ᄒᆞ야 山瑛樓의 올나ᄒᆞ니

'남여완보(藍輿緩步)'의 경우에도 '남여완보'가 접사 '-ᄒᆞ'와 연결되고,[54] 분리가 어려운 한 단위로 쓰였으므로 명사 어휘로 보았다. 또한 의미상으로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걷다'라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므로 추상 명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어(成語)들이 추상 명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玲瓏碧溪와 **數聲啼鳥**ᄂᆞᆫ 離別을 怨ᄒᆞᄂᆞᆫ ᄃᆞᆺ

위의 구절에서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의 두 시어는 모두 네 자의 한자로 구성되어 '영롱(玲瓏)[영롱한]'과 '벽(碧)[푸른]'이 '계(溪)'를 수식하고, '수성제(數聲啼)[여러 소리로 우는]'가 '조(鳥)'를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있고, '계(溪)'와 '조(鳥)'가 자립적으로 분리할 수 없어 네 자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고신거국'과 '남여완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성어가 '-와'와 '-ᄂᆞᆫ'이라는 조사와 함께 쓰였다는 점에서 명사로 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앞선 단어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영롱벽계'와 '수성제조'는 그 의미가 사건이나 상태를 뜻하지 않고 실체적인 대상인 '시내'와 '새'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추상 명사가 아닌 사물 명사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긔운', '형용(形容)', '체세(體勢)' 등이 '상태'에 해당되는 추상 명사로 분류되며, '근쳐', 'ᄀᆞᆺ', 'ᄀᆞ' 등이 '차원'에 해당되는 어휘로서 추상 명사로 분류되었다.

이상 위와 같은 의미 영역에 따른 명사의 분류는 시어를 어학적 관점

54) '-ᄒᆞ'는 명사 어근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에 입각하여 세 유형으로 나눈 것으로 시어가 시적인 진술과 관련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앞선 분류에서 '삼일포(三日浦)'와 '노국(魯國)'은 모두 공간 명사 시어로 분류되지만 '삼일포'는 작자의 여정과 관련된 공간, '노국(魯國)'은 작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명사들이 시적 진술에서 동일한 중요도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 영역에 따른 삼분(三分)의 분류는 또다른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이 <관동별곡>의 명사 시어를 분류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텍스트로서 <관동별곡>을 이해하기 위해 시어를 분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시적인 맥락에 따른 시어의 의미의 실현 양상은 보다 깊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명사 시어의 의미 실현 유형

앞서 문체학적인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텍스트 내에서 시어의 의미가 실현되는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가 시어가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휘적인 자질에 의해서만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맥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의적·다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시어의 의미에는 일상적·문자적 의미와 문학적인 의미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음도 살폈다. 또한 시적인 맥락과 텍스트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시어 의미의 현저성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특히 맥락에 따른 시어 의미의 다변 양상을 중심으로 시어가 시 텍스트 속에서 나타날 때의 의미 실현의 유형을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자 한다. 물론, 어법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는 다층적으로 공존하는 만큼 문자적 의미로만 실현되는 시어와 내포적 의미로만 실현되는 시어가 양분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연적 의미나 내포적 의미 중 상대적으로 보다 두드러지는 의미를 기준으로 의미 실현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로써 시어의 의미 중 맥락과 무관한 핵심적(문자적)인 양상이 두드

러질 경우 시어가 '개념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작품 텍스트의 맥락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경우 '문맥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또한 문맥적 의미로 실현된 시어라고 하더라도 의미 스펙트럼 상에서 본래의 문자적인 의미와 다소간 멀어졌을 경우엔 '조정된' 의미로, 가장 먼 스펙트럼 상에 위치하여 문자적 의미와 아주 멀리 떨어져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될 경우 '변이적' 의미라고 일컫기로 한다.[55]

1) 문자적 외연성이 강조되는 개념적 의미

문학 작품 텍스트에 사용된 시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일상적 의미와 완전히 동떨어진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 의미 실현이란, 어떤 단어를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1차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실현 양상을 일컫는다. 따라서 시어의 개념적 의미가 실현되었다는 것은, 어법과 맥락의 교섭에 의한 시어의 중층적인 의미 가운데 언어 외적 맥락이 개입이 적은 일차적인 의미가 강조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관동별곡>의 구절을 예로 들면, "平丘驛(평구역) 말을 ᄀᆞ라 黑水(흑수)로 도라드니"에서 '평구역(平丘驛)'은 양주(楊州)의 동쪽 70리 정도에 위치해있던 역이라는 실제의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로서, '평구역'이 아무 맥락 없이 사용되었을 때 연상시키는 1차적인 의미와 시에서 사용된 시어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이다. "形容(형용)도 그지업고 體勢(체세)도 하도 할샤"에서의 '형용(形容)'과 '체세(體勢)' 또한 각각 본래

55) 의미 실현 유형을 '개념(槪念)', '조정(調整)', '변이(變異)'로 삼분하는 것은 화용론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크루즈는 어휘의 의미를 어휘가 지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로부터 어휘의 내재적 의미로부터 가장 멀어진 은유적 의미까지 어휘의 의미의 변화가 스펙트럼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그에 따르면, 축자적인 의미와 사용에 의해 변화한 의미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부재하는데, 본고의 '개념적인 의미'는 크루즈의 논의에서 어휘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의미, '조정적인 의미'는 어휘의 축자적 의미에서 다소 멀어진 의미, '변이적인 의미'는 어휘의 의미가 어휘의 내재적 의미로부터 가장 멀어진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D. A. Cruise, 임지룡·김동환 역, 『언어의 의미:의미·화용론 개론』, 2002, 213면 참조.)

‘모양’과 ‘모습’ 등을 나타내는 어휘라는 점에서 문자적 의미와 시적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 경우이다.

이처럼 ‘평구역’, ‘형용’, ‘체세’와 같은 시어의 경우 시적인 맥락에 의해 어휘의 의미가 변화한 정도가 적은 축에 속하는 어휘로서, 문자적인 의미가 두드러진 ‘개념적 의미로 실현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2) 내포적 속성이 강조되는 문맥적 의미

(1) 속성과 가치를 부각하는 조정적 의미

앞서 살펴본 개념적 시어와 달리, 어떤 시어들은 시 텍스트에서 문자적인 의미로 실현되지 않아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할 필요하다. 이때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정도에 따라 ‘조정적’ 의미와 ‘변이적’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선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의 조정적 의미가 실현된 예와 변이적 의미가 실현된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관(玄關)’은 사전적으로 ‘건물의 출입문이나 건물에 붙이어 따로 달아낸 문간’으로, ‘문간’이 나타내듯 공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현관이 열렸다.’라는 일상적 문장에서 ‘현관’은 ‘열리다’라는 동사와의 결합을 통해 ‘현관에 위치한 문’, 즉 ‘현관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때 현관의 부분적인 요소인 문의 개념이 문맥에 의해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관’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의미가 변화한 정도가 적기 때문에 ‘조정적’인 의미 실현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을 지난 마당은 하이얀 종이.’와 같은 구에서는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마당’과 ‘하이얀 종이’가 보조사인 ‘-은’과 연결되어 불연속적인 의미의 전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래의 문자적 의미에서 불연속적인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경우로 불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변이적’ 의미 실현으로 일컫기로 한다.

특히, ‘조정적’ 의미 실현이 일어나는 예로는 대표적으로 환유(換喩)를

들 수 있다. 환유는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표현하는” 수사법이므로,[56] 본래의 낱말과 환유적 표현으로 사용된 낱말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법의 차원에서 조정적 의미 실현이 구현된 사례이다.

<관동별곡>에서 ‘조정적 의미’가 실현된 시어의 예로는 ‘江湖(강호)애 病(병)이 깁퍼 竹林(죽림)의 누엇더니’에서의 ‘병(病)’이 있다. 이때의 ‘병’은 ‘강호’와 ‘죽림’이라는 단어와 어울려 자연을 좋아하는 벽(癖), 즉 ‘자연을 즐기고 좋아하는 고질병’을 가리키며, 의학적 개념의 병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때의 ‘병’의 의미는 그러한 병으로 인해 ‘탈이 났다는’ 의미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병’이라는 어휘가 본래 지니고 있는 개념적인 의미를 완전히 버렸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개념적 의미의 연속선 상에서 의미가 ‘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때의 ‘병’은 조정적인 의미 실현이 일어난 시어로서, 당대의 문학적인 사용맥락과 작품 속의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조정적 의미의 가장 큰 특징은 ‘병(病)’의 예와 같이, 기호를 통해서 연상되는 1차적인 의미에서 맥락에 의해 특정한 속성이나 가치가 특별히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맥락에 의해 문자적 의미의 연속선 상에서 변화한 의미가 실현되는 조정적 시어는, 시어에서 일상적인 의미와 문학적인 의미가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질적 대상과의 결합을 통한 변이적 의미

‘변이적(變異的)’ 의미 실현은 시어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어의 개념적인 의미로부터 불연속적으로 멀어져 시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안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변이적 의미가 조정적 의미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56) 국립국어원, 「환유」, 『표준국어대사전』, 2018년 7월 19일 수정,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508665&searchKeywordTo=3, 2021년 4월 22일 접속.

은 문자적·외연적 의미와 연속선 상에 위치하지 않은 이질적 대상과의 결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변이적 의미 실현의 예로는 은유(隱喩)를 들 수 있는데, 은유란 "한 대상의 측면들이 다른 대상으로 이월되거나 혹은 옮겨져서 두 번째 대상이 마치 첫 번째 대상인 것처럼 말해지는 언어 과정의 한 특수한 조합"[57]을 의미한다. 이때 의미의 전이는 은유의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면서도, 그 특질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어느 정도 공유할 때 일어난다.

<관동별곡>의 시어 중 변이적인 의미로 실현된 시어의 예로는 "ᄀᆞᆺ득 노ᄒᆞᆫ 고래 뉘라서 놀래관ᄃᆡ"의 '고래'를 들 수 있다. 이때 '고래'가 가리키는 대상은 문면의 의미처럼 바다에 사는 특정한 동물이 아니며, '파도'를 은유한 시어이다. 이는 이후에 제시되는 "블거니 블거니 ᄲᆞᆷ거니 어즈러이 구ᄂᆞᆫ디고 / 銀山(은산)을 것거 내어 六合(육합)의 ᄂᆞ리ᄂᆞᆫ ᄃᆞᆺ / 五月(오월) 長天(장천)의 白雪(백설)은 므ᄉᆞ 일고"의 구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알 수 있는 정보로서, 이러한 은유가 사용된 것은 시적 화자가 고래의 물을 뿜어내는 생태적 특성과 솟구쳐 오르는 파도에서 유사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고래'와 '파도'의 의미적 불연속성으로 인해 '고래'라는 단독의 어휘로는 '파도'의 의미를 추론할 수 없게 된다. 즉 '변이적' 의미는 시어의 문자적인 의미에 비해 맥락적인 의미가 강력하게 두드러지는 경우로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시어의 의미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小香爐 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또 다른 예로, 위의 구절에서 '소향로'와 '대향로'는 각각이 지칭하는 바가 '향로'와는 연속적인 관계가 없는 '금강산 봉우리들'을 일컫는다. 이는 금강산 봉우리들이 향로처럼 겉이 겹겹이 싸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향로'와 '봉우리'들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불

57) T. Hawkes, 심명호 역, 『은유』, 서울대출판부, 1986, 1면.

연속적인 의미의 확장이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명사 시어 의미 이해를 통한 <관동별곡> 교육의 의의

1) 기행 체험의 복합적 구조 이해

<관동별곡>은 작자 정철(鄭澈)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 지방 곳곳을 유람하며, 그 여정과, 산수의 아름다움, 풍속 등 기행 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낱낱이 언어로 풀어 표현한 문학 작품이다. 즉 <관동별곡>의 핵심적인 시적 체험은 '관동 지방에서의 기행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58] 따라서 학습자들이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도 기행 체험은 작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된다. 그러나 <관동별곡>에 제시된 수많은 지명들과 경물 표현들을 교사가 한 행 한 행을 선적으로 해석해 내는 교수 방식으로는 기행 체험의 이해가 어렵다. 이는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의 진술 양상 자체가 선적인 해독만으로는 전면(全面)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이 단선적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않음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바 있다. 정무룡은 <관동별곡>의 노정의 진술 양상을 '여정을 건조하게 제시하는 진술'과 '감흥을 노래하는 진술'의 두 가지 양상이 교차 진행으로 설명하였으며,[59] 한창훈은 <관동별곡>에서 선적으로 이어지는 음악적인 측면과 장면을 그림처럼 표현하는 회화적인 측면의 이중적 진술 양상이 번갈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60] 또한 기행가사 전반의 진술 특징을 연구한 박영

58) 조세형, 「송강가사의 대화 전개방식」, 『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사, 2008, 74면.
59) 정무룡, 「송강 <관동별곡> 독해의 새 시각 모색」, 『한국시가연구』 23, 한국시가학회, 2007, 211-242면.
60) 한창훈, 앞의 글, 57-80면.

주의 연구에서는 기행가사가 큰 단위로는 '준비-도정-도착-회정'의 과정을, 세부적으로는 '관찰-소회-표백'의 재현과정을 나타내며 두 가지의 층위로 여정의 흐름과 다양한 경물과 풍정에 대한 체험을 하나의 짜임새 있는 언어 구조체로 형상화한다고 하였다.[61] 이와 더불어 <관동별곡>의 다양한 주석서들에서도 <관동별곡>을 큰 단락과 세부 단락으로 나누어 층위를 구분하여 주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2]

이렇게 다양한 진술 방식과 진술 층위를 통해 구성된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어들의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어의 의미는 문학 텍스트의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명사 시어는 작품 안에서 핵심적인 대상이나 의미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품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작품의 작자, 당대의 사회·문화·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며, 비유나 상징 등 문학적인 표현 양식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시어들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텍스트 속에서 구조화되어서 작품이라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독자들에게 제시된다. 이때 모든 시어들이 동일한 중요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구성 방식에 따라 전경화되는 시어와 배경화되는 시어가 구분되게 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미가 부각되는 시어와 그렇지 않은 시어를 구분하고 시어가 시적 진술과 지니는 관련성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마련한다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의 복합적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고전 시가 시어의 다층적 속성 이해

---

61) 박영주, 앞의 글, 219-239면.

62) 김사엽 주해, 앞의 책, 1959; 김성배 외 편저, 『(주해)가사문학전집』, 정연사, 1961; 박성의 주해, 『國文學大系 增補 松江歌辭 <詩歌經典篇>』, 정음사, 1961.

앞서 Ⅱ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문학 텍스트는 일상어의 규약에 제한되면서도, 문학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문학 텍스트 속에서 시어(詩語)는 언어 규약과 문학 양식 사이의 교섭을 통해 일상적인 의미와 다층적인 의미가 공존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고전 시가에서 시어의 의미가 보이는 다층성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고전 문학의 전고(典故)와 용사(用事)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의사소통 원리에 대한 연구[63]나, 고전 시가 어휘의 심층적 의미에 대한 연구[64] 등이 그러한 선행 연구들의 예가 된다.

특히 기행가사의 내용 생성 유형을 표현 주체와 표현 대상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의 양상으로 분류한 염은열의 연구는 '시어'라는 텍스트 구성 요소에 중심을 두지는 않았으나 <관동별곡> 텍스트 속의 시어가 지니는 다층적인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연구 성과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행가사의 내용 생성 유형에는 대상의 물리적 특성에 국한한 인식을 질서화한 '대상에 대한 즉물적 인식의 구조화', 대상의 재현보다 관념 세계의 구상화에 목적을 둔 '대상에 대한 관념적(觀念的) 인식의 구조화'. 대상의 재현이나 대상과 관련된 관념 세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대상을 끌어들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대상에 대한 주정적(主情的) 인식의 투사'의 세 가지 내용 생성 유형이 있는데,[65] 이는 기행가사인 <관동별곡>의 사물이나 공간들이 물리적인 지시체로서의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작자의 가치관이나 관념을 강조하는 등의 다층적인 의미 양상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Ⅱ장에서의 논의한 바와 같이, 시어는 일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특정한 가치적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따라서 고전시가 작품 속 명사 시어가 텍스트의 맥락과 교섭하여 어떤 의

---

63) 조치형, 앞의 글, 173면.
64) 권순정, 앞의 글.
65) 염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미가 두드러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시어의 문자적 의미의 층위와 문학적 의미의 층위를 밝혀내어 고전시가의 시어가 지니는 다층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양식 이해

문학 안에서의 은유를 연구한 휠라이트(E. Wheelwright)는 모든 사물이 사물과 관련된 맥락을 지니고, 인간은 사물이 지니는 맥락 중에서 일부를 부각할 수 있는 관점(perspectives)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글쓰기의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부각된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66] 그에 따르면, 어떤 텍스트이든 어느 정도는 새로운 관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텍스트에 사용된 비유적인 표현은 일상적이고 진부한 대상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평범하고 상투적인 표현에서도 관점은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때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게 되므로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표현하는 창의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67]

<관동별곡>에 나타나는 시공간은 실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작가에 의해서 재해석된 시공간이기도 하다. 이때 <관동별곡>이 실제의 공간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유사성에 근거한 은유의 방식으로 이미지들을 나열하여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에는 관물(觀物)을 인식하는 당대의 자연관과 표현관이 내재되어 있으며,[68] 작자 개인의 창의적인 언어의 구현물이기도 하다. 특히 <관동별곡>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표현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극찬을 받았던 작품으로,[69] <관동별곡>의 텍스트는 표현 언어의 청신성(淸新性)을 보여

---

66) Philp E. Wheelwright, 김태옥 역, 『은유와 실제』, 문학과지성사, 1988, 13면.(최미숙, 「현대시 교육에서 은유의 문제」,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324면에서 재인용.)

67) 최미숙, 위의 글, 2015, 325면.

68) 염은열, 앞의 글, 1999, 379-383면.

69) 김만중(金萬重)은 《서포만필(西浦漫筆)》에서 "송강의 관동별곡과 전후미인가는 우리나라의 이소(離騷)"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만중, 『西浦集·西浦漫

줄 수 있는 고전 문학 텍스트로서, 창의적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관동별곡>의 은유적 표현은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당대의 인식을 담고 있지만, 낯섦과 생소함은 한편으로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소향로(小香爐)', '대향로(大香爐)', '용(龍)의 초리', '북두성(北斗星) 등 <관동별곡>의 비유적 표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어들은 오늘날에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언어이기에 오히려 문학 텍스트의 표현 원리에 대해 더 깊이 고심해볼 수 있는 좋은 교육 자료가 된다. 은유적으로 사용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은유의 기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관동별곡>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 유형을 분류하고 비유적인 언어 표현에 관여하는 시어를 선별하는 것은 문학 작품의 창의적 표현 양식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고전 시가 텍스트를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 창의적 언어 예술인 문학 텍스트로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筆』, 影印 合集, 통문관, 1971, 652~653면.)

Ⅲ. 명사 시어의 유형에 따른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의 명사의 의미 유형이 <관동별곡>의 시적 진술 양상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선, 명사 시어를 기준으로 하여 시어의 의미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의미 영역에 해당되는 시어를 의미 실현 유형을 바탕으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아홉 가지의 유형이 나오게 된다.

의미 영역	실체 명사 시어						추상 명사 시어		
	사물 명사 시어			공간 명사 시어					
의미 실현 유형	개념	조정	변이	개념	조정	변이	개념	조정	변이

[표 1] 의미 영역에 따른 명사 시어의 분류

명사 시어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지니는 의미 인식의 범위에 따라 크게 '실체 명사 시어'와 '추상 명사 시어'로 나뉠 수 있으며, '실체 명사 시어'는 사물로서의 속성이 강조되느냐, 공간적인 범위가 강조되느냐에 따라 '사물 명사 시어'와 '공간 명사 시어'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각 유형의 명사 시어들은 문맥 속에서의 의미 실현 양상에 따라서 '개념적 의미', '조정적 의미', '변이적 의미'의 세 가지 실현 유형을 지니는데, 이를 기반으로 분류하면 총 위의 표와 같은 아홉 가지의 큰 분류 기준이 마련된다.

이때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분류를 <관동별곡>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적 화자의 1인칭적인 진술을 기준으로 하여 <관동별곡>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70] 이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 유형이 <관동별곡>의 가장

70) 명사의 분류에서 '어듸', '거긔' 등의 공간대명사나 '너', '우리' 등의 인칭대명사, '이' 등의 지시대명사 등 대명사는 제외하였다. 대명사의 사용이 문학 작품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아니지만,(장석원, 「김수영 시의 인칭대명사 연구」, 『한국시학연구』 15, 한국시학회, 2006,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기행 체험과 어떤 관련을 지니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었다.

첫째, 사물 명사는 공간의 경관을 구성하는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공간 명사는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의 진술을 선적 '여정'과 정지적 '소회'의 두 가지 층위로 중층적으로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화자의 가치관을 공간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셋째, 추상 명사는 진술의 완급을 조절하거나 사건의 압축적 제시를 통해 독자의 상상적 사고를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71] 구체적인 설명은 텍스트 분석과 함께 아래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1. 사물 명사를 통한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

사물 명사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명사 중에서 공간적인 범위보다 대상의 속성을 통해 다른 대상과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명사로서, 일상어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의미 영역의 명사일 뿐만 아니라 <관동별곡(關東別曲)> 내에서도 계량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물 명사 시어들은 화자의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 혹은 의미 부여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화자의 시야에 들어온 공간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경물로 기능하기도 하며, 실제적인 지시체가 아닌 문화적인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생동감 있는 비유적인 표현을 위한 언어적 도구로도 활용되는 등, 그 양상이 매

207-237면 참조.) 대명사의 경우 문자적 의미가 아닌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상황 등이 의미에 있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리(里)', '듸', 'ᄃᆞᆺ' 등 자립성이 없는 의존명사와 수 표현 을 가리키는 '십(十)', '몃'등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나 '아래', '겻', '속', '이제', '후(後)' 등 추상명사 중 시간이나 공간적 차원을 의미하는 명사들도 제외하였다.

71) 물론 시어 각각이 개별적으로 다채로운 기능과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양상은 전반적인 경향성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 다양하다.

이 절에서는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실체 명사 시어의 다양한 양상을 개념적·조정적·변이적 의미의 세 가지 의미 실현 유형을 기반으로 나누어 살피고, 이러한 사물 명사 시어들이 기행 체험의 진술 양상과 어떤 관련을 지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개념적 사물 명사를 통한 공간의 주관적 조경

먼저, 개념적 사물 명사 시어들은 사물을 나타내는 시어 중에서 사물의 문자적·1차적 의미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즉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에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적인 경물들을 지시하는 시어들이 이 유형의 시어에 해당된다. 이러한 개념적 사물 명사 시어는 전체 사물 명사 시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개념적 사물 명사 시어의 예로는 '봉(峰)', '외나모', '믈결', '모래', '백설', '송근(松根)' 등이 있다.[72]

한편, 경물의 묘사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더라도, 화자의 주의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화자의 주의의 정도가 낮은 개념적 사물 시어와 화자의 주의의 정도가 높은 개념적 사물 시어를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의 주의의 정도가 낮은 사물 시어들은 후경(後景)으로서, 독자들에게 눈에 띄는 시어가 아니지만 생동적인 경관을 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화자의 주의의 정도가 높은 사물 시어들은 전경(前景)으로서, 화자가 기행 체험을 진행하면서 인상적이었던 대상을 강조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 사실적 경관의 묘사

개념적 사물 시어의 가장 큰 특징은 1차적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물'을 지시하므로, 본질적으로 구체성과 사실성을 지니고 있다

72) 자세한 분류의 예는 본고의 <부록> 참조.

는 것이다. 독자들은 <관동별곡>의 개념적 사물 명사들을 통해서 <관동별곡>에 진술된 관동(關東) 지방의 모습이 허구적 환상이 아니라 화자가 실제로 경험한 체험이며,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 진술로 이루어져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73] 즉 개념적 사물 시어들은 <관동별곡>의 사실성을 담보하는 텍스트 내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058~059][74] 摩訶衍 妙吉祥 雁門재 너머디여 / **외나모** 뻐근 **ᄃᆞ리** 佛頂臺 올라ᄒᆞ니

예를 들어, '불정대(佛頂臺)'에 오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58~59행의 서술을 보면, '외나모'나 '(뻐든) ᄃᆞ리'와 같은 사물 시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외나모'와 'ᄃᆞ리'와 같은 사물들은 관념적인 승경을 형상화하기 위한 시어가 아니라, 대상을 즉물적으로 인식하고, 화자의 체험에 실제성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사물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어들은 화자가 이동하며 불정대(佛頂臺) 오르는 과정 중에 맞닥뜨리는 사물들로, 체험의 진술에서 현저성(prominence)을 지니고 부각되는 전경적인 시어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배경적인 부분을 구체성으로 채우며 사실적인 경관의 묘사를 돕는다.[75]

[095~097] 十里 氷紈을 다리고 고텨 다려 / **長松** 울흔 소개 슬ᄏᆞ장 펴뎌시니 /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ᄅᆞᆯ 헤리로다

95~97행에서도 배경적으로 기능하는 개념적인 사물 시어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위의 단락에서 중심이 되는 경관은 경포(鏡浦) 호수로서, '장송'이나 '물결', '모래'는 경포 호수의 승경을 묘사하기 위한 보조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송(長松)'은 호수 주변의 식생을 나타냄

73) 김대행, 「송강가사와 문학교육」, 『고시가 연구』 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572면.
74) 서술의 편의를 위해 행 번호를 기재하였다.
75) 시적 진술에서 '전경(前景)'의 특징 중 하나는 텍스트의 나머지 요소가 전경을 중심으로 조직된다는 것이다.(P. Stockwell, 앞의 책, 37면.)

으로써 호수 주변이 높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 싸여 있는 광경을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게 하며, ‘믈결’이나 ‘모래’의 경우는 호수 표면의 잔잔한 정도와 호수의 맑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배경적으로 사용된 개념적 사물 시어들은 독자의 주의가 이끌어지는 중심 시어들은 아니지만, 시적인 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시 속에 형상화된 작자의 기행 체험이 실제의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관심 대상의 초점적 제시

앞서 생동적인 경관의 묘사를 위해 사용된 사물 시어들이 배경적인 시어로서 기능하며 주관적으로 조경된 기행 공간을 사실적이고 생동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면, 시적 화자의 시선에서 서술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는 대상을 초점화하여 부각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적 사물 시어들도 있다. 이러한 초점화된 개념적 사물 시어들은 앞서 배경적으로 사용되어 체험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확보한 개념적 사물 시어들과는 달리, 작자가 체험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대상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어들의 특징은 시적인 진술이 해당되는 시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특정한 사물이 시적 진술에서 부각되며 형상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038~045] 開心臺 고텨 올나 衆香城 ᄇᆞ라보며 / **萬二千峰**을 歷歷히 혀여ᄒᆞ니 / 峰마다 밋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 묽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묽디 마나 / 더 긔운 흐텨내야 人傑을 ᄆᆞᆫ들고쟈 / 形容도 그지업고 體勢도 하도 할샤 / 天地 삼기실 제 自然이 되연마ᄂᆞᆫ /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情도 有情홀샤

38행부터 45행까지의 구절은 ‘개심대(開心臺)’ 상에서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단락이다. 40행부터 후술되는 ‘峰(봉)마다 밋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묽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묽디 마나', '뎌 긔운 흐텨내야 人傑(인걸)을 문돌고쟈', '形容(형용)도 그지업고 體勢(체세)도 하도 할샤', '天地(천지) 삼기실 제 自然(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有情(유정)도 有情(유정)홀샤'의 6구절이 모두 금강산의 '만이천봉(萬二千峰)'의 다양한 형상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한 시적 진술이라는 점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개심대 위에서 바라본 대상 중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만이천봉(萬二千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이천봉'은 주변의 다른 대상들보다 상대적으로 현저성을 띠는 초점화된 사물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초점화된 대상의 경우, 화자가 독자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대상으로서, 시적인 내용을 조직하는 구심적 장치로써 활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초점화된 대상은 결국 작자의 평가와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며, 1차적인 의미로 사용된 개념적인 사물 시어임에도 화자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선택되고 조경된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시어로서 기능한다.

[052~057] 圓通골 ᄀᆞ는길로 獅子峰을 ᄎᆞ자가니 / 그 알픠 너러바회 化龍쇠[76] 되여셰라 / 千年 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셔 / 晝夜의 흘녀 내여 滄海예 니어시니 / 風雲을 언제 어더 三日雨를 디련는다 / 陰崖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ᄉᆞ라

52~57행의 경우도 화자에 의해 조경된 경관이 '化龍(화룡)쇠'라는 초점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조직됨을 확인할 수 있는 단락이다. 화자는 '화룡쇠'라는 연못의 이름으로부터 용(龍)을 연상하고, 용의 형상과 물의 굽이치는 모습을 관련짓는다. 또한 여기에서 연상을 그치지 않고 용의 승천과 관련된 전설, 즉 '삼일우(三日雨)'를 떠올리고 화룡소에서의 체험을 '비를 내려 그늘에 시든 풀을 살려 내고자 한다는' 선정(善政)에의 포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끝을 맺는다. 이 단락에서는 '사자봉(獅子峰)'으로의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52행을 제외하고는 '화룡쇠'라는 대상을 중심

76) 성주본과 관서본에서는 '火龍쇠'로 표기되어 있다.

으로 진술이 초점화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화룡쇠'가 작자의 체험을 시적 진술로 형상화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9~124] 져근덧 밤이 드러 風浪이 定ᄒᆞ거ᄂᆞᆯ / 扶桑 咫尺의 **明月**을 기ᄃᆞ리니 / 瑞光千丈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 珠簾을 고텨 것고 玉階ᄅᆞᆯ 다시 쓸며 / 啓明星 ᄃᆞᆺ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蓮花 ᄒᆞᆫ 가지ᄅᆞᆯ 뉘라셔 보내신고

119~124행은 <관동별곡>의 후반부에서 화자가 해변에서 밤의 풍경을 노래하는 단락인데, '명월'이 돋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명월'이 나타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월'의 아름다움과 그를 느끼는 화자의 감흥이 순서대로 노래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즉 이 단락에서는 '명월(明月)'이 단락 전체를 관통하는 초점화된 사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초점화된 사물 시어는 단순히 화자의 주요 관심 사물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기행가사의 특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각각의 체험들에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77] 따라서 각 단락에서 어떤 개념적 사물 시어가 초점화되고 부각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단순히 해당 시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학습자들이 <관동별곡>의 시상 전개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점화된 개념적 사물 시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조정적 사물 명사를 통한 대상의 의미 부각

조정적 사물 명사 시어의 경우 사물이 지니고 있는 1차적인 의미, 즉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체로서의 의미보다 사물의 속성 중 일부가 강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시어들이다. 이러한 속성들은 사물이 본

77) 박영주는 기행가사의 진술 특성으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체험들이 유기적인 연관 관계를 지니고 않고 독립적·개별적으로 나열되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박영주, 앞의 글, 2015, 223면.)

질적·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질적인 속성이나 작자의 시점에서 바라본 사물의 가치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 내에서 쌓아온 관습적인 상징성일 수도 있다.

조정된 사물 명사 시어들의 경우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내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가 사용된 시적인 맥락을 함께 파악해야 하며, 특히 관습적인 의미로 사용된 시어들일 경우에는 문면의 의미만으로는 추정하기 힘든 넓은 의미 지평을 지니고 있는 시어들이 있어 문맥에서 가장 부각되어 실현되는 시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동별곡>의 조정적 사물 시어들이 <관동별곡>에 나타난 핵심 체험인 기행 체험의 진술과 연관되는 양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사물의 가치와 속성의 부각

<관동별곡>에서 조정적인 의미로 쓰인 사물 명사 시어들은 먼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나 속성을 부각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래와 같은 묘사적 표현에서 조정적인 사물 시어는 대상의 물질적인 형상성을 강조한다.

> [019~021] 百川洞 겨틔 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 **銀**ᄀᆞ튼 무지게 **玉**ᄀᆞ튼 龍의 초리 / 섯돌며 **쏨**는 소릐 十里의 ᄌᆞ자시니 /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위의 구절에서 '은(銀)'과 '옥(玉)'의 경우, 개념적으로 사용된 사물들과 달리 화자가 기행 체험에서 마주한 실제의 경물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대신 이 시어들은 'ᄀᆞ튼'이라는 용언과 결합하여 '무지게'와 '용(龍)의 초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은(銀)'의 일차적인 의미는 금속의 일종이고, '옥(玉)'은 광물의 일종이다. 그러나 시적인 맥락을 통해 '무지게'와 '龍의 초리'가 가리키는 원관

넘이 쏟아지는 폭포(瀑布)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단락에서 '은'은 '은'이 지니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서 '반짝거리는 흰 빛깔'이라는 색채적인 속성이. '옥'의 경우, '매끄러운 질감과 흰 빛깔'이라는 시각적인 속성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위의 단락에서 '은'과 '옥'은 맥락에 의해서 '은'과 '옥'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폭포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들이 강조되어 사용된 시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물이 지니고 있는 특정한 가치나 속성이 맥락에 의해 부각되는 경우는 아래의 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030~032] 어와 造化翁이 헌ᄉᆞ토 헌ᄉᆞ홀샤 / 놀거든 쒸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 **芙蓉**을 고잣ᄂᆞᆫ ᄃᆞᆺ **白玉**을 믓것ᄂᆞᆫ ᄃᆞᆺ
[060~063] 千尋絶壁을 半空애 셰여 두고 / 銀河水 한 구ᄇᆡ를 촌촌히 버혀 내여 / **실**ᄀᆞ티 플텨 이셔 **뵈**ᄀᆞ티 거러시니 / 圖經 열두 구ᄇᆡ 내 보매ᄂᆞᆫ 여러히라

마찬가지로, 30~32행의 '부용(芙蓉)', '백옥(白玉)'과 60~63행의 '실', '뵈'의 경우에도 각각 직유적 수사법을 형성하는 'ᄃᆞᆺ'과 'ᄀᆞ티'와 연결되어 함께 쓰이면서, 각 시어들이 지니고 있었던 속성 가운데 형상적인 속성들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각각의 시어에서 강조되는 속성은 문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부용'과 '백옥'은 맥락상 진헐대 위에서 바라본 화강암 봉우리의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한 시어로서,[78]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의 백옥과 같은 흰 색채와 연꽃의 꽃잎과 같이 높이 솟아 둘러싼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60~63행의 '실'과 '뵈'는 물줄기가 실처럼 쏟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베와 같이 구부러진 모습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물이 지니는 가치와 속성은 사물이 본질적인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자가 부여한 성질일 수도 있다.

---

78)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11면.

[027~037] 小香爐 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 正陽寺 眞歇臺 고텨 올나 안즌마리 / 廬山 眞面目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 어와 造化翁이 헌ᄉᆞ토 헌ᄉᆞ홀샤 / 놀거든 쒸디 마나 셧거든 솟디 마나 / 芙蓉을 고잣ᄂᆞᆫ ᄃᆞᆺ 白玉을 믓것ᄂᆞᆫ ᄃᆞᆺ / 東溟을 박ᄎᆞᄂᆞᆫ ᄃᆞᆺ 北極을 괴왓ᄂᆞᆫ ᄃᆞᆺ / 놉흘시고 望高臺 외로올샤 穴望峰이 / 하ᄂᆞᆯ의 추미러 므ᄉᆞ 일을 ᄉᆞ로리라 / 千萬劫 디ᄂᆞ도록 구필 줄 모ᄅᆞᄂᆞᆫ다 / 어와 너여이고 너 ᄀᆞᄐᆞ니 또 잇ᄂᆞᆫ가

위의 단락에서 화자는 진헐대(眞歇臺) 위에 올라 '망고대(望高臺)'와 '혈망봉(穴望峰)'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 두 사물의 '높고(놉흘시고)', '외롭고(외로올샤)', '하늘로 솟아 있으며(하ᄂᆞᆯ의 추미러)', '굽히지 않는(구필 줄 모ᄅᆞᄂᆞᆫ다)'는 속성에 집중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특히 '혈망봉'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금강산의 기행 코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유명으로[79], 위에서의 '망고대'와 '혈망봉'의 속성은 관습적으로 주어진 그대로라기보다는 작자가 사물을 보고 느낀 감흥을 나타낸 재해석된 속성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위에서의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조정적 사물 명사들의 경우, 시어에서 사물의 내재적 특성이 강조되는 경우든 작가가 부여한 특정한 속성이 강조되는 경우든, 사물의 전체적인 형상이나 지시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사물의 가치와 속성이 작자의 의도에 의해 선택되어 작자의 세계관과 가치에 부합되는 공간을 조경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물의 문화적 상징성의 부각

한편, 사물의 물질적인 속성의 일부가 부각되는 경우와 달리 사물의 문화적인 상징성이 부각되는 경우에는 텍스트의 맥락보다도 배경지식, 사회적인 관습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

79) 정재호는 육당 최남선의 『금강예찬(金剛禮讚)』의 금강산 기행 코스에 진헐대, 혈망봉, 사자암 등의 명칭이 부재함을 근거로 들어 정철의 <관동별곡>이 정철 개인의 진솔한 감흥을 노래한 가사라고 하였다. (정재호, 앞의 글, 250면.)

[010~013] 東州 밤 계오 새와 北寬亭의 올나ᄒᆞ니 / 三角山 第一峯이 ᄒᆞ마면 뵈리로다 / **弓王 大闕** 터희 烏鵲이 지지괴니 / 千古興亡을 아ᄂᆞᆫ다 몰ᄋᆞᄂᆞᆫ다

10행의 '동주(東州)'는 강원도 철원의 옛 지명인데,[80] 화자는 동주의 북관정(北寬亭)에 올라 '삼각산(三角山)'으로 표상되는 연군 의식을 집약적으로 보인 다음 '궁왕 대궐 터'에 진술을 집중하고 있다.

화자는 궁예가 도읍지를 세웠던 곳이 화자가 있는 철원의 풍천원(楓川原)이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한때 사치와 영화를 누리며 번영했던 도읍이 나라가 멸망하고 자취만 남은 눈 앞의 장면을 통해 '천고흥망(千古興亡)', 즉 역사 속 나라의 성쇠와 그에 기인한 무상함을 떠올린다.[81] 이때 이 맥락에서 사용된 '궁왕(弓王)'은 후고구려의 왕이었던 '궁예'라는 인물 그 지시체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철원에 도읍을 정하였던 망한 나라의 군주(君主)'라는 궁예의 특정한 속성이 강조된 시어이다. 이러한 의미는 '궁왕(弓王)'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널리 통용되고 작자와 비슷한 지적 교양을 지닌 사람들을 대상 독자로 하던 창작 당대에는 자동적으로 해석되는 의미였을 것이나, 관련된 배경 지식이 부재한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는 텍스트 읽기에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난해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014~015] 淮陽 녜 일홈이 마초아 ᄀᆞ톨시고 / **汲長孺** 風彩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

곧이어 이어지는 14~15행에서는 회양(淮陽)과 관련하여 '급장유'의 고사가 인용된다. '급장유'는 중국의 회양(淮陽)에서 태수를 지냈던 인물로서, 화자는 '회양'의 이름이 중국의 회양과 같다는 것을 떠올리며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볼 수 없겠는가'라고 읊조리고 있다. '급장유'라는 인물의

80)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71면.
81) 정무룡, 앞의 글, 223면.

속성으로는 '한무제(漢武帝) 때의 인물이었다는 것, 부친(父親)이 태자세마(太子洗馬)를 지내어 무제 초기에 알자(謁者) 벼슬을 지냈다는 것', '흉노와 화친을 주장하였다는 것' 등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내포적 속성이 이 구절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관동별곡>의 창작 당시, 정철은 자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상황을 급장유가 임금의 눈 밖에 나 회양 태수로 부임한 것과 같이 임금으로부터 버려지는 일로 여겼다.[82] 급장유는 좌천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음에도 그 지역에서 선정(善政)을 베풀어 존경을 받았는데, <관동별곡>에서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보고자 한다'는 것은 작자 자신 또한 좌천에 가까운 상황에 처했지만 맡은 직무를 다해 백성들에게 목민관으로서의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와 직무 정신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맥락에서 '급장유'의 의미는 '좌천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베풀어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는 내포적인 속성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정적인 의미는 시적 전개 양상과도 관련지어 살필 수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급장유(汲長孺)'는 회양(淮陽)이라는 지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회양'은 실제로 작자가 거쳐 지나간 공간임에도 금강산 유람 체험과는 거리가 있는 지명으로 여겨진다.[83] 이는 위의 단락에서 작자가 '회양'을 거쳐 부임지로 이동함에도 '회양'의 경치나 풍광과 관련된 서술은 배제된 채로 '급장유(汲長孺)'라는 문화적인 상징만을 차용한 서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정적 사물 시어의 의미를 읽어내는 것은 시의 흐름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82) <관동별곡>은 정철이 1579년 사헌부로부터 "사당(邪黨)"이라는 비방을 받고 조정을 떠나 창평으로 돌아간 후 출사하지 않다가 이듬해 1월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된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영, 「고전시가에 나타난 에토스의 설득력과 오늘날의 글쓰기-<관동별곡>에 구축된 에토스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26, 한국작문학회, 2015, 266면.)

83) 정재호·장정수에서는 해당되는 단락을 '동주와 회양'으로 구분 지으며 '내금강 유람'과는 행보와는 별개의 서술로 취급하였다.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98면.)

[084~092] 梨花는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 洛山 東畔으로 義相臺예 올라 안자 / 日出을 보리라 밤 듕만 니러ᄒᆞ니 / 祥雲이 집피는 동 六龍이 바퇴는 동 / 바다히 써날 제는 萬國이 일위더니 / 天中의 티쓰니 毫髮을 헤리로다 / 아마도 녈**구름** 근처의 머믈셰라 / **詩仙**은 어딕 가고 咳唾만 나맛ᄂᆞ니 / 天地間 壯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홀셔이고

위의 단락에서 '시선(詩仙)' 또한 당대의 관습에서 시선으로 여겨졌던 시인인 '이백(李白)'을 칭한다는 점에서 조정적 사물 시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아마도 녈구름 근처의 머믈셰라'가 이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나타난 뜻을 변화시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84] <등금릉봉황대>는 이백이 당나라 조정의 간신들이 황제 현종(玄宗)의 총명을 가린다는 의미를 담은 시로서, "이 모두 뜬구름이 능히 햇빛을 가린 탓이니(總爲浮雲能蔽日)"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85] 이백의 이 구절은 화자가 앞서 형상화한 '일출(日出)'의 장관과 관련되어 '구름'이 담고 있는 연군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위의 단락을 읽게 된다면, 화자가 갑자기 '일출'과 '구름'에서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응집적이고 전체적인 텍스트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적인 맥락과 핵심적으로 연결되는 전고(典故)적 지식의 이해를 통해 '구름'이 '총명을 가린다'는 내포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후 진술되는 '시선(詩仙)'과 관련된 시적 진술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073~074] 바다흘 겻틔 두고 海棠花로 드러가니 / **白鷗**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는

74행의 '백구(白鷗)'와 같은 경우 '백구'가 지니고 있는 '흰 갈매기'라는

84) 윤인현, 「송강(松江)의 <성산별곡(星山別曲)>과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환골탈태(換骨奪胎)」, 『어문연구』 3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69-170면.
85) 위의 글, 170면.

지시체로서의 의미만으로는 행의 의미를 읽어내기 힘든 경우이다. 이때의 '백구'는 고전 문학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기심(機心) 없음'의 문화적인 상징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우선적으로 이해되어야 '백구'를 벗으로 여기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관습적인 상징들 외에도 <관동별곡(關東別曲)>에는 '취선(醉仙)', '백옥루(白玉樓)', '사선(四仙)', '선사(仙槎)', '학(鶴)', '황정경(黃庭經)', '유하주(流霞酒)'와 같이 신선의 세계를 연상하게 하는 공통적인 문화적인 모티프를 지닌 시어들도 다수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86] 이러한 시어들은 당대인들에게 부가적인 설명 없이 시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심상을 떠올리게 하고 환상적인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는 그러한 기능이 구현되지 못하는 시어들이다. 위와 같이 동일한 모티프를 지닌 시어들의 경우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시어를 통해 시적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상징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조정적 시어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된다.

이렇듯 <관동별곡>에는 사물 시어들이 공간의 구체성과 사실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 시어를 통한 표현 방식들이 나타난다. 당대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사물 시어들이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표현의 방식이었지만, 당대의 의미 자장에서 멀어진 현대인들에게는 의식적인 해석이 필요한 단어라는 점에서 이 시어들은 작품의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 난관이 되는 한편 고전 시가의 미학적인 수사법과 문학적 재미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적인 사물 시어들의 경우에는 시어의 축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의 피로감을 높이는 과도한 정보를 제시하는 대신 시적인 맥락에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속성을 선별하여 교육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86) 성호경, 「<관동별곡(關東別曲)>의 형상화와 정철의 신선의식>,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a, 71-106면.

3) 변이적 사물 명사를 통한 표현의 청신성 획득

변이적 사물 명사 시어란, 앞서 다루었던 개념적 사물 명사 시어나 조정적인 사물 명사 시어와 달리 사물의 개념적인 의미가 거의 강조되지 않는 시어로서, 맥락의 작용으로 인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에서 불연속적으로 멀리 떨어진 의미를 갖게 된 시어라고 할 수 있다.

[019~022] 百川洞 겨ᄐᆡ 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 銀ᄀᆞ튼 **무지게** 玉ᄀᆞ튼 **龍**의 **초리** / 섯돌며 ᄲᅮᆷᄂᆞᆫ 소ᄅᆡ 十里의 ᄌᆞ자시니 / 들을 제ᄂᆞᆫ 우레러니 보니ᄂᆞᆫ 눈이로다

위의 단락에서는 화자는 '백천동(百川洞)'을 '겨ᄐᆡ 두고'라는 서술어와 함께 제시하여 '만폭동(萬瀑洞)'이라는 초점화된 공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만폭동'에서의 경관은 하나의 단락으로 삼아 만폭동에서의 정지적 풍경과 그를 감상한 술회를 표현하고 있다. 이때 '무지게'와 '용'은 맥락상 폭포를 가리키므로, 각각 문자가 가리키는 개념적인 의미와, 그것이 텍스트 내에서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이질적인 시어들인데, 모두 폭포의 형상이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 의미 해석의 고리를 찾을 수 있다.

[113~118] 天根을 못내 보와 望洋亭의 올은말이 / 바다 밧근 하ᄂᆞᆯ이니 하ᄂᆞᆯ 밧근 므서신고 / ᄀᆞᆺ득 노ᄒᆞᆫ **고래** 뉘라셔 놀내관ᄃᆡ / 블거니 ᄲᅮᆷ거니 어즈러이 구ᄂᆞᆫ디고 / 銀山을 것거 내어 六合의 ᄂᆞ리ᄂᆞᆫ ᄃᆞᆺ / 五月 長天의 白雪은 므ᄉᆞ 일고

한편, 113~118행에서의 '고래' 는 고래의 거대한 크기와 역동적인 움직임의 이미지를 은유를 통해 빌려와 파도의 형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은유이다. 이때의 '고래' 또한 문자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지시체인 '파도'로 의미가 전이되었으므로 변이적인 사물 시어에 속한다.

[136~137] **北斗星** 기우려 **滄海水** 부어 내여 / 저 먹고 날 머겨놀 서너 잔 거후로니

위의 두 136~137행은 꿈속에서 신선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는 장면을 표현한 것인데, '북두성(北斗星)'은 '술잔'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고, '창해수(滄海水)'는 '술'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때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일곱 개의 별을 선으로 이은 모양이 액체를 떠서 담을 수 있는 국자의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북두성'과 '술잔' 사이에는 형태적인 유사성을 통한 은유가 발생하였으며, '북두성'과 '창해수'가 공간적인 범위가 아닌 화자의 술잔에 담긴 술을 가리키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이적 사물 명사 시어로 볼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변이적 사물 명사들의 예시를 통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관동별곡>의 표현의 묘(妙)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적 형상화 방식이 변이적인 사물 명사, 즉 은유적인 표현에 기대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87] 변이적인 사물 시어들은 사물을 보다 참신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물과 유사성을 지닌 다른 대상의 속성을 끌어와 의미를 전이시킴으로써 다양한 표현적 효과를 취한다.

예를 들어, <관동별곡>에서는 몰아치는 파도를 물을 뿜어내는 고래로 표현함으로써 '파도'라는 어휘가 본래 지니고 있는 내재적 자질인 [-생물성]을 '고래'라는 은유를 통해 [+생물성] 자질을 취함으로써 무생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상의 한계를 은유를 통해 극복하고 보다 역동적인 표현으로 창조해 내었다.[88] 또한 '북두성(北斗星)'과 '창해수(滄海水)'의 은유에서는 '북두성'과 '창해수'의 성질인 광대한 공간적 영역을 자신의 술잔과 술로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의 풍모(風貌)가 인간으로서의 자질보다는 신선에 가깝다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즉, 변이적 사물 명사는 작자가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보다 다채로운 언어의 사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노력을 보여주며, 문자적인 의미에서

87) 염은열, 앞의 글, 1999, 379-383면.
88) H.G. Widdowson, 앞의 책, 56-66면 참조.

멀어진 이질적인 대상의 의미를 취하여 작자가 달성하고자 하였던 표현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점이 된다. 또한, <관동별곡>에서 은유에 기반한 청신한 경관의 묘사들은 대부분 변이적 사물 명사 시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변이적 사물 명사 시어들은 <관동별곡>의 언어적 표현 양식의 빼어남을 느끼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의 사물 명사 시어를 의미 실현 양상에 따라 나눈 실례(實例)들을 통해서 '사물'이라는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해 있는 시어라고 할지라도, 기행 체험의 시적 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보였다. 개념적인 사물 시어는 화자가 목격한 실제의 경관의 지시체를 가리키는 한편, 시적인 진술에서 보다 부각되어 내용의 조직에 구심점이 되는 시어와 배경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시어들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조정적 사물 시어는 사물의 가치나 속성을 강조하거나 문화적인 상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변이적 사물 시어들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창조적인 묘사와 언어 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공간 명사를 통한 여정 서술과 가치관 표현

<관동별곡(關東別曲)>은 장르적인 분류에서 기행가사에 속하는 만큼, 기행 공간이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형상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89] 또한, 시어의 의미 영역에 따른 계량 결과를 살펴보아도 공간과 관련된 명사 시어가 일반적인 텍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동별곡(關東別曲)>의 공간 명사 시어는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의 형상화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명사 시어의 첫 번째 의미 실현 유형인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

89) 조영란, 「금강산 기행가사의 회화적 시선과 형상」, 강릉원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강경하, 「한·일 기행문학의 비교 연구-<관동별곡>과 <오쿠노호소미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등.

란, 공간을 가리키는 명사 시어 가운데 작품의 맥락에 의해서 변화된 의미보다 문맥과 관련이 적은 해당 어휘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1차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시어를 가리키며, 공간의 지리적 위치와 공간성이 강조되는 명사 시어이다.

둘째로, '조정적 공간 명사 시어'란, 공간의 영역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공간의 사실성이나 실제성보다는 공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사용된 명사 시어이다.

마지막으로 '변이적 공간 명사 시어'란, 어휘가 지니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크게 멀어져 이질적인 공간을 지시하게 된 시어들이다.

각 의미 유형의 공간 명사가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과 관련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개념적 공간 명사를 통한 여정의 중층적 제시

사물 명사 시어들과 마찬가지로 <관동별곡(關東別曲)>의 공간 명사 시어들도 먼저 공간의 실제 장소 지시하는 개념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추출해볼 수 있다. 개념적 시어의 경우 공간이 가리키는 실제의 삼차원적인 범위의 의미가 작품 텍스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우로서, 이러한 유형의 시어들은 공간의 가치나 속성보다 영역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들은 작자의 기행 공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개념적 공간 명사의 분석은 <관동별곡> 기행 체험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개념적 공간 명사들은 전체 공간 명사 시어들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동별곡>에서 개념적인 공간 명사 시어들은 대부분이 한자어에 해당되며, 특히 "진헐대(眞歇臺)", "불정대(佛頂臺)"와 같이 고유명사로 된 시어들이 많아, 명사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소(意味素)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시어가 가리키는 실제의 위치가 어디인지 어휘를 통해서는 전혀 유추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습자들

이 <관동별곡>을 독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시어들이다.

개념적 공간 명사는 전체 공간 명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만큼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 진술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와 그렇지 않은 시어를 변별하여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초점적 공간을 통한 소회의 제시

<관동별곡>에서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특성은, 개념적 공간 명사들이 독자의 주의를 특정한 공간으로 초점화하여, 확장적인 문체로 이루어진 길이가 긴 작품 텍스트 가운데서도 어떤 공간에 대한 진술이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진술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한다는 것이다.

<관동별곡>의 첫 단락에는 송강 정철이 자연에 묻혀 처사(處士)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가 임금으로부터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 받고 한양에 올라와 임지에 부임하기까지의 과정이 간결하고도 요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 [001~007] 江湖애 病이 깁퍼 竹林의 누엇더니 / **關東** 八百里에 方面을 맛디시니 /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ᄒᆞ다 / **延秋門** 드리ᄃᆞ라 **慶會** 南門 ᄇᆞ라보며 / 下直고 믈너나니 玉節이 알핀 셧다 / **平丘驛** 말을 ᄀᆞ라 **黑水**로 도라드니 / **蟾江**은 어듸메오 **雉岳**이 여긔로다

한데 이 단락에서는 각각의 개념적 공간 명사들이 가리키는 공간의 범위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사에 나타난 '관동(關東)'은 정철이 부임하게 된 강원도 지방의 범위를 나타내는 시어로서, 뒤 이은 '팔백리(八百里)'와 결합하여 아주 넓은 공간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이때의 800리는 "강원도 제일 북쪽에 위치한 흡곡(歙谷) 관아로부터 가장 남쪽에 위치한 평해(平海) 사이의 830리"[90]를 의미하며, 이후의 노정의 모든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차원의 공간이다. 즉 '관

동'은 화자가 본래 위치해 있던 '죽림(竹林)'과는 대별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이후의 시적 진술이 일어나는 공간을 미리 초점화하여 틀로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후의 부임 과정을 그린 부분은 '관동(關東)'이 넓은 틀에서 작자의 체험 공간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국소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세부 공간을 연달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부임의 과정을 그린 '연추문(延秋門) 드리다라~'부터 '~치악(雉岳)이 여긔로다'까지의 구절들은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서술어들과 결합되어 공간을 엮어 가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연추문(延秋門)→경회(慶會南門)→평구역(平丘驛)→흑수(黑水)→섬강(蟾江)→치악(雉岳)'으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이 '드리ᄃᆞ라, ᄇᆞ라보며, 물을 ᄀᆞ라, 도라드니, 어듸메오, 여긔로다'라는 서술적인 시어들과 연결되는데, 이 시어들은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100여 km의 거리를 몇 단어로 축약하여 제시한 것으로서, 공간에 대한 감회나 세부적인 설명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화자의 경유 지점이라는 속성만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관동'이 800여 리를 포함하는 넓은 면(面)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이었던 것과 달리, '연추문, 경회남문, 평구역, 흑수, 섬강, 치악'은 상대적으로 점(點)에 가까운 모습이다.

전경화 이론에 따르면, 독자는 텍스트에서 비슷한 요소들이 반복되면 요소들 각각을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집합으로서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인다.[91] 위의 단락의 경우에는 공간의 이동과 함께 빠르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명들이 독자들에게 반복적인 특성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위에서 나열된 '연추문, 경회, 평구역, 흑수, 섬강, 치악'과 같은 세부적인 공간 시어들은 배경적인 시어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은 데 비해, 가장 먼저 제시된 '관동'의 경우 독자로 하여금 시적 진술이 일어나는 공간을 초점화 하여 제시하는 전경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관동별곡>에서 서사와 부임도중(赴任途中)을 포함

90) 崔南善, 『道里表』, 朝鮮廣文會, 1912, 75면.(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96면에서 재인용.)

91) P. Stockwell, 앞의 책, 131면.

한 '강원도행(江原道行)'의 부분은 '관동'이 먼저 단독적으로 부각되고 구체적인 지명들이 관동으로의 이동 지점으로서 빠르게 제시됨으로써 '관동'은 전경적으로 틀을 제시하고, 이후의 지명들은 배경적인 시어로서 선적인 진행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 방식은 16세기 가사의 전개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영주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가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듯 주제적인 사실을 내거는" 진술 양식이 나타나는데[92], <관동별곡>에서도 '관동(關東)'이라는 핵심적인 공간을 넓게 주제적으로 제시한 후에, 핵심적인 공간인 관동 지방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이동의 과정을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개념적 공간 시어들로 빠르게 나타난 것이다.

<관동별곡>의 첫 부분에서 정철이 관동 지방으로 향하게 된 계기와 관찰사로서의 부임의 과정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이후의 진술에서 기행 체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단락은 아래의 '營中이 無事ᄒᆞ고 時節이 三月인 제'의 구절 다음부터이다. 화자는 관찰사로 부임한 후, '영중(營中)'이 무사하다는 확인과 여행을 하기 좋은 시절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여행을 정당화 한다.

[016~017] 營中이 無事ᄒᆞ고 時節이 三月인 제 / **花川** 시내 길히 **楓岳**으로 버더 잇다

또한, 화자는 본격적인 내금강 유람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풍악(楓岳)'[93]이라는 넓은 범위의 공간적 시어를 제시함으로써 후술되는 기행 체험의 영역을 금강산으로 틀을 지어 제시하고 있다. 내금강 유람은 <관동별곡>에서 분량 상 약 32%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으로,[94] 이처럼 <관동별곡>에서는 별다른 연결 관계 없이 초점화된

92) 박영주, 「가사의 갈래 규정과 체계화 방안」, 『성대문학』 25, 1987, 60면.
93) 풍악(楓岳)은 금강산의 다른 이름으로, 금강산 전역을 포괄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94) 정재호, 앞의 글, 257~258면.

개념적 공간 시어를 활용하여 서술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나타내는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한편, 두 지명이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맥락을 고려하여 초점화된 공간과 배경적인 공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018~022] 行裝을 다 썰티고 石逕의 막대 디퍼 / **百川洞** 겨틔 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 銀ᄀᆞ튼 무지게 玉ᄀᆞ튼 龍의 소리 / 섯돌며 뿜는 소릐 十里의 ᄌᆞ자시니 /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19행에 제시된 '백천동(百川洞)'과 '만폭동(萬瀑洞)'은 두 시어는 모두 개념적 공간 시어이지만, '백천동'은 '겨틔 두고'와 결합하여 주변적인 시어로 다루어지는 반면, '만폭동'의 경우 '(로) 드러가니'와 결합하여 이후의 세 구절의 분량을 '만폭동'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다. 즉 이때의 '백천동'은 배경적 공간이며, '만폭동'은 단락의 중심이 되는 전경적인 공간이 된다.

위의 예시에서의 '백천동'과 '만폭동'과 같이, <관동별곡>에서 모든 공간이 동등한 중요도로 다루어지지 않는 점은 정재호·장정수에서 <관동별곡> 내금강 여정의 지명들이 양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구절 수를 검토하여 논의된 바가 있으며,[95] 여러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주석서(註釋書)들에서도 몇몇의 중심적 공간을 기준으로 단락을 구분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96]

이처럼 <관동별곡>의 개념적 공간 시어들은 화자의 이동과, 경관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나타내는 초점적인 공간과, 배경적인 공간으로 나뉘며 정지(靜止)적인 술회와 빠른 공간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엮어 나간다.

이후의 <관동별곡> 진술에서 공간의 이동과 함께 제시되는 장면들은 위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배경화된 시어가 먼저 이동의 과정과 함께 제시된 후 초점화된 시어를 중심으로 한 술회가 개별적인 단락을 구성하면서 이어진다.

---

95)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104면.
96) 김사엽 주해, 앞의 책, 13면; 박성의 주해, 앞의 책, 1-53면 참조.

[058~059] **摩訶衍 妙吉祥 雁門재** 너머디여 / 외나모 뻐근 ᄃᆞ리 **佛頂臺** 올라ᄒᆞ니

특히 불정대 위에 내려다 본 폭포의 풍경을 묘사한 단락의 첫 부분인 58행에서는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재(雁門재)' 세 곳의 지명이 나란히 제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공간은 모두 실제의 공간을 가리키는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임에도 관련된 경관과 그에 대한 술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세 시어가 아무 장치 없이 나열되어 있다. 다만 지명의 나열 이후 바로 제시되는 '너머디여'라는 동사를 통해 이 세 곳이 작자가 이동의 과정에서 거쳐 간 곳임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반면 이 세 지명과 달리 바로 다음 구절의 개념적 공간 시어인 '불정대(佛頂臺)'는 이후 제시되는 경관들을 엮어주는 공간적인 중심이 된다. 즉 위의 단락에서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체험의 진행성을 나타내주는 배경적인 시어, '불정대'는 공간을 구분해주는 초점화된 공간 시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내금강에서의 유람이 끝난 뒤, 작중의 화자는 동해(東海)로 발걸음을 옮긴다.

[066] 山中을 ᄆᆡ양 보랴 **東海**로 가쟈ᄉᆞ라

앞서 내금강에서의 유람이 "營中(영중)이 無事(무사)ᄒᆞ고 時節(시절)이 三月(삼월)인 제 / 花川(화천) 시내 길히 楓岳(풍악)으로 버더 잇다"로 시작하며 '풍악(楓岳)'이라는 초점화된 공간을 먼저 제시하며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금강을 통해 동해로 가는 여정 또한 '동해(東海)'라는 초점화된 공간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따라서 '동해'의 범위가 이후의 공간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라는 점, 동해와 관련한 서술이 앞서 '풍악'과 마찬가지로 단락을 구성하지 않고 한 행으로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해(東海)'는 앞서 '풍악(楓岳)'이 강원도 관찰사에 부임하기까지의 과정과 내금강으로의 유

람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초점적인 시어를 기준으로 앞뒤의 시적인 진술이 크게 달라짐을 예고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이렇게 새로운 초점을 제시한 이유는 이후의 유람에서 두드러지는 신선(神仙)의 모티프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산영루'에 오름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7행에서 74행까지[97]의 단락은 시적 진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단락에서 '鳴沙(명사)길 니근 물이 醉仙을 빗기 시러'에서 '취선(醉仙)'이라는 신선 모티프가 제시된 이후부터 '신선(神仙)' 관련 모티프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이다.[98] 김병국 또한'외·해금강 및 동해안'으로 접어든 이 시점부터 '연군(戀君)'의식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페르소나(persona)' 대신 내적인 욕망과 심령운동으로, '신선(神仙)'으로 대표되는 내적인 '아니마(anima)'가 두드러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의 초점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99]

<관동별곡>의 동해안 유람도 앞서서 내금강에서의 유람이 배경화된 시어를 나란히 제시한 후 전경화된 시어가 나타나는 양상으로 서술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점화된 공간을 제시하고, 경관을 후술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 [075~078] 金蘭窟 도라 드러 **叢石亭** 올라ᄒᆞ니 / 白玉樓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셔 잇고야 / 工倕의 셩녕인가 鬼斧로 다ᄃᆞᆫ가 / 구ᄐᆞ야 六面은 므어슬 象톳던고

'금란굴(金蘭窟)'은 '통천군 북쪽 10리에 있는 굴'이고, '총석정(叢石亭)'은 '통천군 북쪽 18리에 있는 정자'이다. '금란굴'과 '총석정'의 개념적 공

---

97) [067~074] 藍輿緩步ᄒᆞ야 山瑛樓의 올나ᄒᆞ니 / 玲瓏碧溪와 數聲啼鳥ᄂᆞᆫ / 離別을 怨ᄒᆞᄂᆞᆫ ᄃᆞᆺ / 旌旗를 ᄲᆞᆯ티니 五色이 넘노ᄂᆞᆫ ᄃᆞᆺ / 鼓角을 섯부니 海雲이 다 것ᄂᆞᆫ ᄃᆞᆺ / 鳴沙길 니근 물이 醉仙을 빗기 시러 / 바다ᄒᆞᆯ 겻ᄐᆡ 두고 海棠花로 드러가니 / 白鷗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

98) 이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자세히 후술하도록 한다.

99) 김병국, 「가면 혹은 진실-송강가사 <관동별곡> 평설」, 『국어교육』 18, 한국어교육학회, 1972, 51-53면.

간 시어가 연달아 제시되어 있지만 '금란굴'의 공간이 포괄하는 범위는 구(句)의 절반에 해당되는 데에 비해 '총석정'의 경관은 '白玉樓(백옥루) 남은 기둥~구ᄐᆞ야 六面(육면)은 므어슬 像(상)ᄐᆞᆺ던고'의 일곱 구 가량으로 이어지고 있어, 작품을 읊어 가는 과정에서 '금란굴'은 배경으로 숨어들고 '총석정'이 전경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험의 초점이 '총석정'의 공간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079] 高城을란 뎌만 두고 **三日浦**ᄅᆞᆯ ᄎᆞ자가니
[084~085] 梨花ᄂᆞᆫ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 洛山 東畔으로 **義相臺**예 올라 안자
[093~094] 斜陽 峴山의 躑躅을 므니불와 / 羽蓋芝輪이 **鏡浦**로 ᄂᆞ려가니
[103~104] **江陵** 大都護 풍속이 됴흘시고 / 節孝 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106~107] **眞珠舘 竹西樓** 五十川 ᄂᆞ린 믈이 / 太白山 그림재ᄅᆞᆯ 東海로 다마가니

이와 마찬가지로 79행, 84~85행, 93~94행, 103~104행은 각각'삼일포(三日浦)', '의상대', '경포', '강릉', '죽서루'에 의해 초점화된 공간이 구분된다. 한편,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특징적인 점은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갈수록 화자의 여정의 진행을 나타내는 개념적 공간 시어의 중요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관동별곡>을 네 단위로 나누었을 때, 네 번째 단락은 꿈속 세계와 결사를 포함하는 119행에서 마지막 147행에 해당되는데,[100] 이 단락에서

100) [119~147] 져근덧 밤이 드러 風浪이 定ᄒᆞ거ᄂᆞᆯ / 扶桑 咫尺의 明月을 기ᄃᆞ리니 / 瑞光 千丈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 珠簾을 고텨 것고 玉階ᄅᆞᆯ 다시 쓸며 / 啓明星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蓮花 ᄒᆞᆫ 가지ᄅᆞᆯ 뉘라셔 보내신고 / 일이 됴흔 世界 놈대되 다 뵈고져 / 流霞酒 ᄀᆞ득 부어 둘ᄃᆞ려 무론 말이 / 英雄은 어ᄃᆡ 가며 四仙은 긔 뉘러니 / 아ᄆᆡ나 맛나보아 녯 긔별 뭇쟈ᄒᆞ니 / 仙山 東海예 갈 길히 머도 멀샤 / 松根을 베여 누어 픗잠을 얼픗 드니 / 꿈애 ᄒᆞᆫ 사ᄅᆞᆷ이 날ᄃᆞ려 닐온 말이 / 그ᄃᆡᄅᆞᆯ 내 모ᄅᆞ랴 上界예 眞仙이라 / 黃庭經 一字ᄅᆞᆯ 엇디 그릇 닐거 두고 / 人間의 내려 와서 우리ᄅᆞᆯ 쫄오ᄂᆞᆫ다 / 져근덧 가디 마오 이 술 ᄒᆞᆫ 잔 머거 보오 / 北斗星 기우려 滄海水 부어 내여 / 저 먹고 날 머겨ᄂᆞᆯ 서너 잔 거후로니 / 和風이 習習ᄒᆞ야 兩腋을 추혀드니 / 九萬里 長空애 져기면 ᄂᆞᆯ리로다 / 이 술 가져다가 四海예 고로 ᄂᆞᆫ화 / 億萬

쓰인 개념적 공간 시어들은 '114바다', '114하늘', '114하늘', '129동해(東海)' '129길', '146바다'로, 129행의 '동해(東海)'를 제외하고는 고유명사 지명이 쓰이지 않을 것을 볼 수 있다. '仙山 東海예 갈 길히 머도 멀샤'라는 구절에 유일하게 쓰인 고유명사 '동해' 또한 여정의 과정을 나타내기보다는 넓은 공간을 포괄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의 나머지 개념적 공간 명사들은 특정한 장소를 술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등장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꿈으로의 도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거나 꿈속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시어이다.

정리하자면, 작품의 중심이 되는 금강산과 동해 유람의 부분에서는 '풍악'과 '동해'를 중심으로 하여 여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다양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이 나타나는 반면, 여정을 마무리하는 후반부에서는 개념적 공간 명사들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앞서 <관동별곡>의 여행 체험의 전반부인 내금강의 산수 체험이 성은(聖恩)을 잊지 않고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는 작자의 '페르소나'가 나타난 면이라면, 외금강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작자의 자유로운 내면적인 욕망이 강조된다고 본 해석과도 일치한다.[101] 다시 말해 화자의 내면이 외부 세계와 상호 교섭하면서 사회적인 자아를 나타낼 때에는 기행 공간을 초점화한 후에 그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는 방식의 서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화자의 내면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표현될 때에는 기행 공간을 초점화 하는 빈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관동별곡>에서 초점화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은 작자가 노정의 과정에서 감흥을 느낌 공간들을 초점화하여 <관동별곡>의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 대한 술회를 구분 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히 기행 체험의 중심이 되는 내금강 유람과 외·해금강, 동해안의 여정에 관한 진술에서 개념

蒼生을 다 醉케 밍근 後의 / 그제야 고텨 맛나 ᄯᅩ 흔 잔 ᄒᆞ쟛고야 / 말 디쟈 鶴을 ᄐᆞ고 九空의 올나가니 / 空中 玉簫 소릐 어제런가 그제런가 / 나도 줌을 ᄭᆡ여 바다흘 구버보니 / 기픠를 모ᄅᆞ거니 ᄀᆞ인들 엇디 알리 /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 비췬 ᄃᆡ 업다

101) 김병국, 앞의 글, 51-53면.

적 공간 명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작품의 가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월출과 꿈 속 체험'에 대한 진술에서는 빈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개념적인 공간 명사들의 사용이 작품의 시적 전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배경적 공간을 통한 선적 진행감 부여

앞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을 배경화된 시어와 초점화된 시어로 구분하면서, 기행 체험의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대별되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공간에 대한 묘사와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 표현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제시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배경적 시어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019] **百川洞** 겨틔 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052] **圓通골** ᄀᆞᄂᆞᆫ길로 **獅子峰**을 ᄎᆞ자가니
[058~059] **摩訶衍 妙吉祥 雁門재** 너머디여 / 외나모 뻐근 ᄃᆞ리 **佛頂臺** 올라ᄒᆞ니
[075] **金蘭窟** 도라 드러 **叢石亭** 올라ᄒᆞ니
[079] **高城**을란 뎌만 두고 **三日浦**ᄅᆞᆯ ᄎᆞ자가니
[085] **洛山** 東畔으로 **義相臺**예 올라 안자
[093~094] 斜陽 **峴山**의 躑躅을 므니불와 / 羽蓋芝輪이 **鏡浦**로 ᄂᆞ려가니

위에 나타난 사례들을 보면 '만폭동(萬瀑洞)', '사자봉(獅子峰)', '불정대(佛頂臺)', '총석정(叢石亭)', '삼일포(三日浦)', '의상대(義相臺)', '경포(鏡浦)'와 같은 중심 공간이 제시되기 이전에 '百川洞(백천동) 겨틔 두고', '圓通(원통)골 ᄀᆞᄂᆞᆫ길로', '摩訶衍(마하연) 妙吉祥(묘길상) 雁門(안문)재 너머디여', '金蘭窟(금란굴) 도라 드러', '高城(고성)을란 뎌만 두고', '洛山(낙산) 東畔(동반)으로', '斜陽(사양) 峴山(현산)의 躑躅(척촉)을 므니불와'와 같이 구체적인 지명들이 '너머디여'와 같은 이동을 나타내는 술어나 '로', '으로'와 같은 방향성이 나타나는 부사격 조사, 혹은 '불와'와 같은

동작성 행위를 나타내는 술어와 함께 쓰이며 이동의 과정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백천동(百川洞)', '원통골(圓通골)',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재(雁門재)' , '금란굴(金蘭窟)', '고성(高城)', '낙산(洛山)', '현산(峴山)'은, 모두 이동 과정에 화자가 거쳐 가는 공간으로서, 이와 관련된 감흥이나 묘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시어들을 들은 구체적 장면의 구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시적인 전개의 연속성과 율격적 역동성에 기여 하는 배경적 시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歌辭)는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하여 행이 끝없이 확장되어 그 길이에 있어 제한이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데 동일한 강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서술은 자칫 청자로 하여금 피로감과 지루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동별곡>은 가사의 확장적 문체를 활용하여 여러 공간에 대한 술회를 풍부하게 제시하면서도, 강조와 생략을 통해 시상의 흐름의 완급을 조절하여.[102] 율격적 역동성과 진행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관동별곡>은 배경적인 시어들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제시되었던 주요한 공간들에 대한 술회를 이동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하는 진술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천동'과 같은 배경적인 공간들이 시적 진술에서 갖는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주석서에서와 같이 "장안사(長安寺) 동북(東北)에 있는 옥경대(玉鏡臺) 명경대(明鏡臺)로 들어가는 골짜기"[103]라는 지리적·백과사전적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관동별곡>의 공간 명사 시어 중 개념적 의미가 강조되는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들은 작자가 기행 체험 중에 방문했던 공간을 여정과 소회의 두 가지 다른 층위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화자의 소회가 펼쳐지고 체험이 초점화되는 공간과, 여정의 진행감을 부각하기 위한 공간이 대별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02) 박영주, 「<관동별곡>의 시적 형상성」, 『반교어문연구』 5, 반교어문학회, 1994, 71-106면.

103) 김사엽 주해, 앞의 책, 23면.

2) 조정적 공간 명사를 통한 공간의 가치 부각

공간 명사는 기본적으로 삼차원의 영역을 나타내지만, 공간 명사 시어 중에서 공간을 지시하는 개념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맥락에 의해 의미가 변화하여 공간 그 자체보다는 공간과 관련된 가치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조정적 공간 명사 시어로 일컫고자 한다. 조정적인 시어들은 맥락에 따라서 일상적 개념적 의미와 맥락에 따른 조정적인 의미가 공존하는 특질을 지닌다. 이로 인해서 본래의 지시물에서 특히 부각하고자 하는 가치가 두드러지는 방향으로의 의미 실현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작자의 가치관과 당대의 문화적 배경이 조정적인 시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관동별곡>의 조정적 공간 명사 시어는 각 시어가 부각하고 있는 가치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크게 유교적인 가치를 부각하는 유형과 기행 공간의 풍류적인 가치를 부각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조정적 시어가 강조하는 가치가 '유교적'인 것과 '풍류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것은 시어가 작자의 의도와, 작품과 관련된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을 작품 텍스트 안으로 투입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104] 따라서 이 두 유형은 모든 시적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필연적 가치라기보다는, <관동별곡> 속의 조정적인 공간 시어에 한정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1) 기행 공간의 유교적 가치 부각

금강산과 같은 명산(名山)은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자연 공간이었기도 하였지만, 공적인 정체성을 지닌 특별한 공간으로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명산으로의 여행은 개인적인 차원의 여행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공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다.[105]

---

104) <관동별곡>의 화자는 불교적 기원을 지닌 지명(地名)이나 절, 승려에 대한 진술을 의식적으로 꺼리는 양상을 보이는데,(정재호, 앞의 글, 250면.) 이는 사대부로서의 작자의 신분 및 사회적 제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체험의 진술이 작자인 송강(松江)이 왕명을 받아 관찰사에 제수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작품의 내용이 작자의 사회적인 신분과 의무에서 완전히 멀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작품의 초반의 '강호(江湖)', '소양강(昭陽江)', '회양(淮陽)', '삼각산(三角山)'의 공간 시어들은 이러한 작자의 사회적인 의식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001~002] **江湖**애 病이 깁퍼 竹林의 누엇더니 / 關東 八百里애 方面을 맛디시니

예를 들어,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초문을 여는 '江湖애 病이 깁퍼 竹林의 누엇더니'에서 '강호(江湖)'의 의미는 단순히 개념적 의미의 '강과 호수'가 아니라 '자연'을 가리키는 말로의 의미의 확장이 일어난 시어이다. 또한 이때의 자연은 오늘날의 생태 환경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이 반영된 의미의 자연이다. '강호(江湖)'의 공간은 이후 시적 화자가 관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관동(關東)'의 공간과 대비되어 화자의 사회적인 지위와 상황이 변화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시적 화자가 "강호의 낙을 누릴 줄 아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조정에 봉사할 수 있는 자질과 경륜을 지닌"[106] 품위와 교양이 있는 인물임을 넌지시 제시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강호'가 지니는 '강과 호수'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습적인 사용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시적인 문맥에 의해 문자적 의미와 더불어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가치'로서의 의미가 텍스트 이해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자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008~015] **昭陽江** ᄂᆞ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 孤臣去國에 白髮도 하도 할샤 / **東州** 밤 계오 새와 **北寬亭**의 올나ᄒᆞ니 / 三角山 第一峯이 ᄒᆞ마면

105) 염은열, 앞의 글, 2006, 102면.
106) 정재호, 앞의 글, 259면.

뵈리로다 / 弓王 大闕 터희 烏鵲이 지지괴니 / 千古 興亡을 아는다 몰ᄋᆞ는다 / **淮陽** 녜 일홈이 마초아 ᄀᆞ톨시고 / 汲長孺 風彩를 고텨 아니 볼 게이고

마찬가지로 8~15행의 '소양강(昭陽江)', '동주(東州)', '북관정(北寬亭)', '회양(淮陽)'은 모두 강원도에 있는 실제의 공간들이라는 점에서 작자가 금강산 유람을 형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시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공간 또한 시적인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기행 공간을 제시하는 역할보다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우선, 위의 이동 경로가 기록상 임지에 왕명을 받아 부임해야 하는 관찰사의 일정상 상식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107] 위의 공간들과 관련된 시적 진술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도, '소양강'이나 '동주', '북관정', '회양'의 경관(景觀)의 아름다움과 그에 따른 술회가 강조되기보다는 나라의 흥망(興亡)이나 왕명을 수행하는 신하로서의 직책과 의무 등 유교적인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양강(昭陽江)'의 경우는 소양강 물이 임금이 있는 서울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주(東州)'의 '북관정(北寬亭)'에서는 임금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 '삼각산(三角山)'을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모두 신하로서의 의무라는 유교적인 가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다. '회양(淮陽)' 또한 실제의 풍경을 그리기 위한 시어라기보다는 텍스트 맥락상 '급장유(汲長孺)'라는 인물과 연결되어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화자의 포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위의 네 공간은 본격적인 금강산 유람에 앞서 화자의 지위나 품위, 가치관 등을 독자들이 짐작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108] 여행 체험의 진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109]

---

107)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100면.
108) 정재호, 앞의 글, 6면.
109) 조세형 또한 <관동별곡>의 핵심적 내용은 '금강산 체험'으로 위의 부분을

따라서 이러한 시어의 경우에는 비록 공간 명사라고 하여도 공간의 지리적 위치나, 물리적 형상보다는 공간이 부각하고 있는 가치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간 명사가 기행 체험과 관련된 유교적인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금강산의 지명뿐만 아니라 작자가 상상을 통해 떠올리는 공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046~051] 毗盧峰 上上頭의 올라보니 긔 뉘신고 / **東山 泰山**이 어ᄂᆞ야 놉돗던고 / **魯國** 조븐 줄도 우리ᄂᆞᆫ 모ᄅᆞ거든 / 넙거나 넙은 天下 엇띠ᄒᆞ야 젹닷말고 / 어와 뎌 디위를 어이ᄒᆞ면 알 거이고 / 오ᄅᆞ디 못 ᄒᆞ거니 ᄂᆞ려가미 고이 홀가

46~51행의 단락에는 작중의 화자가 개심대(開心臺)상에서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毗盧峯)'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화자는 비로봉의 높이 솟은 특성을 매개적 요소로 하여 중국의 높은 두 산인 '동산(東山)'과 '태산(泰山)'을 연상한다. '동산'과 '태산'은 물리적인 장소로는 중국 산동성(山東城)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110] 그러나 시적인 맥락상 이 두 산은 실제 동산과 태산의 지리적 위치보다는 《맹자(孟子)》 '진심(盡心)' 상편에 '공자가 소시에 동산에 올라가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가 천하를 작게 여겼다(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라는 유학에서의 성인(聖人)의 경지를 나타내는 구절과 관련지어서 풀이된다.[111] 화자는 노나라와 천하를 작게 여겼던 공자의 경지에 감탄하며 자신은 그러한 지위를 알지 못하니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겸양을 보인다.

따라서 이때의 '비로봉(毗盧峯)', '동산(東山)', '태산(泰山)', '노국(魯國)'은 화자의 유학자로서 달성해야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理想)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공간적인 시어들이 된다. 이는 금강산의 최고

"시적 체험으로 전화하기 이전"의 비시적 체험의 요약으로 보았다.(조세형, 앞의 책, 74면.)

110)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74면

111) 위의 책, 75면; 김사엽, 앞의 책, 34면.

봉인 비로봉이라는 자연적 공간이 시적 화자의 가치 부여를 통해 작자의 세계관과 관념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112] 특히 '비로봉(毗盧峯)'의 '비로(毘盧)'는 불교에서 중생(衆生)을 제도(濟度)하는 부처인 '비로자나불'에서 유래한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113] 오히려 유학의 최고 이상과 관련짓는 모습은, 공간의 가치가 강조된 조정적 공간 시어의 경우 지명과 관련한 한자어의 어휘소 풀이나 지명의 지리적인 지식보다도 공간을 매개로 부각되는 작자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정적인 공간 시어들은 지리적인 여정과는 관련성이 낮지만, 공간적인 이동 과정이 작자의 이념적 측면과 어우러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조정적 공간 시어들은 시적 전개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조정적 공간 명사로 분류된 목록을 살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전반부	1강호(江湖) 1죽림(竹林) 11삼각산(三角山) 8소양강(昭陽江) 14회양(淮陽) 26서호(西湖) 33동명(東溟) 33북극(北極) 44천지(天地) 46비로봉(毗盧峯) 47동산(東山) 47태산(泰山) 48노국(魯國) 49천하(天下) 55창해(滄海) 65여산(廬山)
작품 후반부	73해당화(海棠花) 82선유담(仙遊潭) 82영랑호(永郎湖) 83청간정(淸澗亭) 83만경대(萬景臺) 88만국(萬國) 92천지간(天地間) 108한강(漢江) 108목멱(木覓) 117육합(六合) 120부상(扶桑) 132상계(上界) 140사해(四海) 143구공(九空) 148천산만락(千山萬落)

[표 2] 작품 전・후반부에 쓰인 조정적 공간 명사 시어

위의 목록을 보면, 밑줄로 표시한 유교적 가치가 부각되는 조정적 공간 시어들은 대부분 작품의 전반부에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품의 전반부를 관통하는 주제가 관찰사로서의 사회적 직무의 이념인 것에 비해 작품의 후반부를 관통하는 정서가 '취선(醉仙)'으로 대표되는

112) 염은열, 앞의 글, 2006, 100면.
113) 김종철, 「松江의 <關東別曲>과 本地風光」,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발표요지』, 2007.7.(조세형, 앞의 글, 15면에서 재인용.)

신선 세계에 대한 이념인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114]

⑵ 기행 공간의 풍류적 가치 부각

<관동별곡>의 풍류적 가치를 담아낸 공간 명사들을 살피기 이전에, <관동별곡>이 금강산(金剛山)과 동해안(東海岸) 등 관동(關東) 지방의 명승지(名勝地)를 기행한 체험이 주가 되는 작품이므로, 명승지를 여행하면서 느끼는 풍류는 작품의 어느 일부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정서이며, 여러 시어들의 연합과 연결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동별곡>에는 특히 작자의 풍류적인 가치가 공간 명사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작자의 풍류를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조정적 공간 명사 시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023~026] 金剛臺 민 우 層의 仙鶴이 삿기치니 / 春風 玉笛聲의 첫잠을 씨돗던디 / 縞衣玄裳이 半空의 소소 뜨니 / **西湖** 녯 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위의 단락에서 '서호(西湖)'는 중국 항주의 지명으로 금강산의 실제 장소와는 관련이 없는 곳인데, 송나라 진종(眞宗) 대의 시서화(詩書畵)에 뛰어났던 은사(隱士)인 임포(林逋)가 서호(西湖)에 살며 매화를 아내처럼 여기고, 학을 자식처럼 여겼다는 고사를 바탕으로 사용되었다.[115] 그러나 텍스트 앞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위의 단락이 '금강대'의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학'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써 '서호(西湖)'의 여러 백과사전적인 지식 중에서도 특히 '학을 자식처럼 사랑하였던 임포(林逋)가 살던 곳'이라는 의미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술의 배경이 되는 '금강대(金剛臺)'의 공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금강대와 관련하여 "석벽(石

114) 염은열, 앞의 글, 2000, 87면.
115) 박성의 주해, 앞의 책, 25면.

壁)이 천길이나 되어서 사람이 오를 수가 없다. 두 마리의 검은 새가 있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 곳에 사는 중이 그것을 가리켜 현학(玄鶴)이라고 하였다."라는 학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116] 작자는 '금강대(金剛臺)'와 '서호(西湖)'라는 서로 다른 문헌에 근거를 둔 이미지들을 '학'이라는 매개적인 소재로 엮어 풍류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학'이 표상하는 신선의 이미지[117]를 작품에 가져오고 있다.

[063~064] 李謫仙 이제 이셔 고텨 議論ᄒᆞ게 되면 / **廬山**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ᄒᆞ려니

위의 '여산(廬山)'의 경우에도 작자가 금강산의 풍류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대 '아름다운 산'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여산'을 가져와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그를 가히 능가할 만함을 표현하고자 한 시어로 사용한 사례이다. 이때의 '여산'의 의미는 '중국 강서성(江西城) 북부에 위치한 산'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백(李白)이라는 시인이 아름다움을 읊었던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산'[118]이라는 의미가 부각되는 조정된 의미가 된다. 이러한 조정적 의미는 당대에 널리 공유되던 '여산'과 관련한 문화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지만,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관습적 의미이다. '여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없는 학습자들에게 금강산과 여산의 아름다움을 비교하는 위의 구절은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학습자들에게 '여산'의 지리적 정보와 국어 사전적 의미만을 설명하는 것은 <관동별곡> 텍스트를 문학적 상상력으로 읽도록 돕지 못하고 무수한 정보로 얽혀 있는 기록 텍스트로서만 읽게 한다.

[079~083] 高城을란 뎌만 두고 三日浦를 ᄎᆞ자가니 / 丹書ᄂᆞᆫ 宛然ᄒᆞ되 四仙

116) 민족문화추진회, '산천',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6, 민족문화추진회, 1982, 83면.
117) 정무룡, 앞의 글, 225면.
118) 이백(李白),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시집』, 학고방, 2015, <望廬山瀑布> 참조.

은 어듸 가니 / 예 사흘 머믄 後의 어듸가 ᄯᅩ 머믈고 / **仙遊潭 永郞湖** 거긔나 가 잇ᄂᆞᆫ가 / **淸澗亭 萬景臺** 몃 고ᄃᆡ 안돗던고

79~83행에서 '선유담(仙遊潭)', '영랑호(永郞湖)', '청간정(淸澗亭)', '만경대(萬景臺)'의 네 지명은 '사선(四仙)'과 관련된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의 기록과 관련된 곳으로[119], 공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대표성을 띄는 지명들의 나열을 통해 사선(四仙)과 관련된 역사 전고를 가져와 풍류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한 사례이다. 대표성을 지니는 시어의 제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상을 구성하는 것은 송강 문학만의 독특한 미적 특질이라고 논의된 바 있는데,[120] 이 경우에도 '선유담', '영랑호', '청간정', '만경대'는 단순한 지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듣는 이에게 신선류의 풍류를 연상케 하는 공간 시어들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시어들은 <관동별곡>에 나타난 풍류적인 자질과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데 중요한 시어이지만, 핵심적이고 유의미한 정보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문면의 의미만 강조되는 경우 학습자들에게 해독의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시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들과 같이 조정적 공간 시어는 공간이라는 의미 영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공간이 가리키는 차원적인 범위보다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이나 가치 등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구현하는데, 이는 <관동별곡>의 공간 명사 시어들이 단순히 여정의 흐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작자의 의식과 관념을 드러내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3) 변이적 공간 명사를 통한 다층적 의미 추구

변이적인 공간 명사 시어란,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 시어이지만 본래의

119) 이 지명들은 과거 화랑들의 유오처(遊娛處)로서, 이른바 선풍성지(仙風聖地)로 일컬어진다.(박영주, 앞의 글, 1994, 101면.)

120) 이종묵, 『<關東別曲>을 읽는 재미』, 백영정병욱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666면.

의미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1차적·개념적인 의미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변이적 공간 명사의 예는 아래의 단락에서의 '여산(廬山)'을 예로 들 수 있다. <관동별곡>에는 '여산(廬山)'이라는 시어가 총 두 번 등장하는데, 아래의 구절은 '진헐대'에서 내려다 본 풍경을 묘사한 대목이다.

[027~029] 小香爐 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 正陽寺 眞歇臺 고텨 올나 안ᄌᆞᆫ마리 / **廬山** 眞面目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이때 진헐대에서 바라보는 실제의 풍경은 금강산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중국의 산인 '여산(廬山)'의 진면목이 다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여산'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시어로서, '여산'의 문자적인 의미와 시적 맥락에서 지시하는 '금강산'은 지시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위에서의 '여산'은 변이적인 공간 명사 시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구절은 소식(蘇軾)의 시 <제서림벽(題西林壁)> 의 한 구절인 '여산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한다(不識廬山眞面目)'를 '여산 진면목을 다 보겠다'의 형태로 정반대로 바꾸어 쓰면서,[121] 금강산을 '여산'에 은유하고 있는 표현이다. 소식이 여산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여산'의 형용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 그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미로,[122] 세상의 진리(眞理)와 도(道)를 알기 어려움을 여산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123] 그러한 여산의 모습을 '진헐대' 위에서 다 볼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은 진헐대 위에서의 금강산의 조망이 그만큼 '여산'과도 같이 훌륭함을 나타낸 동시에, 전고(典故)를 활용하여 화자가 금강산의 참 본질을 한 눈에 부감(俯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

121) 성호경, 「가사 <관동별곡>의 종착지 "월송적 부근"과 결말부의 의의」,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b, 151면.
122)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73면.
123) 조세형, 앞의 글, 425면.

따라서 동일한 '여산(廬山)'이라 할지라도, 29행의 여산은 앞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64행에서의 '여산'이 '아름다운 산의 대명사'라는 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변이적 공간 시어가 텍스트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구현해 내는 데 중심이 되는 매개물이 됨을 알 수 있다.

[063~064] 李謫仙 이제 이셔 고텨 議論ᄒᆞ게 되면 / **廬山**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ᄒᆞ려니

[109~112] 王程이 有限ᄒᆞ고 風景이 못 슬믜니 / 幽懷도 하도 할샤 客愁도 둘 듸 업다 / 仙槎를 띄워내여 **斗牛**로 向ᄒᆞ살가 / 仙人을 ᄎᆞᄌᆞ려 **丹穴**의 머므살가

한편, 109~112행에서는 '두우(斗牛)'와 '단혈(丹穴)'이라는 변이적 공간 시어가 쓰였다. '두우'와 '단혈'은 각각 문자적으로는 '북두칠성과 견우성', '단사(丹沙)가 나오는 구멍이나 구덩이'[124]를 의미한다.

이때 '仙槎(선사)를 띄워내여 斗牛(두우)로 向(향)ᄒᆞ살가'의 다층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선이 타는 뗏목을 가리키는 '선사(仙槎)'가 울진(蔚珍)의 옛 이름이기도 하였다는 문화적 지식[125]과, 《사기(史記)》의 「대완열전(大宛列傳)」에 나오는 장건(張騫)이라는 인물이 하원(河原)을 찾아 뗏목을 타고 은하수에 이르러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는 전설이 엮여[126] '두우(斗牛)'가 '울진(蔚珍)' 지역을 가리키는 의미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단혈(丹穴)' 또한 독립적인 맥락에서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구절의 '丹書(단서)는 宛然(완연)ᄒᆞ되 四仙(사선)은 어듸 가니'와 '단서(丹書)'를 통해 관련되어 '사선(四仙)'의 시적 맥락과 관련된다. 따라서 '단혈(丹穴)'은 문맥에 의해 '고성(古城)'을 의미하게 된

124) 국립국어원, 「단혈」 1,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021년 4월 22일 접속.
125) 민족문화추진회, '군명', 「울진현(蔚珍縣)」,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6, 민족문화추진회, 1982, 83면.
126) 성호경, 앞의 글, 2010b, 137면.

다.

위의 정보들을 종합하여 109~112행의 단락을 분석하면, 이 단락은 “공적 여정 속에서 사적 관심 추구가 지니는 한계를 체감하고” 애수를 느끼다가,[127] 이후의 행로를 ‘울진’으로 정할 것인지, ‘고성’으로 정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데, 이러한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두우’와 ‘단혈’이 지니는 변이적인 의미를 읽지 못한다면 ‘두우’와 ‘단혈’은 각각 별의 일종, 동굴의 일종으로 이해되어 두 갈래길 사이의 화자의 선택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즉 시어의 다층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두 공간 사이에서의 화자의 고민도 읽을 수 없다.

변이적 공간 명사의 경우, 개념적 공간 명사나 조정적 공간 명사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지만, 당대인들의 교양에 기대어 공간을 전혀 다른 대상을 통해서 가리킴으로써 공간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시의 의미를 훨씬 더 심층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공간 명사들의 유형을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관동별곡>의 공간 명사들은 대체적으로 공간이 나타내는 지리적인 위치를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된 공간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지리성을 강조할 경우에는 여정의 진행과 초점화된 공간의 층위를 달리 제시함으로써 여정의 진행과 초점화된 공간에 대한 소회가 중층적으로 서술될 수 있도록 단락과 위계를 나누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조정적 공간 명사가 부각하는 공간의 가치는 크게 유교적인 가치와 풍류적인 가치의 두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변이적인 공간 명사들은 문자적인 의미와 이질적인 공간을 나타내되, 이를 작품의 맥락과 당대인들의 문화적 지식과 연결 지으면서, 의미의 다층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추상 명사를 통한 상상적 사고 자극

127) 성호경, 앞의 글, 137면.

Ⅱ장에서의 명사의 의미 영역 분류에 따르면 추상 명사는 실체 명사와 달리 삼차원적인 시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건, 관계, 명제 등을 모두 포괄한다. 앞서 검토했던 공간 명사 시어들과 사물 명사 시어들이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하거나 연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가치나 속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면 추상 명사 시어의 경우에는 작자의 사고(思考)와 연관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절에서는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추상 명사 시어를 앞선 절에서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의미 실현의 양상에 따라 분류하여 그와 관련된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시적 진술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개념적 추상 명사를 통한 독자의 상상 유도

개념적 추상 명사 시어란 시어가 나타내는 관념이 시어의 1차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와 다르지 않은 시어를 나타낸다.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개념적 추상 명사 시어들의 예로는 '방면(方面)', '풍채(風彩)', '진면목(眞面目)', '긔운', '디위', '이별(離別)', '셩녕', '긔별', '풍속(風俗)', '기픠' 등의 시어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개념적 추상 명사 시어라고 할지라도, 기행 공간을 형상화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개념적 추상 명사 시어들은 공간이나 사물 명사 시어가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추상성의 부여를 통해 독자의 상상을 유도하여 기행 공간을 보다 다채롭게 표현한다.

[040~043] 峰마다 밋쳐 잇고 긋마다 서린 긔운 / 묽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묽디 마나 / 뎌 긔운 흐텨내야 人傑을 문돌고쟈 / 形容도 그지업고 體勢도 하도 할샤

예를 들어, 40~43행의 '형용(形容)'과 '체세(體勢)'와 같은 경우 시적인 맥락상 금강산의 '만이천봉'의 모습을 표현한 시어이지만, '부용(芙蓉)',

‘백옥(白玉)’, ‘동명(東溟)’, ‘북극(北極)’처럼 구체적인 사물이나 지명을 들어 직유적으로 표현으로 형상성을 강조한 앞선 구절들과는 달리 묘사를 줄이고 ‘형용’과 ‘체세’라는 추상 시어를 통해서 독자들의 상상이 개입할 여지를 남기며 단락을 마무리 하고 있다. 독자들은 ‘끝없는’ 형용과 ‘많고도 많은’ 형세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경험과 상상에 미루어 추측해 보아야 한다.

[098~101] 孤舟 解纜ᄒᆞ야 亭子 우ᄒᆡ 올나가니 / 江門橋 너믄 겨ᄐᆡ 大洋이 거긔로다 / 從容ᄒᆞᆫᄃᆞ 이 **氣像** 闊遠ᄒᆞᆫᄃᆞ 더 **境界** / 이도곤 ᄀᆞᄌᆞᆫ ᄃᆡ ᄯᅩ 어듸 잇닷말고

98~101행 또한 정자 위에서 바라본 대양의 모습을 ‘기상(氣像)’과 ‘경계(境界)’와 같이 추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027~029] 小香爐 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 正陽寺 眞歇臺 고텨 올나 안ᄌᆞᆫ마리 / 廬山 **眞面目**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

위의 29행에서 ‘廬山 眞面目이 여긔야 다 뵈ᄂᆞ다’라는 구절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소동파(蘇東坡)의 시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다. 당대의 독자들은 <관동별곡>의 위 단락에서 소동파의 시를 변형한 구절에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중국의 명산인 여산(廬山)과도 같이 가지각색의 모양을 지녔을 금강산의 풍광, 즉 ‘진면목’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흥취를 느꼈을 것이다. 시적 화자는 이러한 ‘진면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면목’은 그 추상적인 진술로 인해 독자의 상상력이 발휘될 여지가 남게 되고, 시적인 재미가 유발되는 시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동별곡>은 구체성이 높은 명사 시어들 사이에 추상 명사들을 활용한 서술을 교차함으로써 표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시적 진술의 다양성을 마련하고 있다.

2) 조정적 추상 명사를 통한 서술의 완급 조절

한편, 조정적 추상 명사 시어들은 추상 명사들이 나타내는 1차적인 의미에서 연속적인 선상에서 의미가 전이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건이나 사고를 보다 넓은 틀에서 제시하거나, 혹은 요약적으로 나타내어 서술에 있어서의 유연함을 획득하는 역할을 한다.

[008~009] 昭陽江 ᄂᆞ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말고 / **孤臣去國**에 白髮도 하도 할샤

위의 구절에서 '고신거국(孤臣去國)'은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난' 상황을 의미하는데, 체언에 붙는 부사격 조사 '-에'와 함께 쓰여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추상 명사 시어로 쓰였다.[128] '고신거국'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신(孤臣)'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국(擧國)'의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를 추론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 이 시어는 시적 화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정서를 '고신(孤臣)'의 '거국(擧國)'이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을 통해 넌지시 대변함으로써, 직설적이고 세부적인 언급을 피하고, 서술에 있어 유연함을 획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067] **藍輿緩步**ᄒᆞ야 山瑛樓의 올나ᄒᆞ니

한편, 67행의 '남여완보(藍輿緩步)'는 '뚜껑 없는 가마가 천천히 감'이라는 일종의 '이동 과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사건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 시어이다. 이 시어는 '남여'를 타고 있는 주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이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가는 이동의 과정을 네 음절의 시어로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남여'를 타고 이동하는 사

128) '고신거국(孤臣擧國)'과 같이 문장의 의미를 지니는 성어(成語)를 명사로 보는 근거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2장 2절 3항 참조.

람이 시적 화자라는 사실을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이 시어를 통해 목적지로의 이동 과정이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여유롭게 이루어졌다는 흥겨움의 의미를 동시에 취하고 있다. '남여'는 단순히 이동의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남여를 타고 있는 사람의 신분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상이자, 주로 좁은 산길 등을 갈 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변의 경관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운송 수단이다. 이러한 사물이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하는 독자는 화자가 느꼈던 여유로움과 흥취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여완보'는 이러한 다양한 내포를 통한 암시적인 의미를 취하되, 이를 단 하나의 시어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전개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093~102] 斜陽 峴山의 躑躅을 므니불와 / 羽蓋芝輪이 鏡浦로 ᄂᆞ려가니 / 十里 氷紈을 다리고 고텨 다려 / 長松 울흔 소개 슬ᄏᆞ장 펴뎌시니 /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롤 헤리로다 / 孤舟 解纜ᄒᆞ야 亭子 우히 올나가니 / 江門橋 너믄 겨틔 大洋이 거긔로다 / 從容ᄒᆞᆫ다 이 氣像 闊遠ᄒᆞᆫ다 뎌 境界 / 이도곤 ᄀᆞ존 ᄃᆡ 또 어듸 잇닷말고 / **紅粧古事**롤 헌ᄉᆞ타 ᄒᆞ리로다

한편, 독자들의 교양에 기대어 보다 적극적인 의미 조정이 필요한 조정적 추상 명사 시어도 있다. 93~102행은 경포(鏡浦) 호수의 아름다운 경관을 표현한 단락인데, '紅粧古事롤 헌ᄉᆞ타 ᄒᆞ리로다'로 화자의 감흥을 마무리하고 있다. '홍장고사(紅粧古事)'는 개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경우에는, '홍장의 옛 이야기'라는 의미가 된다. 이때 '옛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독자들의 홍장과 관련된 고사에 대한 선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독자들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홍장과 관련한 선지식 가운데 시적 진술에서 초점화 되어 있는 공간이 '경포 호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지식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홍장고사'는 고려의 기생 홍장(紅粧)이 경포 호수에서 마치 선녀인 것처럼 꾸미고 나타났을 때 박신(朴信)이 그 광경을 마치 실제인 것으로 믿었던 사건과 가장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경포 호수의 풍광을 완상하며, 박신이 홍장의 선녀 분장을 믿었던 데에는 신

비스러웠던 경포 호수의 공간의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홍장고사'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인들의 문화적인 지평과 지적 교양에 기대어 독자들의 적극적 의미 조정을 통해 시적인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면서도 간결하고 완곡한 진술을 획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129]

한편, 변이적 추상 시어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9가지의 의미 유형에 존재하지만, <관동별곡>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추상 시어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추상 시어의 의미는 용언의 관형형이나 명사와 관형격 조사의 결합 어구 등에 의해 수식에 따라서 의미가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30]

[014] 淮陽 녜 **일홈**이 마초아 ᄀᆞ톨시고
[049~050] 넙거나 넙은 天下 엇찌ᄒᆞ야 젹닷말고 / 어와 뎌 **디위**를 어이ᄒᆞ면 알 거이고
[077] 工倕의 **셩녕**인가 鬼斧로 다ᄃᆞᆫ가
[146~1477] 나도 좀을 씨여 바다흘 구버보니 / **기픠**를 모ᄅᆞ거니 **ᄀᆞ**인들 엇디 알리

14행의 '일홈'의 경우 '회양(淮陽)의' 이름이라는 수식에 의해서 의미를 실현하며, 50행의 '디위' 또한 맥락상 '공자의' 지위를 의미한다. 77행의 '셩녕'과 147행의 '기픠'와 'ᄀᆞ' 역시 각각 '공수(工倕)의' 성녕, '바다의' 깊이와 가라는 한정적 수식에 의해 의미를 실현한다. 이는 앞서 '여산(廬山) 진면목(眞面目)' 의 경우도 동일하다.

시어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시어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추상 시어가 다른 시어의 의미에 기대어 의미를 실현하는 특성이 다른 시어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추상 시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

129) 조치형, 앞의 글, 172면.
130) 차준경, 「추상 명사의 의미, 화용 특성 연구」, 『언어와 정보사회』 2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217-236면 참조.

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추상 명사는 어학적인 특질 상 실체 명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짚고자 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간 명사나 사물 명사 또한 지시체를 부각하지 않고 공간이나 사물의 가치나 속성적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추상적인 속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추상 시어에 있어서도 '방면(方面)'과 같이 직책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방면이 결국 화자를 의미하므로 어느 정도 실체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언어의 의미 자체가 분명한 경계를 지니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각 영역을 넘나드는 본질을 지니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문맥에서의 사용을 고려해 보다 두드러지는 의미의 양상을 기준으로 시어를 분석하였다.

이상 Ⅲ장에서는 <관동별곡>의 시어의 의미 유형이 <관동별곡>의 시적 진술 양상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의미영역	의미실현유형	기행 체험 형상화에서의 시어의 기능		예
사물	개념적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	(1) 사실적 경관의 묘사	행장(行裝), 외나모, 드리, 장송(長松) 등
			(2) 관심 대상의 초점적 제시	만이천봉(萬二千峰), 명월(明月) 등
	조정적	대상의 의미 부각	(1) 사물의 가치와 속성의 부각	은(銀), 옥(玉), 부용(芙蓉), 백옥(白玉), 망고대(望高臺) 등
			(2) 사물의 문화적 상징성의 부각	궁왕(弓王), 오작(烏鵲), 급장유(汲長孺) 등
	변이적	표현의 청신성 획득		무지게, 호의현상(縞衣玄裳), 소향로(小香爐), 은하수

				(銀河水), 백련화(白蓮華) 등
공간	개념적	여정의 중층적 제시	(1) 초점적 공간을 통한 소회의 제시	관동(關東), 만폭동(萬瀑洞), 불정대(佛頂臺), 총석정(叢石亭) 등
			(2) 배경적 공간을 통한 선적 진행감 부여	백천동(百川洞), 금란굴(金蘭窟), 현산(峴山) 등
	조정적	공간의 가치 부각	(1) 기행 공간의 유교적 가치 부각	삼각산(三角山), 회양(淮陽), 목멱(木覓) 등
			(2) 기행 공간의 풍류적 가치 부각	서호(西湖), 선유담(仙遊潭), 구공(九空) 등
	변이적	다층적 의미 추구		여산(廬山), 두우(斗牛), 단혈(丹穴) 등
추상	개념적	독자의 상상 유도		풍채(風采), 형용(形容), 체세(體勢), 기상(氣像) 등
	조정적	서술의 완급 조절		고신거국(孤臣去國), 남여완보(藍輿緩步), 홍장고사(紅粧古事) 등

[표 3] 명사 시어의 유형에 따른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의의는 첫째, 시어의 의미 유형에 따라 시적 진술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같은 공간 시어라고 할지라도, 어떤 시어들은 지리적인 위치를 제시하고, 화자의 공간적 이동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반면, 어떤 시어들은 공간의 삼차원적인 범위보다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사물 시어와 추상 시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둘째로, 시어의 의미는 텍스트 전체의 맥락과 영향 관계를 맺으면서 실현되고, 시어 단일의 의미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분석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 영역과 의미 실현 유형의 시어라고 하더라도, 전경화 원리에 의해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시적 진술의 구심점이 되는 시어가 있는 반면, 배경적으로 활용되는 시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어의 의미 유형은 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분석이 교육 내용 및 방법에 활용되는 양상은 Ⅳ장에서 구체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Ⅳ.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설계

고전시가 텍스트의 효과적인 이해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해독에 투입되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Ⅲ장에서는 명사 시어의 의미 유형이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과 관련을 지니며, 명사의 유형별로 기행 체험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다름을 보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의 분석 결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명사 시어 중심의 고전 시가 이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Ⅲ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시어가 핵심적인 시어들을 선별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1.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목표

<관동별곡>의 경우 실제의 교육 현장에서 문학적 텍스트보다는 사실적 기록을 담은 정보적 텍스트로서 교육되는 장면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방적 정보 전달의 교수 학습이 흔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관동별곡>의 시어들이 담고 있는 방대한 정보량들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앞서 Ⅲ장에서의 시어의 의미 유형 분류는 시어의 의미에 작용하는 작품 텍스트의 내·외적 맥락을 고려하여 실현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세심하게 분류된 시어의 의미 유형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관동별곡>의 텍스트가 단순한 개념적 지식의 나열이 아닌, 문학 작품으로서 심미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으며, <관동별곡>의 텍스트를 사실적·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작품 속 시어들이 텍스트를 미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다양한 층위의 의미로 실현되는 방식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로, 고전 시가 교육에서 문제시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한자어와 고어(古語)로 가득한 텍스트의 문면 해독에 교육이 매몰되어 있어 작품이 담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의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대의 맥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을 선행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독자들과 동일한 관점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고전 시가 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바는 학습자들의 해석의 지평을 열어두면서도, 학습자들의 지평이 고전 문학과 관계 맺고 만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131]

<관동별곡>은 학습자들과 거리가 있는 관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재의 학습자들과 맞닿아 있으며 익숙한 '여행'이라는 체험을 다루고 있는 기행 문학이기도 하다. 여행의 모티프가 학습자들이 작품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작용할 수도 있음에도 학습자가 <관동별곡>에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작품에 나타난 기행 체험을 '기행 체험'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시어 의미 분류를 중심으로 한 <관동별곡>의 교육에서는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에서 초점화되고 부각된 시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들이 <관동별곡>에 나타난 기행 체험을 '기행 체험' 그 자체로 인식하고 학습자들이 작자의 체험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두 번째 목표로 삼는다. Ⅲ장에서 살폈듯이, <관동별곡>의 여정과 소회의 진술은 초점화된 개념적 공간 명사와 초점화된 개념적 사물 시어들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부각된 시어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관동별곡>에 나타난 여행의 과정을 머릿속으로 구상하

131) 정기철, 「기행가사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 『한남어문학』 25,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1, 203면.

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관동별곡>의 텍스트에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을 일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관동별곡>에서 기행의 과정만을 강조하게 되면 <관동별곡>에 나타난 시적 상상력과 언어 표현의 묘(妙)를 감상하는 것은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관동별곡>은 은유를 통한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작품으로서 '상물지묘(狀物之妙)'의 문학으로 여겨지는데,[132] 비유적인 표현이 <관동별곡>의 언어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비유적 표현은 작자 개인의 창의적인 언어 사용 방식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회·문화적 관점 또한 반영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언어 세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우리를 연꽃에 비유하고 폭포를 용의 꼬리에 비유하는 <관동별곡>의 표현들은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비유의 방식으로서, 학습자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갈 수 있고, 고전문학에 나타난 언어 세계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Ⅲ장에서 살폈듯이 <관동별곡>의 시어의 의미 유형 중 변이적 시어는 <관동별곡>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어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세 번째 목표는 이러한 비유적 의미의 시어들을 통해 <관동별곡>이 형상화 해내고 있는 언어세계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정리하면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시어가 텍스트에서 다층적인 의미로 실현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각된 시어를 통해 기행 체험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학습자들이 비유적인 시어를 기반으로 <관동별곡>에 나타난 언어세계를 감상하는 데 있다.

2.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내용

132) 염은열, 앞의 글, 1999, 64-65면.

인지주의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자들의 정보처리 과정에 깊은 관심을 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간의 뇌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다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학습자들의 정보처리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교수-학습 전략을 찾고자 한다. 작품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시어 또한 학습자들이 처리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는데,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휘들을 추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도가 낮은 어휘의 의미를 애써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따금 회피하여 넘어가는 전략적인 읽기가 오히려 모든 어휘 각각의 의미를 확인하는 전략보다 텍스트를 매개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텍스트 읽기 전략에서의 '회피 전략'[133] 역시 문학 텍스트 속 시어에 있어서도 교육 내용의 선별이 고전시가 텍스트 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자들이 적절한 회피 전략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어떤 시어들이 텍스트 이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텍스트 이해에 핵심적인 시어들은 Ⅲ장에서 시어의 의미 유형이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과 맺는 관계를 바탕으로 추출할 수 있다.

앞선 Ⅲ장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는 선적인 여정의 흐름과 정지적인 소회를 직조(織造)하여 기행 체험을 중층적으로 서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관동별곡>의 전체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는 개념적 공간 명사 중에서도 초점화된 공간 시어들이었다. 따라서 초점화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은 <관동별곡>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어들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별되어야 할 시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시어들은 개념적 사물 시어들 가운데서 초점화된 사물 시어들과 어우러져서 핵심적인 경관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면 '불정대(佛頂臺)'-'폭포(瀑布)', '의상대(義相臺)'- '일출(日出)'과 같이 초점화된 공간과 초점화된 사물이 짝지

133) 차경미, 「국어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7면.

어지며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초점화된 공간과 초점화된 사물 시어, 즉 부각되는 실체 명사 시어들은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초점화된 개념적 공간명사들은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의 복합적인 서술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관동별곡> 의 기행 체험을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앞선 진술 양상 분석에 따르면 변이적 사물 명사들은 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관동별곡>에 나타난 은유 표현들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어들로, 사물 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작품 속의 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시어들이었다.[134]

마지막으로 <관동별곡>에서 당대의 문화적 배경과 작자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시어들은 조정적 공간 명사와 조정적 사물 명사들로서, 작품의 다층적인 의미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관동별곡>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작자의 기행 체험이라고 하였을 때, <관동별곡>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들은 '(초점적) 개념적 공간 시어', '(초점적) 개념적 사물 시어', '변이적 사물 시어', '조정적 공간 시어', '조정적 사물 시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밖의 유형의 시어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관동별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어의 의미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관동별곡>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텍스트를 처음 접하는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인지적인 부담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선별되어야 하는 시어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고, 텍스트의 시적 진술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어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어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우

134) 변이적 공간 명사 또한 변이적 사물 명사와 마찬가지로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기는 하지만, 변이적 공간 명사는 그 수가 4개로 적어 작품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변이적 사물 시어에 비해 낮다고 보았다.

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이 작품에 흥미와 재미를 느낀다면, 다른 시어들에 대한 교육도 이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의 유형들 중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교육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어와 교육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어를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상대적 중요도 낮음	상대적 중요도 높음
● (비초점적) 개념적 공간 시어	● (초점적) 개념적 공간 시어
● (비초점적) 개념적 사물 시어	● (초점적) 개념적 사물 시어
● 변이적 공간 시어	● 변이적 사물 시어
● 개념적 추상 시어	● 조정적 공간 시어
● 조정적 추상 시어	● 조정적 사물 시어

[표 4]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에 따른 핵심적 시어 의미 유형 추출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시어들을 기준으로 <관동별곡>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면, 먼저 '(초점적) 개념적 공간 시어'와 '(초점적) 개념적 사물 시어'는 여정의 흐름의 중심이 되고 전경화의 원리에 따라 진술에서 부각되는 시어이므로 해당 시어를 통해서는 화자의 기행 체험의 흐름을 파악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로, '변이적 사물 시어'는 비유를 통한 참신한 경물 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은유적 표현의 생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적 공간 시어'와 '조정적 사물 시어'는 작자의 가치관과 문화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시어이므로 텍스트의 심층 의미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구상해볼 수 있다.

1) 개념적 공간 중심의 공간의 초점화

가사 작품들 중에서도 기행가사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정에서의 체험을 형상화"하는 기행 문학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135] 기행가

사의 진술 과정은 이른바 '준비-도정-도착-회정'의 커다란 틀을 통해 이루어진다.[136] 이와 더불어, <관동별곡>을 향유했던 조선조 문인들의 수용 양상을 살펴보아도, <관동별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노정의 흐름과 자연미의 완상이었다. 권섭(1671~1754)의 경우 <관동별곡>에 나타난 지역을 직접 여행하며 직접 경험한 경관이 관동별곡의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를 기록으로 남기며 사실적 자연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서포 김만중(1637~1692) 또한 <관동별곡>을 한역시로 남기며 <관동별곡>의 출발 부분을 축소하고, 왕정 수행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여 자연미에 집중된 작품 수용의 양상을 보였다.[137] 정리하자면,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기행가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노정(路程)'의 과정과 그를 중심으로 한 경관의 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관동별곡>의 가장 주요한 내용적 특성이 '여행'의 체험으로 대표된다면, 기행 문학을 기행 문학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나타난 공간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구성하여, 공간을 통해 환기되는 심리적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138]

그러나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자들이 기행가사에 나타난 공간을 '공간'으로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관동별곡>에는 고유명 지명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쿠이(Y. Kui)에 따르면, 고유명사는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언중(言衆)들이 공통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거나 확정 짓지 못한다면 고유명사는 언어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고, 그 지시적 의미를 실현하지 못한다.[139] 즉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지리적 상상을 가능케 하였던 '풍악(楓嶽)',

---

135) 박영주, 앞의 글, 2015, 219-239면.
136) 위의 글, 같은 면.
137)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209; 333-334면.
138) 고정희, 「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 『선청어문』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524면.
139) Y.Kui, "The Reference and Content of Proper Names: A Social and Pragmatic Approach", A doctoral dissertationof philosophy i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6, p.182.(이홍식, 「고유명사의 의미와 지시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327-328면에서 재인용.)

‘개심대(開心臺)’ 등의 공간 명사들이 이러한 지명을 널리 사용하지 않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는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리적 심상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 텍스트가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간에서 가장 부각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을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 [113~118] 天根을 못내 보와 **望洋亭**의 올은말이 /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 又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딕 / 블거니 쌈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 銀山을 것거 내어 六合의 ᄂᆞ리는 듯 / 五月 長天의 白雪은 므ᄉᆞ 일고

예를 들어, ‘망양정(望洋亭)’ 위에서의 조망을 그린 113~118행을 보면, ‘望洋亭(망양정)의 올은말이’ 이후 화자의 공간적 이동을 암시하는 시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작중의 화자는 망양정에 올라 멈춘 상태로 정자 아래의 파도치는 바다의 장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단락에서 학습자가 <관동별곡>의 노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망양정’의 뜻은 ‘망양정(望洋亭)’이 ‘관동팔경의 하나로 꼽히고’,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해 있다는’ 등의 백과사전적 정보보다는 화자가 오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140] 이러한 의미는 <관동별곡>에서 ‘동산(東山)’, ‘삼각산(三角山)’, ‘목멱(木覓)’ 등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는 조정적 공간 명사들과는 달리 개념적 공간 명사가 지니는 본래적 특성인 삼차원적인 범위의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

140) 물론 ‘망양정(望洋亭)’또한 앞서 언급한‘망고대(望高臺)’와 마찬가지로 한자 형태소를 분석하면 ‘바다를 조망(眺望)하는 정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장자(莊子)』 외편 「추수(秋水)」에 나오는 ‘넓은 바다를 보고 자신의 미흡함을 부끄러워 한다는’ ‘망양지탄(望洋之嘆)’과도 연결하여 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러한 지식은 학습자의 한자 지식을 전제로 하며 <관동별곡>의 파도의 경관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이므로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한데, 앞서 살폈듯이, 모든 개념적 공간 명사들이 중요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층위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058~065] **摩訶衍 妙吉祥 雁門재** 너머디여 / 외나모 뻐근 ᄃᆞ리 **佛頂臺** 올라ᄒᆞ니 / 千尋 絶壁을 半空애 셰여 두고 / 銀河水 한 구ᄇᆡ롤 촌촌히 버혀 내여 / 실ᄀᆞ티 플텨 이셔 뵈ᄀᆞ티 거러시니 / 圖經 열두 구ᄇᆡ 내 보매ᄂᆞᆫ 여러히라 / 李謫仙 이제 이셔 고텨 議論 ᄒᆞ게 되면 / 廬山이 여긔도곤 낫단 말 못 ᄒᆞ려니

앞서 Ⅲ장의 논의에서는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재(雁門)재', '불정대(佛頂臺)'가 모두 개념적 공간 명사에 속해 있지만 이후 후술되는 공간이 모두 '불정대' 위에서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의 세 시어를 배경적 시어, '불정대'를 초점화된 시어로 나누었다. 즉 위의 단락에서 <관동별곡>을 단순히 작자가 어떤 공간을 다녀왔는지의 정보를 습득하는 사실적인 지식의 텍스트가 아니라 작자의 노정을 상상해보고 공간에 대한 체험을 추체험할 수 있는 문학적 텍스트로 느끼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공간은 '불정대'이다. 배경적으로 제시된 개념적 공간 시어는 율격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시적 진술에 있어서 역동성을 부여하는 역할은 하지만, 기행 체험의 추체험에 있어서는 공간에 대한 술회가 나타나는 초점화된 공간이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사물 명사에 있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감흥을 이끌어내는 초점적인 경물(景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관동별곡>의 기행 체험 이해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084~092] 梨花ᄂᆞᆫ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 洛山 東畔으로 義相臺예 올라 안자 / **日出**을 보리라 밤 듕만 니러ᄒᆞ니 / 祥雲이 집피ᄂᆞᆫ 동 六龍이 바퇴ᄂᆞᆫ 동 / 바다ᄒᆡ 써날 제ᄂᆞᆫ 萬國이 일위더니 / 天中의 티ᄯᆞ니 毫髮을 헤리로다 /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詩仙은 어ᄃᆡ 가고 咳唾만 나맛ᄂᆞ니 / 天地間 壯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홀셔이고

예를 들어, 위의 84~92행의 단락은 “義相臺예 올라 안자”라는 표현을 통해 ‘의상대’라는 초점적 공간에서 내려다 본 경관에 관한 화자의 술회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화자가 중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여러 경관 중에서도 ‘일출(日出)’ 로서, ‘해’에 대한 묘사와 그에 대한 화자의 감흥이 시의 내용을 조직하는 데 구심점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관동별곡>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점화된 개념적 공간 시어를 중심으로 하여 공간을 초점화한 후, 그 후 공간에 속하는 주요 경물들을 나타내는 시어들의 세부적인 이해를 통해 여정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변이적 사물 중심의 은유의 생성

변이적 사물 명사들은 <관동별곡>의 은유적 표현의 주축을 이루면서 텍스트에 나타난 표현의 참신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변이적 사물 명사들은 독자로 하여금 기행 공간을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은유적인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면의 의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대상들이 어떤 유사성을 매개로 결합이 되었는지를 상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13~118] 天根을 못내 보와 望洋亭의 올은말이 /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신고 / 又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딕 /블거니 쓤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 銀山을 것거 내어 六合의 ᄂᆞ리는 듯 / 五月 長天의 白雪은 므ᄉᆞ 일고

113~118행의 망양정에서의 조망을 다시 살펴보면, ‘망양정’에서 내려다 본 경관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래’라는 변이적 사물 명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블거니 쓤거니 어즈러이 구는’ 것 또한 파도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표현이며, ‘은산(銀山)을 것거

내어 육합(六合)의 ᄂᆞ리ᄂᆞᆫ ᄃᆞᆺ'은 파도의 하얀 물줄기의 색채와 파도의 거대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五月(오월) 長天(장천)의 白雪(백설)은 므ᄉᆞ 일고' 또한 파도가 만들어내는 하얀 물방울들의 색채에 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래'와 '파도'의 유사성을 찾아내고, 위의 은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망양정에서의 공간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구체화할 수 없다. 즉, 변이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가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19~125] 져근덧 밤이 드러 風浪이 定ᄒᆞ거ᄂᆞᆯ / 扶桑 咫尺의 明月을 기ᄃᆞ리니 / 瑞光千丈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 珠簾을 고텨 것고 玉階ᄅᆞᆯ 다시 쓸며 / 啓明星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蓮花** ᄒᆞᆫ 가지ᄅᆞᆯ 뉘라셔 보내신고 / 일이 됴흔 世界 ᄂᆞᆷ대되 다 뵈고져

119~125행과 같은 경우에도, '백련화(白蓮花)'를 문면 그대로 '흰 연꽃'으로 이해하게 되면 '明月을 기ᄃᆞ린'다는 시적인 상황이 다소 어색해진다. 이때의 '백련화'는 흰 연꽃에 하얀 달의 모습을 은유한 것으로서,[141] 백련화와 달의 은유를 이해하는 것은 표현의 재미를 느끼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적인 상황과 흐름을 매끄럽게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처럼, 변이적 사물 시어들은 시적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변이적인 사물 시어들은 여정의 흐름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은유적 표현들은 "발화 의미와 문자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 중 하나로서, 축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 간의 긴장이 발생하여 필연적으로 독자의 해석이 요구되는 표현들이다.[142] 이러한 적극적인 해석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동별곡> 이해 교육에 있어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선별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관동별곡>이 그려내고 있는 언어 세계를 이해하고 <관동별곡>

141) 전영진 주해, 『송강가사·다산시선』, 홍신문화사, 1995, 38-39면.
142) 남민우, 「은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264면.

을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 체험하게 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

3) 조정적 공간·사물 중심의 심층 의미의 이해

기행가사에서 기행 체험은 공간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과 작자의 감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장소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곳이기도 하다.[143]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문화적으로 형성되며, 이로써 공간은 개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 된다.[144] 또한 <관동별곡>의 문학적 가치는 단순히 언어의 묘미를 잘 살린 표현성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인들의 사회적 이념과 문화적 요소들을 기행 공간의 흥취와 잘 조화하였다는 데에도 있다.[145]

특히, 조정적 공간 및 조정적 사물 시어들은 어휘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가치나 속성을 강조하는 의미 실현 양상을 보이므로, 당대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당대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시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적 공간·사물 명사 시어와 조정적 공간·사물 명사 시어의 예를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개념적 공간 명사	2관동(關東) 6평구역(平丘驛) 23금강대(金剛臺) 52사자봉(獅子峯) 85의상대(義相臺) 113망양정(望洋亭) 129동해(東海)
조정적 공간 명사	1강호(江湖) 11삼각산(三角山) 14회양(淮陽) 26서호(西湖) 47동산(東山) 47태산(泰山) 48노국(魯國) 65여산(廬山) 82선유담(仙遊潭) 82영랑호(永郎湖) 108목멱(木覓) 143구공(九空)
개념적 사물 명사	53너러바회 68영롱벽계(玲瓏碧溪) 68수성제조(數聲啼鳥) 70정기(旌旗) 71고각(鼓角) 71해운(海雲) 72명사(明沙) 72물 74벗 76기동 84이화(梨花) 84

143) 염은열, 앞의 글, 2006, 101-102면.
144) 위의 글, 같은 면.
145) 박영주, 앞의 글, 1994, 76면.

	졉동새 등
조정적 사물 명사	12궁왕(弓王) 15급장유(汲長孺) 56삼일우(三日雨) 74백구(白鷗) 76백옥루(白玉樓) 77공수(工倕) 80단서(丹書) 91시선(詩仙) 104절효정문(節孝旌門) 121서광천장(瑞光千丈) 등

[표 5] 공간・사물 명사에서 개념적 시어와 조정적 시어 비교

물론, 개념적 공간 명사나 개념적 사물 명사가 어휘 그 자체로 문화적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접동새[子規]'의 경우 촉(蜀)의 망제(望帝) 고사에서 유래하여 피를 토하며 우는 원한, 절절한 슬픔 등을 전형적으로 의미하며 이러한 상징성을 시인들이 즐겨 사용하였으나,[146]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두드러지지 않아 개념적 사물 명사로 분류하였다. '졉동새'가 등장하는 '梨花(이화)는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 洛山(낙산) 東畔(동반)으로 義相臺(의상대)예 올라 안자' 구절 이후의 시적 진술은 모두 의상대 위에서의 일출(日出)과 관련이 있는데,[147] 이 때의 접동새는 전형적인 상징성보다는 '~ㄹ 제'와 관련하여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과 관련된 시어로 살피는 것이 보다 시어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148]

한편, 개념적 시어들이 어휘와 관련된 관습적 속성을 모르더라도 시적 진술을 이해하는 데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데 비해, 조정적인 시어들은 시어가 내포하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가 작품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

146) 여기현, 「<정과정>의 향유 양상과 "접동새"의 문학적 변용」, 『반교어문연구』 27권, 반교어문학회, 2009, 89면.

147) [084~092] 梨花는 불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 洛山 東畔으로 義相臺예 올라 안자 / 日出을 보리라 밤 듕만 니러ᄒᆞ니 / 祥雲이 집피는 동 六龍이 바퇴는 동 / 바다히 써날 제는 萬國이 일위더니 / 天中의 티쓰니 毫髮을 헤리로다 /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詩仙은 어딕 가고 咳唾만 나맛ᄂᆞ니 / 天地間 壯ᄒᆞᆫ 긔별 ᄌᆞ셔히도 ᄒᆞᆯ셔이고

148) 김창원은 <관동별곡>의'접동새'를 <정과정곡>과 관련지어 작자의 자기인식이"임금으로부터 버림받은 신하"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텍스트의 맥락으로부터 연결된 수렴적인 의미가 아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김창원, 「<關東別曲>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27, 한국시가학회, 2009, 134-135면 참조.)

[073~074] 바다홀 겻터 두고 海棠花로 드러가니 / **白鷗**야 ᄂᆞ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ᄂᆞᆫ

위의 단락에서 '백구'는 문자적으로는 '흰 갈매기'를 지칭하지만, 백구를 '벗'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문장 정보와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 '백구'에 관련한 당대의 관습적인 사용을 참조하여, 위의 구절에서는 자연을 진정으로 완상하고 즐기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한 시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백구'는 흰 갈매기의 동물로서의 생태만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 시적인 흐름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시어이다.

[119~121] 져근덧 밤이 드러 風浪이 定ᄒᆞ거ᄂᆞᆯ / **扶桑** 咫尺의 明月을 기ᄃᆞ리니 / 瑞光千丈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 瑞光 千丈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고야 / 珠簾을 고텨 것고 玉階ᄅᆞᆯ 다시 쓸며 / 啓明星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蓮花 ᄒᆞᆫ 가지ᄅᆞᆯ 뉘라셔 보내신고

119~121의 '부상(扶桑)' 또한 문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시적 흐름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이다. '부상(扶桑)'은 『산해경(山海經)』의 '탕곡지유부상(湯谷之有扶桑)'에서 유래한 말로, 『산해경』에는 '탕곡(湯谷)'에 있다고 여겨진 이 부상수(扶桑樹)가 물속에 잠겨 살며, 해가 이 부상수 위에서 목욕을 한 후에 물 위로 나와 해가 뜬다는 전설이 있는데,[149] 이로써 '부상'은 '해가 뜨는 동쪽의 바다'라는 관습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부상'은 이처럼 당대인들의 문화적인 지식과 지적인 교양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적인 공간을 '동쪽 바다'인 '동해'로 한정하고, 전설을 매개로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시어가 된다.

이처럼 송강 정철은 작자의 이념이나 관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를 연상시키는 사물들을 동원하여 완곡한 표현을 하는데,[150] 따라

149)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81면.
150) 박영주, 앞의 글, 1994, 87면.

서 조정적 공간·사물 명사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어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 관습, 텍스트 문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조정적 공간·사물 명사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또한 이 의미 유형에 해당되는 시어들은 문화적인 지식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 텍스트의 이해를 통해서 시가 담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교육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3. 시어의 의미 분류 중심의 <관동별곡> 교육의 방법

앞서 2절에서는 Ⅲ장에서의 시어의 의미 유형과 그에 따른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에 근거하여 핵심적인 시어의 유형에 기반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이 절에서는 앞서 각각의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1) 공간 시어와 비공간 시어의 비교 활동

앞선 논의에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이 <관동별곡>에 나타난 기행 체험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임을 보였다.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들의 경우, 시어가 담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보다는 지시성이 높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많은 배경지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점화된 공간·사물을 중심으로 한 여정의 흐름 이해라는 교육 내용은 <관동별곡>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될 수 있다.

개념적인 시어가 1차적인 의미로 실현되어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지금까지의 학습자들이 <관동별곡>의 여정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명들이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어 그 표기 방식 면에서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관동별곡>에 나타난 공간들의 한자어·고유어

사용 양상을 분석해본 결과, ‘하늘’, ‘바다’, ‘길’ 등 적은 수의 시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간 명사들이 한자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학습자들이 공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기호와 기호가 가리키는 지시체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교과서에서도 몇몇 주요한 지명들에 밑줄을 긋거나 색칠을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지명을 강조해놓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151] 강조한 시어와 그렇지 않은 시어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다. 쿠이(Y. Kui)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유명사와 지시체 사이의 의미가 언중들에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통해 누적되어 집단 내에서 인정되는 약속이 필요한데,[152] 고전시가 작품이 생산된 맥락에서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기호와 지시체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호와 지시체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관동별곡>에 쓰인 무수히 많은 공간과 사물 명사 중에서 어떤 시어가 시적인 진술에서 부각되고 핵심적인 시어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 또한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장해가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들이 노정(路程)의 흐름을 시각적인 단서를 통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가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단락의 구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락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정과 소회의 중층적 구조라는 <관동별곡>의 진술 양상에서 핵심이 되는 초점화된 공간 명사와 초점화된 사물 명사이다.

<관동별곡>의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에 따른 기행 공간이 초점화 되는 양상을 도식화하면, 우선, 서사에서 작품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관동(關東)’의 800리의 공간이 먼저 제시된 후, 산을 중심으로 한 ‘풍악(楓岳)’으로의 여정과 바다를 중심으로 한 ‘동해(東海)’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공간이 제시되지 않는 월출과 꿈속 세계에 대한 체험

151) 류수열 외, 고등학교『국어』, 금성출판사, 2018, 335면.
152) Y.Kui, 앞의 글, 182면.

으로 커다란 네 단락으로 텍스트가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단락의 구분은 기존의 주석서들이 보편적으로 택하고 있는 구분이지만,[153] 본고의 초점화된 공간과 사물을 중심의 구분에서 세부적인 단락들의 구분이 기존의 주석서와 다소 달라지게 된다.

기존의 단락 구분[154]		본고의 단락 구분	
<1>	서사(序詞)	<A>	**A. 시적 공간의 제시(관동(關東)) 및 부임지까지 이르는 과정의 간략한 서술**
	부임도중(赴任途中)		
<2>	연군(戀君)과 회구(懷舊)		
	만폭동(萬瀑洞)	<B>	**B. 풍악(楓岳): 금강산으로의 유람 예고**[155]
	금강대(金剛臺)		B-1. 만폭동(萬瀑洞)에서의 조망: 폭포와 학
	진헐대(眞歇臺) 상의 조망(眺望)		B-2. 진헐대(眞歇臺)에서의 조망: 망고대와 혈망봉
	개심대(開心臺) 상에서 만이천봉을 바라봄		B-3. 개심대(開心臺)에서의 조망: 만이천봉과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
	개심대(開心臺) 상에서 비로봉(毗盧峯)을 바라봄		
	만폭동(萬瀑洞), 제8담(潭) 화룡연(火龍淵)		B-4. 사자봉(獅子峯)에서의 조망: 화룡소
	십이폭포(十二瀑布)		B-5. 불정대(佛頂臺)에서의 조망: 십이폭포
<3>	유점사(楡岾寺) 산영루(山影樓)를 지나서 동해(東海)로 감	<C>	**C. 동해(東海): 외·해금강 및 동해안 유람 예고**
			C-1. 산영루(山瑛樓)에서의 조망과 동해안으로의 이동
	총석정(叢石亭)		C-2. 총석정(叢石亭)에서의 조망
	삼일포(三日浦)		C-3. 삼일포(三日浦)에서의 조망: 단서(丹書)
	낙산동반(洛山東班) 의상대(義湘臺)에서 일출을 바라봄		C-4. 의상대(義相臺)에서의 조망: 일출(日出)
	강릉(江陵)·경포(鏡浦)		C-5. 경포(鏡浦)에서의 조망: 경포호수
			C-6. 강릉(江陵)의 풍속
	죽서루(竹西樓)		C-7. 죽서루(竹西樓)에서의 조망: 오십

153) 김사엽 주해, 앞의 책; 김성배 외, 앞의 책; 박성의 주해, 앞의 책 참조.
154) 박성의 주해, 앞의 책.
155) 박성의는 내금강유람의 시작을 8행부터로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16행부터

			천(五十川)
	망양대(亡羊臺)에서 동해(東海)를 바라봄		C-8. 망양정(望洋亭)에서의 조망: 동해(東海)
<4>	몽중(夢中)에 이적선(李謫仙)이 되어서 놂	<D>	D-1. 월출 D-2. 꿈 속 체험

[표 9] <관동별곡>의 단락 구분 방식 비교

기존의 <관동별곡> 단락 구분과 본 연구에서의 단락 구분의 제일 큰 차이점은 기존의 구분이 텍스트를 네 단락으로 구분하고 하위의 세부적인 단락들에 있어서는 층위를 구분하지 않은 것과 달리, 본고의 구분에서는 서술의 세부적인 층위를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구분에서는 제1, 2, 3단이 각각 '관동(關東)', '풍악(楓岳)', '동해(東海)'라는 넓은 공간적 영역을 포괄하는 초점적 공간 명사로 구분 지어짐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정의 중심이 되는 제2, 3단에서는 공간 명사를 기준으로 소단락에 제목을 붙여 여정의 중심이 되는 공간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로 보았다. 이는 정재호·장정수에서 "금강산(金剛山)의 행보(行步)"를 16행부터로 본 것과 일치한다. 다만, 정재호·장정수는 <관동별곡>의 구조 분석에 있어서 네 단락의 구분을 하지 않았으며, 공간과 사물 명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정재호·장정수의 단락 구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68-69면.)

1. 서사(序詞)
2. 군왕(君王)에게 하직(下直)
3. 부임(赴任)의 행로(行路)
4. 동주(凍州)와 회양(淮陽)
5. 금강산(金剛山)의 행보(行步)
   1) 영중(榮中)의 무사(無事)
   2) 만폭동(萬瀑洞)
   3) 금강대(金剛臺)
   4) 진헐대(眞歇臺)
   5) 망고대(望高臺)와 혈망봉(穴望峰)
   6) 개심대(開心臺)와 만이천봉(萬二千峰)
   7) 비로봉(毗盧峯)
   8) 화룡소(火龍沼)
   9) 불정대(佛頂臺)
   10) 동해(東海)의 길
   11) 총석정(叢石亭)
6. 동해안(東海岸)의 행보
   1) 삼일포(三日浦)
   2) 의상대(義相臺)
   3) 강릉(江陵)
   4) 진주관(進奏官)
   5) 망양정(望洋亭)
7. 밤의 세계
   1) 백련화(白蓮華)
   2) 꿈의 세계
8. 결사(結詞)

있도록 하였다.[156]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류에서는 <관동별곡>의 제1단락을 세부적인 단락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단락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제1단락에서의 시적인 진술이 작중 화자의 배경 및 신분, 문화적 소양 등을 강조하여 이후 전개될 여정의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되[157], 작자의 본격적인 여정의 진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학습자들이 공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은 단락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제목을 붙이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폭동(萬瀑洞)'의 장관을 표현한 단락에서는 '만폭동에서의 조망'과 같은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에서'는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處所)"임을 알려주는 격조사인데,[158] 이러한 조사의 문법적 의미 단서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해당 단락에서 화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초점화된 사물이 존재할 경우, '사자봉에서의 조망: 화룡소'와 같이 부제를 달아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단락의 구분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단락의 중심이 되는 공간 시어들과 비공간(非空間) 시어들의 영역을 비교해볼 수 있다. 특히 개념적 공간 시어와 개념적 사물 시어는 모두 물질적인 세계와 관련성이 깊은 시어이면서도 시어가 포괄하는 세계의 영역이 삼차원적인 공간이냐 삼차원적 공간을 조경하는 사물이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이러한 시어들의 의미 영역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서 화자

156) 기존의 연구에서 '만폭동, 제8담 화룡연, '십이폭포'로 이름 붙인 단락을 본 연구에서는 '화룡소'와 '십이폭포'는 공간이 아닌 사물 명사로 보아 각각 '사자봉'에서의 풍경과 '불정대'에서의 풍경으로 나누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만폭동'과 '금강대'의 단락을 분리한 것과 달리, 본고는 '만폭동'에서 '금강대'로의 시선의 이동은 있으나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암시하는 시어가 부재한다는 것, 만폭동과 금강대의 지리적인 거리가 가깝다는 점에 근거하여 '만폭동'과 '금강대'를 하나의 단락으로 묶고, '금강대'의 풍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금강대'라는 누대 자체라기보다 '학'이라는 사물이라는 점에서 단락의 제목을 '만폭동(萬瀑洞)에서의 조망: 폭포와 학'으로 붙였다.

157)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130면.

158) 국립국어원, 「에서」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60166&searchKeywordTo=3, 2021년 4월 22일 접속.

의 이동 과정과 시선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어들 사이의 의미 비교는 시어가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단어의 내재적인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어가 작품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시적인 맥락과 통사적인 정보들에 의해서 변화한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습자들에게 시어와 관련한 사전적(辭典的)인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　　) 위에서의 풍경
금란굴 돌아 들어 총석정 올라ᄒᆞ니 백옥루(白玉樓) 남은 기둥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수(工倕)의 셩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듬은가 구ᄐᆞ야 육면(六面)은 므어슬 상(象)톳던고[159]

159) 표기법에 대한 지식이 학습자에게 '전제적 요구'가 된다는 점에서 원전의 표기 방법에 대한 문제는 교육적인 논쟁의 거리가 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어절을 한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원문을 고쳤다.
①어절의 구분은 현대의 맞춤법에 준하여 고친다.
②발음 면에서 현대어와 차이가 없는 것은 현대어 표기로 적는다.
③한자어는 현대의 한자음을 따른다.
④이어적기로 표기된 것은 끊어적기 하여 적는다.
⑤사라진 음운 표기는 현대어로 고치되, 아래아(ㆍ)에 있어서는 아래아가 'ㅏ, ㅡ, ㅜ' 이외의 모음으로 바뀐 경우 원문의 표기를 따른다.
이 방식은 "고전(古典)에 적힌 어려운 글자만 현대 글자로 바꾸어 고전의 모습을 지키는 방법"(김향규, 「古典敎育의 問題點」, 『새국어교육』 7, 한국어교육학회, 1965, 2면.), "원전을 일부 수정하여 수록"하는 방법(박종성,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57-58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념적 공간 명사들은 한자의 어휘소 결합이 시어 의미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두 한자어의 노출을 피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어교육용 어휘 4등급 이내에 있는 어휘들은 학습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어휘로 보아 동음이의어가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한자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어교육용 어휘 등급은 총 7등급인데, 각 등급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기초어휘
- 2등급: 정규 교육 이전

예를 들어서, 총석정(叢石亭) 위에서의 풍경을 나타낸 위의 단락에서 '금란굴(金欄窟)'은 개념적 공간 명사 중에서 초점화되지 않은 공간 명사로서 단락의 중심이 되지 않는 배경적인 시어이며, '총석정(叢石亭)'은 화자가 시적 진술의 중심 공간으로 삼는 전경적인 시어이다. 그리고 '백옥루'는 이러한 중심적인 공간에서 화자의 시선의 초점이 되는 돌기둥을 비유한 사물 시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공간 시어인 '금란굴', '총석정'과 사물 시어인 '백옥루' 사이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들에게 '돌아 들어', '올라ᄒᆞ니' 등 공간 시어와 관련된 술어들과 '서있다', '다듬다', '본뜨다' 등 사물 시어와 관련된 술어들을 의미 파악의 비계로서 강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금란굴'을 돌아 들어 '총석정'에 올라간 화자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요?"등의 자연스러운 언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언급은 대부분 고유명사에 속하는 개념적 공간 명사들의 의미 영역을 술어가 지니는 의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여 학습자들의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동별곡>에 나타난 초점화된 개념적 공간 명사 시어들이 '三日浦(삼일포)ᄅᆞᆯ ᄎᆞ자가니', '義相臺(의상대)예 올라 안자', '鏡浦(경포)로 ᄂᆞ려가니' 등 공간과 관련된 술어들과 함께 나타나고, 이러한 진술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여정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공간 명사와 비공간 명사의 의미를 비교하여 찾아내도록 하는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관동별곡>에 나타난 여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등급: 정규 교육 개시-사춘기 이전, 사고 도구어 일부 포함
- 4등급: 사춘기 이후-급격한 지적 성장, 사고도구어 포함
- 5등급: 전문화된 지적 성장 단계, 다량의 전문어 포함
- 6등급: 저빈도어: 대학 이상. 전문어
- 7등급: 분야별 전문어

즉, 이 어휘 등급에 따르면 고등학생 수준의 어휘는 4등급 이하의 어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김광해,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2003, 27면.)

2) 변이적 사물 시어의 시각화 활동

Ⅲ장과 Ⅳ장 2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변이적 사물 명사들의 경우 <관동별곡>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적 진술 양상과 관련하여, 변이적 사물 명사들의 경우 그 은유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형상성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다.

[019~022] 百川洞 겨틔 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 銀ᄀᆞᆮᆞᆫ **무지게** 玉ᄀᆞᆮᆞᆫ **龍의 초리** / 섯돌며 ᄲᆞᆷᄂᆞᆫ 소릐 十里의 ᄌᆞ자시니 / 들을 제ᄂᆞᆫ 우레러니 보니ᄂᆞᆫ 눈이로다

예를 들어, 위의 단락에서 '무지게'와 '초리'는 모두 변이적 사물 시어로서 폭포를 은유한 표현이다. 이 시어들은 표현의 다양성과 청신성을 위해 사용된 시어들로서, 이러한 시어들에 대해서는 문자적·사전적인 뜻풀이보다도 학습자들이 은유의 의미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지를 상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미의 전이 과정을 배제하고 은유가 가리키는 원관념만을 언어적인 주석으로 풀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난관이 존재한다. "A는 B이다."와 같은 은유는 단순히 B를 통해 A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A와 B가 서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일부의 특성을 교환함으로써 C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160]

예를 들어, '무지게'와 '龍의 초리'는 빛에 반사된 폭포의 다양한 빛깔과, 용과 같은 폭포의 거대함과 역동성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데, '무지게'와 '龍의 초리'를 단순히 '폭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하여 두 대상 사이의 일대일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게 된다면 학습자들은 '무지게'와 '龍의 초리'를 특수한 표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표현적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된다.

160) 남민우, 앞의 글, 261면.

또한, 언어적인 주석이 은유의 논리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小香爐 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에서 ‘소향로’와 ‘대향로’가 봉우리를 표현한 시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향로’의 개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향로’와 ‘봉우리’ 사이의 시각적인 유사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향로의 형태와, 향로와 봉우리의 형태적인 유사성은 언어로 풀이하기 어려운 자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들이 ‘향로’가 ‘봉우리’를 은유한 것이라는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고 하여도, 자신과는 무관한 과거의 수사적 표현으로만 받아들이게 될 뿐 학습자들에게 경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언어화 하여 풀어내기 어려운 은유적 표현들에 대해서는 시각·영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은유 교육을 논의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교육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박승희는 학교 현장에서의 은유 교육이 과도하게 언어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학습자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수사법”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은유 교육 학습 모형에서 ‘시각적 은유 읽기’를 통한 구체적 상황·시각적 이미지로부터의 은유의 기제 이해가 ‘언어적 은유 읽기’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1] 그에 따르면, 은유적 표현을 익히는 첫 단계는 ‘언어와 언어 사이의 연결’이 아닌,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연결’이다.[162] 이광복 또한 은유의 교수에 있어서 언어적·문학적·미디어적 차원의 통합적 교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며, 은유 교육에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주장하였다.[163] 이러한 연구들은 은유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의 연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학습자가 은유적인 표현을 단순히 수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은유가 경험과 경험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몸을 통해 익혀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

161) 박승희, 「대중매체의 교육적 수용과 은유 교육」,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4-8면.
162) 위의 글, 같은 면.
163) 이광복, 「미디어 시대의 시 교육-‘은유 교수법’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2009, 103면.

위와 같은 이유로 언어화하기 어려운 변이적인 사물 명사들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에게 최적의 수준으로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시에 나타난 언어를 직접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기행 공간을 상상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시각화(visualization)'는 주어진 내용을 학습자들이 그림이나 도식을 통해 표현하여 이해하는 '수단적 시각화(instrumental visualization)'로서 학습자들은 복잡한 내용을 시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직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164] 즉 은유를 개념적인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이미지의 연결로서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때, 고전시가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는 오늘날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므로, 시각화 활동에 앞서 비계로서 간단한 시각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각 자료의 정보량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학에서의 시각 자료의 제공 원리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시각 자료가 학습자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언어 자료와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텍스트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임을 인정하고 있다.[165] 다만, 이때 시각 자료를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시각 자료는 우선 텍스트와 동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시각 자료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는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관련성과 등가성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텍스트와 시각자료와의 관련성이 높고 등가성이 높은 경우에 학습자들이 자료가 제시된 텍스트의 중요성을 높게 판단하고, 텍스트 이해에 인지적인 노력을 투여하였다는 것이다.[166] 이때, 텍스

---

164) I. Rha, S. Choi, & S. Cho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visulization tendency test*, Proceeding of AACE Elearn, 2009, Vancouver, Canada. (김효원, 「시각화 활동 중심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8(4),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8, 76면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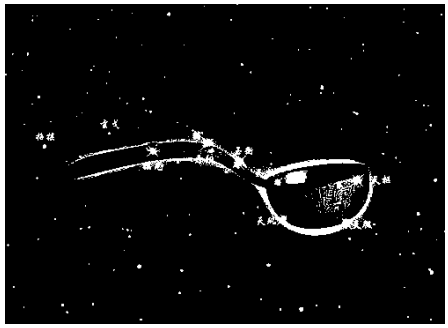
165) 최효선,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2016, 3면 참조.

166) 위의 글, 173면.

트와 시각 자료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텍스트로 표현할 수 없어 시각 자료가 필수적인 경우”를 의미하며, 텍스트와 시각자료의 등가성이 높은 것은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정보량이 등가 정도”인 것을 의미한다.[167]

아래에서는 이러한 자료 제공의 원리를 참고하여 <관동별곡> 의 ‘북두성’과 ‘창해수’의 은유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시각 자료의 예를 보이고자 한다. 각각의 시어에 대한 시각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제시되는 시각 자료가 텍스트의 내용과 등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두성’을 통해 텍스트에 비해 시각 자료의 정보량이 적은 시각 자료와 정보량이 과도한 시각 자료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정보량이 적은 시각 자료



정보량이 과도한 시각 자료

[표 7]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등가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왼편의 그림에서는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술잔에의 은유의 핵심이 되는 별자리의 모양이 시각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북두성’과 ‘술잔’ 사이의 유사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정보량이 적은 시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오른편의 그림은 북두칠성의 별자리 형상뿐만 아니라 술잔의 그림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에게 은유의 기제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은유적 의미를 학습자들이 추론하여 상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시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이적인 사물 시어의 의미와 관련한 시각 자료를 제시함에 있어서 표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대상 간의 유사성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자료를 비

167) 최효선, 앞의 글, 11면.

계로서 제공하되, 시각 자료가 은유의 결과까지 드러내서는 안 된다. 등가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본문과 함께 시각 자료를 제공하면 아래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

‘북두성(北斗星)’ 은 큰곰자리에 속하는 일곱 개의 별을 합쳐 이르는 말로, 흔히 ‘북두칠성(北斗七星)’ 이라고도 불린다. ‘창해수(滄海水)’ 는 넓고 푸른 바닷물을 뜻한다. 아래의 사진을 바탕으로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滄海水) 부어 내여” 를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북두성

창해수

[표 8] 텍스트와 시각 자료의 등가성을 고려한 시각 자료의 예

위의 자료에서는 우선 ‘북두성’과 ‘창해수’의 사전적인 지식을 언어로 간단하게 제공한 후에, ‘북두성’과 ‘술잔’, ‘창해수’와 ‘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사성을 추측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배치하였다.

또한, ‘북두성’과 ‘창해수’의 은유는 단순히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의 의미를 끌어와 표현하였다는 표현의 참신성 외에도 북두성과 창해수가 각각 아주 큰 공간적 범위를 지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초월적인 세계, 작자의 신선과 같은 배포라는 새롭게 창조된 의미를 암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부수적으로 고려하여 시각 자료에 밤 하늘과, 바다의 광활한 공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은유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시적인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변이적 명사 이해를 위한 비계로서의 시각 자료는 <관동별곡>의 경물 묘사의 중심이 되는 변이적 사물 명사들의 의미를 결과적인

지식이나, 수사법의 차원에서만 전달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이미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참여하여 시어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언어화하기 어려운 은유의 제3의 암시적인 의미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각 자료는 '술잔'이나 '술'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학습자들이 은유적인 의미를 상상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학습자들은 화자가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한편, 이것이 '북두성'이나 '창해수'와 같은 광활한 공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나름으로 관련지어 시각화여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서 <관동별곡>에 사용된 은유적인 표현들을 자신이 경험해 왔던 세계의 이미지 도구들을 통해서 통합적·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 활동

마지막으로는, 조정적 공간·사물 시어와 관련한 교육 방법으로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어가 담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를 당대의 시공간적 맥락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내용을 언어적 지식으로서 제공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 있어서 주석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교육에서의 주석은 어학에서 주석과 달리 주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작자의 창조적인 언어 예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문학적인 주석은 단어가 지니는 축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포나 함축 등 보다 넓은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168] 텍스트 맥락으로 인해 어휘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의미가 특히 어휘 주석의 내용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9] 또한, 교육적인 주석은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의 지식수준과 읽기 역량에 맞춘 주석 제공의 방식을

168) 고정희, 앞의 글, 2014, 361-362면.
169) 신윤경, 앞의 글, 43-62면.

세워야 한다.[170] 이때 학습자들이 추론할 수 있는 과도하게 명백한 내용을 제시하거나, 학습자들의 지식을 과대평가하여 너무 어려운 내용을 비계 없이 제공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171]

텍스트의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정적 공간·사물 명사 시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어와 관련된 모든 문화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학습자를 위한 핵심적 주석은 주석의 내용과 텍스트의 연계가 독자에 의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시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응집성이 높은 정보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052~057] 圓通골 ᄀᆞᄂᆞᆫ길로 獅子峰을 ᄎᆞ자가니 / 그 알ᄑᆡ 너러바회 化龍쇠 되어셰라 / 千年 老龍이 구ᄇᆡ구ᄇᆡ 서려 이셔 / 晝夜의 흘녀 내여 滄海예 니어시니 / 風雲을 언제 어더 **三日雨**를 디련ᄂᆞᆫ다 / 陰崖예 이온 플을 다 살와 내여ᄉᆞ라

예를 들어, 위의 단락에서 '삼일우(三日雨)'는 작자가 '화룡소'의 '용'이라는 연상의 매개를 바탕으로 떠올린 사물 명사이다. 화자는 먼저 '화룡소'의 풍경으로부터 '노룡(老龍)'의 모습을 연상해 내고, 이무기가 바람과 구름을 얻어 사흘을 내리는 비를 맞아 용으로 승천한다는 전설을 떠올린다. 또한 '삼일우'로부터 풀을 살리는 비의 속성을 추출하여 자신의 연상을 '陰崖예 이온 플'에 까지 이어가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삼일우'에 대해 '농사에 흡족한 비'를 주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172] 이는 시어의 연상 과정이 생략된 최종적인 의미를 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삼일우'와 '용' 사이의 연결고리와 문화적 지식을

170) Bauer and Zirker, "Explanatory Annotation of Literary Texts and the Reader: Seven Types of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Arts Computing,* 11(3), 2017, Edinburgh University Press for the Association for History and Computing, pp.212-232.
171) 위의 글, 같은 면.
172) 류수열 외, 고등학교『국어』, 금성출판사, 2018, 335면.

반영하지 못한 주석이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방식이다. ‘삼일우’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석은 연상의 촉발물이 되었던 ‘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풀이해야 하며, 이것이 이후의 ‘풀’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석의 제공 방식은 학습자들이 시어의 의미를 스스로 추론하고 탐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문자적인 의미와 조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촉발할 수 있다.

삼일우(三日雨): ①사흘을 내리는 비 ②이무기가 ‘풍운(風雲)’을 얻어 사흘을 내리는 비를 맞으면 용이 될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

[표 9] 주석 제공의 예-1

①은 ‘삼일우’의 문자적 의미이며, ②는 문맥에 의해 조정된 의미이다. 조정적인 의미는 Ⅱ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문자적인 의미의 연속선 상에서 맥락에 의해 특정한 의미가 부각된 의미이다. 문자적인 의미와 조정적 의미를 동시에 제공하되, 문자적인 의미와 조정적인 의미의 차이를 다른 시어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강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문자적인 의미와 조정적인 의미의 연결성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것이 학습자들에게 이해의 비계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계를 제공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발문을 통해서 조정적 의미를 기반으로 한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할 수 있다.

화자는 왜 ‘삼일우’를 얻어 ‘그늘에 시든 풀’을 살려내고 싶어하는 것일까? 화자가 바라는 인간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표 10]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의 탐구 활동 예-1

이처럼 시어의 조정적인 의미를 학습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비교해볼 수 있도록 문자적 의미와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작품의 구절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발문을 제공하는 탐구 활동은 시어 단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조정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활동에 있어서, 조정적인 의미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하여 탐구하도록 할 것인지 핵심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

[023~026] 金剛臺 믿 우 層의 仙鶴이 삿기치니 / 春風 玉笛聲의 첫잠을 씨돗던디 / 縞衣玄裳이 半空의 소소 쓰니 / 西湖 녯 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

예를 들어 위의 단락에서 시적인 화자가 '서호(西湖)'를 연상하게 된 연결고리는 문맥상 '학(鶴)'으로 볼 수 있다. '서호'는 송나라 때에 서호에 살던 은사(隱士) 임포(林逋)가 학을 사랑하기로 유명하다는 전고를 바탕으로 한 시어로, 전영진의 주석에서는 '서호 옛 주인'을 하나로 묶어 "송(宋)나라 때 서호에 가서 학을 아들 삼고 매화를 아내 삼아 사랑했다는 임포(林逋)를 말함."으로 주석하고 있다.[173] 한데, 이러한 주석은 <관동별곡>의 시적 맥락과는 관련성이 적은 정보인 '송나라'라는 시대적 배경과 '매화'라는 대상, 그리고 인물의 고유명을 포함하고 있어 연상의 매개체인 '학'과 '서호' 사이의 연결고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교사는 심층적인 탐구 활동 이전에 조정적인 의미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호(西湖): ①중국 절강성 항주(杭州)의 서쪽에 있는 호수 ②학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였던 옛날 중국의 선비 임포(林逋)가 살던 호수

[표 11] 주석 제공의 예-2

위와 같은 주석은 텍스트의 맥락에서 중심이 되는 사물인 '학'을 부각

173) 전영진, 앞의 책, 20-21면.

하고 '송나라'와 같은 부수적인 정보의 양은 줄임으로써 텍스트 이해를 위한 핵심적인 주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은 보다 텍스트를 분절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구조체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화자는 왜 '금강대'의 학을 보고 '서호'를 떠올린 것일까? '서호 옛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표 12]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의 탐구 활동 예-2

예를 들어 위의 활동에서 '금강대'와 '서호'를 연결하여 생각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공된 '서호'와 관련한 주석에서 조정적인 의미로 제시되었던 ②번 주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자들은 제공된 문자적 의미에서 조정적 의미로의 확장에 관여하는 매개물인 '학'을 통해 시어와 시어의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으며, 문자적 의미로부터 조정적 의미로의 의미 부각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다.

조정적 공간·사물 시어	전영진·장정수[174]	본고의 주석
A. 동산(東山), 태산(泰山)	**동산(東山)은 산동성(山東省) 읍창현에 있는 산이며, 태산(泰山)은 중국 산동성 태산현 북쪽에 있는 산. 『맹자』에** "공자께서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다고 하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다고 하였다." 라는 구절이 있음.	**중국에 있는 매우 높은** 두 산. 유학의 성인인 공자(孔子)는 동산에 올라서는 노나라를 작다고 하고, 태산에 올라서는 천하를 작다고 하였다고 한다.
B. 공수(工倕)	중국 **순(舜)임금** 때의 유명한_장인(匠人).	솜씨가 **귀신같기로** 유명한 옛날 중국 **전설 속** 장인.
C. 단서(丹書)	삼일포 남쪽 절벽에 **'영랑도남석행(永郎徒南石行)'** 이라고 쓴 여섯 글자의 붉은 글씨.	신라의 **사선(四仙)**이 남겼다고 하는 삼일포 남쪽 절벽 위의 붉은 글씨.
D. 비옥가봉(比屋可封)	**'즐비하게 늘어선 집들이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하다'** 는 뜻으로, **요순(堯舜) 시절**은 태평성대라 집집마다 모두	사람들의 성품이 착하여 모든 집에 벼슬을 주어도 될 만하였다던 전설 속 태평성대 **때의 일.**

174) 정재호·장정수, 앞의 책.

	효자와 충신으로 상줄 만하다는 데서 유래한 말.	

[표 13] 연구 주석서의 주석과 본고의 주석 비교

위와 같은 원리를 기반으로 시어의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의 탐구 활동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주석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석서의 주석을 중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가공한 예를 위의 표와 같이 간단히 보일 수 있다.

먼저, <A>의 '동산', '태산'과 관련한 주석에서 '산동성 읍창현'과 같은 구체적인 지리적 정보는 '동산'과 '태산'이 강조하는 가치와는 관련성이 낮으므로 삭제하고, '중국에 있는 매우 높은 두 산'으로 지리적 위치보다 높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학습자들은 '동산'과 '태산'의 높이에 대한 주석을 언급을 통해 '비로봉'의 높이와, 동산과 태산에 올랐던 공자의 경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때 『맹자』와 같은 문헌의 출처는 이해에 있어 불필요한 정보로 보아 삭제하고, 문헌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실었다. 또한 '동산'과 '태산'을 유교적 가치를 부각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자(孔子)'와 관련하여서도 '유학의 성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자연스럽게 공간의 내포적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B>에서는 '순 임금'이라는 배경지식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전설적인 시간 배경을 학습자들이 알기 쉬운 '전설 속'으로 대체하여 정보량을 줄였으며, '귀신같기로'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같은 행의 '귀부(鬼斧)'와의 이해의 연결고리를 제시하였다.[175]

<C>에서는 학습자들이 풀이하기 어려운 한문 원문은 삭제하고, 대신 '단서(丹書)'를 남긴 주체를 같은 행에 제시된 '사선(四仙)'으로 명시하여 의미 이해를 도왔다.[176] '영랑도남석행(永郞徒南石行)'에서 '영랑도'를 시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통해 제시한 것이

175) [077] 工倕의 셩녕인가 鬼斧로 다ᄃᆞᆫ가
176) [080] 丹書ᄂᆞᆫ 宛然ᄒᆞ되 四仙은 어ᄃᆡ 가니

다.

마지막으로 <D>의 '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홀다'의 '비옥가봉(比屋可封)'의 주석에 있어서는, '비옥가봉'의 한문 풀이가 비록 '즐비하게 늘어선 집들이 모두 벼슬에 봉할 만하다'는 문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관동별곡> 원문에서 '비옥가봉'이 주격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성분 상 주어로 쓰인 점을 고려하여 명사형의 주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자어 형태소를 그대로 풀이하는 대신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어휘를 활용하여 '벼슬에 봉하다'는 '벼슬을 주다', '즐비하게 늘어선 집'은 '모든 집'으로 바꾸어 정보의 양을 줄였다.

위와 같이 조정적 공간·사물 명사들이 텍스트의 맥락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속성을 고려하면 시어와 관련된 백과사전적인 의미 중 텍스트 맥락에서 강조되는 의미를 선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텍스트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미를 텍스트의 다른 시어들과 관련지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이때 시어가 지니고 있는 내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단일한 시어의 의미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시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주석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었으며, 시어의 문장성분 등 시어의 어학적인 자질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주석을 읽음으로써 오히려 텍스트를 응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계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주석을 기반으로 학습자들은 특정한 시어를 개별 어휘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다른 시어들과 연결 지어보고, 시어가 본래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문자적 의미에서 시적 맥락에 의한 조정적 의미로의 확장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 직접 생각해보면서 보다 낮은 인지적인 부담으로도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교육적 주석의 예는 기존 전문 연구자의 주석 중을 핵심적 의미의 주석의 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취사선택하여 본 연구의 교육 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대일로 수정하여 대조를 통해 교육적 주석의 유용성을 보인 것으로, 다소 한계가 있다. 실제 교육

주석의 기술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석을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기존의 주석을 고치는 것이 아닌 교육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주석을 고안해 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어의 의미 유형을 바탕으로 <관동별곡> 교육에 있어서 시적 진술과 관련하여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어의 유형을 선별하고, 관련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시어의 유형별 난이도에 따라 교육 순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이를 보였다. 이는 <관동별곡>과 같이 독해의 부담이 크고, 학습자들에게 정서적인 거리감을 초래하는 고전 시가 텍스트에의 접근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고민한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실제 학습자들에게 적용하는 데 까지는 연구가 미치지 못하였음이 한계이자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고전 시가 교육에서 텍스트 이해 과정과 텍스트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적 텍스트를 텍스트의 미시적 구성 요소 단위인 시어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고전 시가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마주하여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지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關東別曲)> 텍스트를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아 Ⅱ장에서는 어학과 문체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 유형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Ⅲ장에서는 <관동별곡>에 나타난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과 시어 의미 유형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시어들을 추출하여 선별된 시어의 유형을 중심으로 <관동별곡>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각의 교육 내용에 맞는 교육 방법을 고안하였다.

문체학적인 논의에 따르면, 텍스트의 의미는 시어의 의미의 총합으로 상향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시어의 의미는 또한 텍스트 맥락과 상호 작용하여 결정된다. 또한, 시어는 텍스트의 구조적인 특질과 진술 양상에 의해 독자들에게 인식될 때 그 의미가 부각되거나 약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어의 맥락 의존성과 텍스트 내에서의 전경화의 원리 및 시어의 품사와 언어학적인 논의를 종합하여, 텍스트 <관동별곡>의 명사 시어는 시어가 속하는 의미 영역에 따라 '공간', '사물', '추상'으로 삼분하였다. '공간 시어'는 시어의 의미가 물리적인 실체들이 위치하는 세계의 삼차원적인 범위와 관련된 시어이며, '사물 시어'는 감각적으로 인지되며, 다른 대상과 속성을 통해 구분되는 시어이다. '추상 시어'는 감각을 통해 인식되지 않는, 사건이나 상태, 차원 등의 의미를 지니는 시어이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시어들의 의미는 문맥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다시 '개념적 의미', '조정적 의미', '변이적 의미' 세 가지의 실현 양상으로 나뉘었다. '개념적 의미'는 시적 맥락에서의 시어의 의미

가 어휘가 본래 지니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에 근접하게 실현되는 경우를 일컬으며, ‘조정적 의미’는 시어의 의미가 맥락에 의해 변화하되, 문자적인 의미의 연속선상에서 의미가 조정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변이적 의미’는 시어의 의미가 문맥에 의해 변화하는 정도가 가장 커서, 시어가 본래 지니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불연속적으로 멀어진 이질적인 의미가 실현되는 경우이다.

위의 세 가지 의미 영역의 시어들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 실현 유형으로 실현되므로, 텍스트의 시어의 의미 유형은 총 9가지가 된다. 이러한 9가지의 의미 유형들은 시의 진술 양상과 관련이 되는데, Ⅲ장에서는 <관동별곡> 텍스트의 ‘기행 체험’과 관련하여 시어의 의미 분류와 기행 체험의 형상화 양상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먼저, 사물 명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적 대상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개념적 사물 명사의 경우 기행 공간을 작자의 주관이 반영된 공간으로 조경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정적 사물 명사의 경우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속성을 부각하고 문화적인 의미를 드러내었다. 변이적 사물 명사는 <관동별곡>의 은유적인 표현의 핵심이 되어 <관동별곡>의 청신한 언어 표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공간 명사의 <관동별곡>에서 여정을 서술하고 작자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개념적 공간 명사의 경우 선적으로 진행되는 여정과 화자의 정지적 소회를 중층적으로 서술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조정적 공간 명사의 경우 공간의 범위보다는 공간이 부각하는 유교적·풍류적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이적 공간 명사의 경우 전고(典故)의 원용과 은유를 통해 공간의 심층적인 의미를 구성하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상 명사의 경우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추상적인 시어로 포괄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공간을 마련하거나, 압축적인 시어나 확장적인 시어를 통해 서술의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Ⅲ장에서의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관동별곡>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들을 선별해 낼 수 있었으며, 선별된 시어들을 통해 <관동별곡> 교육의 내용을 '개념적 공간 중심의 공간의 초점화', '변이적 사물 중심의 은유의 생성', '조정적 공간·사물 중심의 심층 의미의 이해'로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시어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1) 공간 시어와 비공간 시어의 비교 활동, 2) '변이적 사물 시어의 시각화 활동', 3)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는 교육 방법과 연결된다. 이때 공간 시어와 비공간 시어의 비교 활동에서는 '텍스트의 단락 구분'이, 변이적 사물 시어의 시각화 활동에서는 '시각 자료'가, 문자적 의미와 조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 활동에서는 '교육적 주석'이 활동의 중요 비계로서 작용하였다.

이로써 학습자들은 <관동별곡> 텍스트에 나타난 여정의 흐름을 부각된 공간과 사물에 따라 나뉜 단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초점화 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변이적 사물 시어들에 쓰인 은유적인 표현을 시각적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조정적 공간·사물 시어들에 있어서는 문자적 의미로부터 조정적 의미에 이르는 의미의 변화 과정을 다른 시어들과의 연관 관계를 기반으로 이해함으로써 응집적이고 심층적인 텍스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관동별곡>이라는 단일 텍스트를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는 점,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학습 실험이 부재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미진함이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난해한 표현들이 사용된 실제의 고전 시가 텍스트가 현장에서 교육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라는 난관이 텍스트에 대한 선행적인 분석과 텍스트를 구성하는 자질들에 대한 선별과 조직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시어 의미 분석 기준이 다양한 고전 시가 텍스트에 활용되어, 고전 시가 교육의 교수-학습과 교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부 록>

의미영역	의미실현유형	분류	
1. 사물	1)개념적	(1)	4남문(南門) 5옥절(玉節) 6ᄆᆞᆯ[馬] 8믈 9백발(白髮) 11봉(峰) 18행장(行裝) 18막대 23삿기 24춘풍(春風) 27눈 30조화옹(造化翁) 40봉(峰) 46이 48우리 53너러바회 59외나모 59ᄃᆞ리 60천심절벽(千尋絶壁) 63구ᄇᆡ 68영롱벽계(玲瓏碧溪) 68수성제조(數聲啼鳥) 70정기(旌旗) 71고각(鼓角) 71해운(海雲) 72명사(明沙) 72ᄆᆞᆯ 74벗 76기동 84이화(梨花) 84졉동새 87상운(祥雲) 89호발(毫髮) 93척촉(躑躅) 94우개지륜(羽蓋芝輪) 96장송(長松) 97믈결 97모래 106오십천(五十川) 106믈 107그림재 112선인(仙人) 122주렴(珠簾) 122옥계(玉階) 123계명성(啟明星) 125ᄂᆞᆷ 127영웅(英雄) 130송근(松根) 131사ᄅᆞᆷ 133일자(一字) 135술 135잔 137잔 138화풍(和風) 138양액(兩腋) 140술 142잔 144옥소(玉簫) 124가지
		(2)	39만이천봉(萬二千) 53화룡쇠 120명월(明月) 126ᄃᆞᆯ
	2)조정적	(1)	20용(龍) 20은(銀) 20옥(玉) 22우레 22눈 24옥적성(玉笛聲) 32부용(芙蓉) 32백옥(白玉) 42인걸(人傑) 62실 62뵈 87육룡(六龍)
		(2)	23선학(仙鶴) 12궁왕(弓王) 12대궐(大闕) 12오작(烏鵲) 15급장유(汲長孺) 26주인(主人) 34망고대(望高臺) 34혈망봉(穴望峯) 56풍운(風雲) 56삼일우(三日雨) 63도경(圖經) 64이적선(李謫仙) 72취선(醉仙) 74백구(白鷗) 76백옥루(白玉樓) 77공수(工倕) 77귀부(鬼斧) 80단서(丹書) 80사선(四仙) 90구름 91시선(詩仙) 104절효정문(節孝旌門) 105비옥가봉(比屋可封) 107태백산(太白山) 111선사(仙槎) 121서광천장(瑞光千丈) 126유하주(流霞酒) 127사선(四仙) 132진선(眞仙) 133황정경(黃庭經) 141창생(蒼生) 143학(鶴) 148명월(明月)
	3)변이적		20무지게 20초리 25호의현상(縞衣玄裳) 27소향로(小香爐) 27대향로(大香爐) 54노룡(老龍) 57플 61은하수(銀河水) 91해타(咳唾) 95빙환(氷紈) 115고래 117은산(銀山) 118백설(白雪) 124백련화(白蓮華) 136북두성(北斗星) 136창해수(滄海水)
2. 공간	1)개념적	(1)	2관동(關東) 17풍악(楓岳) 19만폭동(萬瀑洞) 23금강대(金剛臺) 28진헐대(眞歇臺) 38개심대(開心臺) 52사자봉(獅子峯) 59불정대(佛頂臺) 66동해(東海) 67산영루(山映樓) 75총석정(叢石亭) 79삼일포(三日浦) 85의상대(義相臺) 94경

			포(鏡浦) 103강릉(江陵) 106죽서루(竹西樓) 113망양정(望洋亭)
		(2)	4연추문(延秋門) 4경회(慶會) 6평구역(平丘驛) 6흑수(黑水) 7섬강(蟾江) 7치악(雉岳) 10동주(東州) 10북관정(北寬亭) 12터 17화천(花川) 17시내 17길 18석경(石逕) 19백천동(百川洞) 23층(層) 25반공(半空) 28정양사(正陽寺) 35하늘 38중향성(衆香城) 46상상두(上上頭) 52원통골(圓通골) 52길 58마하연(摩訶衍) 58묘길상(妙吉祥) 58안문재(雁門재) 60반공(半空) 72길 73바다 75금란굴(金欄窟) 79고성(古城) 85낙산(落山) 85동반(東畔) 88바다 89천중(天中) 93현산(峴山) 98정자(亭子) 99강문교(江門橋) 99대양(大洋) 103대도호(大都護) 106진주관(進奏官) 107동해(東海) 114바다 114하늘 114하늘 118장천(長天) 125세계(世界) 129선산(仙山) 129동해(東海) 129길 134인간(人間) 139장공(長空) 144공중(空中) 146바다
	2)조정적	(1)	1강호(江湖) 1죽림(竹林) 11삼각산(三角山) 8소양강(昭陽江) 14회양(淮陽) 46비로봉(毗盧峯) 47동산(東山) 47태산(泰山) 48노국(魯國) 49천하(天下) 108한강(漢江) 108목멱(木覓) 148천산만락(千山萬落)
		(2)	26서호(西湖) 33동명(東溟) 33북극(北極) 44천지(天地) 55창해(滄海) 65여산(廬山) 73해당화(海棠花) 82선유담(仙遊潭) 82영랑호(永郎湖) 83청간정(淸澗亭) 83만경대(萬景臺) 88만국(萬國) 92천지간(天地間) 117육합(六合) 120부상(扶桑) 132상계(上界) 140사해(四海) 143구공(九空)
	3)변이적		29여산(廬山) 57음애(陰崖) 111두우(斗牛) 112단혈(丹穴)
3. 추상	1)개념적		10밤 14녜 14일홈 15풍채(風彩) 21소릐 24줌 29진면목(眞面目) 35일 40긔운 42긔운 43형용(形容) 43긋 43체세(體勢) 61구벅 63여러 65말 69이별(離別) 77셩녕 86일출(日出) 86밤듕 90근쳐 92긔별 93사양(斜陽) 98고주해람(孤舟解纜) 100기상(氣像) 100경계(境界) 103풍속(風俗) 109왕정(王程) 109풍경(風景) 110유회(幽懷) 110객수(客愁) 113천근(天根) 119밤 119풍랑(風浪) 120지척(咫尺) 126말 128긔별 130픗줌 131쑴 131말 143말[語] 144소릐 146줌 147기픠 147ㅋ 50디위 70오색(五色)
	2)조정적		1병(病) 9고신거국(孤臣去國) 13천고흥망(千古興亡) 55주야(晝夜) 67남여완보(籃輿緩步) 102홍장고사(紅粧古事)

<관동별곡(關東別曲)>의 시어의 의미 유형 분류

참 고 문 헌

1. 자료

김만중,『西浦集·西浦漫筆』, 影印 合集, 통문관, 1971.
류수열 외, 고등학교『국어』, 금성출판사, 2018.
민족문화추진회,『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5·6, 민족문화추진회, 1982.
이백,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이태백시집』, 학고방, 2015.
鄭澈, 方鍾鉉 註,『松江歌辭』, 正音社, 1948.

2. 국내 논저

강경하,「한·일 기행문학의 비교 연구 - <관동별곡>과 <오쿠노호소미치>를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고정희,「영삼별곡을 통해 본 기행가사 교육의 방향」,『선청어문』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2.
고정희,「학습자를 위한 고전시가 주석 연구」,『국어교육연구』3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3.
권순정,「고전시가의 어휘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광해,『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2003.
김대행,「송강가사와 문학교육」,『고시가 연구』2·3합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5.
김병국,「가면 혹은 진실-송강가사 <관동별곡> 평설」,『국어교육』18, 한국어교육학회, 1972.
김사엽 주해,『校主·解題 松江歌辭』, 문호사, 1959.
김상태,『관동별곡의 생략언어: 국어국문학 자료처리를 위한 생략언어의 현시』, 학고방, 2005.
김성배 외 편저,『(주해)가사문학전집』, 정연사, 1961

김신중, 「송강문학의 활용과 전망적 시각」, 『고시가연구』 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김영선, 「국어 한자어의 형태 분석과 품사 태그」, 『언어과학』 15, 한국언어과학회, 2008.
김창원, 「<關東別曲>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27, 한국시가학회, 2009.
김효원, 「시각화 활동 중심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계발에 미치는 영향」, 『창의력교육연구』 18(4),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8.
김향규, 「古典敎育의 問題點」, 『새국어교육』 7, 한국어교육학회, 1965.
김해옥, 「어휘 교육을 위한 의미장 확정을 위한 시론」, 『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 국학자료원, 2005.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남민우, 「은유 교육의 목표와 내용 연구」,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민현식, 「시간어(時間語)와 공간어(空間語)의 상관성 (1) —품사 하위분류의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어학』 20, 국어학회.
박승희, 「대중매체의 교육적 수용과 은유 교육」,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004.
박성의 주해, 『國文學大系 增補 松江歌辭 <詩歌經典篇>』, 정음사, 1961.
박연호, 『가사문학 장르론』, 다운샘, 2003.
박영주, 「가사의 갈래 규정과 체계화 방안」, 『성대문학』 25, 성균관대학교, 1987.
박영주, 「<관동별곡>의 시적 형상성」, 『반교어문연구』 5, 반교어문학회, 1994.
박영주, 「기행가사의 진술방식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15.
박종성,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

육연구회, 1998.
성호경, 「<관동별곡(關東別曲)>의 형상화와 정철의 신선의식>, 『고전문학 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a.
성호경, 「가사 <관동별곡>의 종착지 "월송정 부근"과 결말부의 의의」, 『국문학연구』 22, 국문학회, 2010b.
송지현, 「이해/표현 활동 중심의 시 교육 방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신윤경, 「한국문학 읽기를 위한 어휘 주석 연구 – 사회·문화적 배경지식 및 맥락 이해 추가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1, 2014.
여기현, 「<정과정>의 향유 양상과 "접동새"의 문학적 변용」, 『반교어문연구』 27, 반교어문학회, 2009, 89면.
염은열,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기행가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염은열, 「표현 자료로서의 <관동별곡> 연구」, 『독서연구』 4, 한국독서학회, 1999.
염은열 「기행가사의 '공간' 체험이 지닌 교육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윤여탁, 『현대시교육론』, 사회평론, 2010.
윤인현, 「송강(松江)의 <성산별곡(星山別曲)>과 <관동별곡(關東別曲)>에 나타난 환골탈태(換骨奪胎)」, 『어문연구』 30-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이광복, 「미디어 시대의 시 교육-'은유 교수법'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2009.
이카라시 고이치, 「텍스트 해석의 분석과 종합」, 『텍스트언어학』 1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1.
이민우, 「다중적 의미 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의미학회, 2010.
이종묵, 『<關東別曲>을 읽는 재미」, 백영정병욱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간행위원회 편,『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이종오,『문체론』, 살림, 2006.
이주영,「고전시가에 나타난 에토스의 설득력과 오늘날의 글쓰기-<관동별곡>에 구축된 에토스를 중심으로-」,『작문연구』26, 한국작문학회, 2015.
이홍식,「고유명사의 의미와 지시에 대하여」,『한국학연구』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임채훈,「명사의 의미론」,『한국어학』62, 한국어학회, 2014.
장석원,「김수영 시의 인칭대명사 연구」,『한국시학연구』15, 한국시학회, 2006.
전영진 주해,『송강가사·다산시선』, 홍신문화사, 1995.
정기철,「기행가사의 국어교육적 의의와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한남어문학』25,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1.
정무룡,「송강 <관동별곡> 독해의 새 시각 모색」,『한국시가연구』23, 한국시가학회, 2007.
정재호,「관동별곡의 공간」,『새국어교육』50, 한국국어교육학회, 1994.
정재호·장정수,『송강가사』, 신구문화사, 2006.
조세형,『가사의 언어와 의식』, 보고사, 2008.
조세형,「<관동별곡>에 나타난 중세적 표현방식과 그 현대적 의미」,『고전문학과 교육』2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조영란,「금강산 기행가사의 회화적 시선과 형상」, 강릉원주대 석사학위논문, 2011.
조재윤·엄해영,「인지와 감성이 융합된 문학 독서 학습 모형 개발 연구」,『새국어교육』93,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조치형,「典故의 解讀 문제와 고전문학교육의 방향」,『국어문학』60, 국어문학회, 2015.
조희정,「고전 제재의 교과서 수용 시각 검토 (1) - <홍길동전>과 <관동별곡>을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15,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5.

조희정, 「국어과 교과서 고전 시가 제재 단원의 이론과 개념 연구 - 2009 개정 국어 교과서 송강 가사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차경미, 「국어 어휘 수행 전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차준경, 「추상 명사의 의미, 화용 특성 연구」, 『언어와 정보사회』 2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015.
최경봉, 「명사의 의미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학』 4, 한국어학회, 1996,
최경봉,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1998.
최경봉,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어휘의 의미 분류」, 『담화와 인지』 5-2, 2001.
최규수, 『송강 정철 시가의 수용사적 탐색』, 월인, 2002,
최미숙, 「기호, 해석, 독자의 문제와 문학교육학」, 『문학교육학』 3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최미숙, 「현대시 교육에서 은유의 문제」,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최지영, 「전경·배경 원리와 구조적 도상성」, 『독어학』 22, 한국독어학회, 2010.
최지현, 「문학교육의 학제적 접근: 문학교육과 인지심리학-"문학적 이해"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최효선, 「텍스트와 시각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디지털 학습자료 읽기 과정 메커니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한창훈, 「<관동별곡> 해석의 문학교육적 의미망」, 『문학교육학』 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호취월, 「한국어 사자성어의 존재 양상 및 외국어로서의 그 교육 방안」,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
황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문학 교과서의 고전문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66, 한국문학교육학

회, 2020.

3. 번역서 및 국외 논저

Adams, M. J., *Begin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MIT, 1990.

Cruise, D. A., 임지룡 김동환 역, 『언어의 의미 : 의미·화용론 개론』, 2002.

Hernadi, P., 김준오 역, 『장르論』-文學分類의 새方法』, 문장, 1983.

Kintsh, W., 김지홍·문선모 역, 『이해: 인지 패러다임』 1, 나남, 2010.

La Berge, D. & S. J. Samuels, "Toward a theory of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in reading", *Cognitive Psychology* 6(2), Elsevier, 1974.

Lyons, J., *Seman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Riffaterre, M. & S. R. Levin & G. N. Leech, 양희철·김상태 공편역, 『일탈문체론-리파테르·레빈·리이치의 이론들』, 보고사, 2000

Sowinski, B., 이덕호 역, 『문체론』, 한신문화사, 1999.

Stockwell, P., 「밀턴풍의 텍스처와 읽기 감각」, E. Semino & J. Culpeper 엮음, 양병호 외 옮김, 『인지문체론—텍스트의 언어와 인지 분석』, 한국문화사, 2017.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tics*, Cambridge, MA: MIT Press. 2000.

Widdowson, H. G., 최상규 역, 『문체학과 문학교육』, 예림기획. 1999.

4. 온라인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2021년 4월 22일 접속.

Abstract

A pedagogical study on classifying sementic types of poetic words for comprehending classical poetry: focusing on "Kwan-dong-byeol-gok"

Song, Miji

This study mainly aims to alleviate the cognitive burden of learners that they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comprehending classical poetry.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research was carried out analyzing the semantic types of the poetic words, which are microscopic components of the poetic tex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classification, poetic words that are essential and fundamental to understand poetic texts were sorted out. Then, educational contents of "Kwan-dong-byeol-gok" were designed around these essential words, and specific educational methods of each educational content were d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the poetic words in the poetry.

The research relies on a premise that the realization of the meaning of the poetic word is closely related to the poetic context. In this paper, linguistic and stylistic discussions were referred to analyze this relationship between poetic words and poetic text. As a result, it was able to be confirmed that the poetic word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f meaning—space, thing, and abstract—and each category is re-divided into three types of meaning realization—literal, adjusted, and variant. To make it simple, there are a total of nine semantic classifications.

Then, it was discovered that each type of poetic words was closely connected to the pattern in which the experience of travel was embodied in the "Kwan-dong-byeol-gok." In the case of poetic words of "thing", it was found that they plays a central role in suggesting poetic speaker's assessment of the subjective value of poetic objects. Second, poetic words of which meanings are related to "space" mainly undertake stating the process of travel experience and expressing personal values of the author. Lastly, poetic words in category of "abstract" plays a role by and large in stimulating and enlarging imaginative scope of readers. In addition, more detailed function of each category of poetic word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three types of sementic realization.

To utilize the result of preceding analyzation of poetic words in real-world pedagogical sites, in chapter Ⅳ,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importance of the poetic words, a few types of poetic words could be selected to design educational contents: 'focal places', 'metaphors', and 'advanced meaning of the text'. Furthurmore, each educational content corresponds to the following educational methods: 'comparing the meaning of space words with non-space words', 'visualization of metaphorical object words', 'exploring literal and

adjusted meanings'. Through these methods, learners can effectively understand the esoteric text with little cognitive effor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specifically devised educational measures to provide links to a series of processes ranging from understanding to appreciation of literary texts and to enrich the experience of reading literature.

keywords : Kwan-dong-byeol-gok, poetic words, classification of poetic words, text comprehension, text analysis
Student Number : 2019-20381